

忠海 李丙鎬 博士 古稀記念 散文集

늘 푸른이처럼

늘 푸른이처럼

忠海 李丙鎬 博士 古稀記念 散文集

늘 푸른이처럼



『늘 푸른이처럼』을 펴내며



고희가 가까워지면서 해 보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지인(知人)들의 고희기념 논문집이나 회고록을 읽어본 적은 있어도 내가 한 권의 책자 속에 나를 담아 보려니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서 산문집으로 이름을 붙인 이 책자를 증정함에 앞서 비록 미숙함과 모자람이 많더라도 많은 이들의 해안을 기대한다.

이 책은 전체의 글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1부는 나의 뿌리와 걸어온 길을 소재로 하여 통상적인 회고담(回顧談)의 형식을 취하였고, 2부는 순간 또는 오랜 기간 잊지 못하던 신변잡기(身邊雜記)의 기억들을 통한 삶의 아픔과 아쉬움,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산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써 보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필자가 오랜시간에 걸쳐 쓴 것으로, 글 쓸때의 시점(時點)을 그대로 쓰고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자에 사용된 언어들은 아름답고 점잖은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속어나 은어도 정화없이 사용하였기에 읽는 이들에게는 한편 송구하지만, 내가 귀히 여기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을 그저 어여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란다.

충해(忠海) 이병호(李丙鎬)

1951년 12월 15일생

치과의사, 이학박사

『늘 푸른이처럼』 출간을 축하하며



장국진(웅인대학교 명예교수)

내가 이치과의원 원장인 이병호 박사를 처음 만난지는 20년이 되었다. 당시 나는 대학원장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만학도로 입학한 이 원장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이 원장의 만학 기간은 여러 해가 걸렸다. 학위를 받은 뒤, 겸임교수가 되어 강의를 맡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교정에서 만날 기회가 그만큼 더 잦아졌고, 더 많은 인연을 쌓을 수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의 대학 공간은 더욱 넉넉지 못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강사를 위한 대기실이나 잠깐이라도 혼자 편히 쉴 곳이 거의 없었다. 원장실을 혼자 쓰는 분의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 고민하다가 나는 좋은 방법, 나의 교수실 출입문의 열쇠 하나를 복사하여 이 박사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교내의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졌고, 두 사람이 편리한 시간에 맞추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다행인 것은, 나이는 내가 조금 더 들었어도 두 사람 모두 애주가이고 취향도 비슷하여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성장 과정이 비슷하였고 두 사람이 보고 듣고 겪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모두 실화였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우의 월남전과 해병대의 경험, 두 아들과 함께 하는 해병대 가족도 얼마나 자랑거리인가. 방위병 출신인 나는 수색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격 훈련도 하고 향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기억뿐이기에 아우의 군 생활은 놀라울 뿐이었다. 또, 이 박사가 오산에서 터전을 잡은 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 문화에 기여한 사실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

이 박사와의 인연은 20년이 넘었지만, 그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아우의 진면목은 〈외유내강(外柔內剛), 초지일관(初志一貫), 안분지족(安分知足)〉 이 세 개의 사자성어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의 회고담이기도 한 『늘 푸른이처럼』이라는 산문집은 충혜 이병호 박사의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단지 글 속에 정성스럽게 담았기에 지은이의 체취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늘 푸른이처럼』의 출간을 마음속 깊이 축하하고 싶다.

1947년 대구 출생

양정고, 연세대 국문과 졸업, 동 대학원 이학박사(스포츠 심리학)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학장 및 체육과학 대학원장 역임

저서: 『운동학습(공역)』 『운동행동의 심리학(공저)』 『운동학습의 기초(공저)』 외 논문 다수

늘 푸른이처럼 _

이병호 형님과 같이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



홍하생(작가, 전경련 교수)

이치과의원에 처음 간 때는 1994, 5년경 즈음 된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치과라면 아예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워했다.

발치하는 일 하나도 어려워서 여러 치과를 전전했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발치를 가장 잘한다는 치과를 수소문해보니 이치과였다.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한 발치를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버려서 큰애도 이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 이후 우리 식구들은 모두 이치과 의원의 단골 환자가 되었다.

이후 이병호 원장님과는 자연히 친해지고, 가족들끼리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나는 이 원장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수많은 두주불사의 모임과 토론의 장을 함께 전전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원장님이 월남전 참전, 중동 기술자 등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치과의사가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나하고는 매우 막역한 사이로 발전했다.

작년에는 이치과 원장님이 강원도 봉평으로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가셨

는데 나도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틀을 같이 있었다. 이치과 원장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 주변의 인물들도 대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봄에 초록여행사 이진수 사장님, 이치과 원장님과 나, 셋이서 전남 신안군의 압해도, 증도 등 4개의 섬 여행을 같이 다녀 오기도 했다.

이치과 원장님도 칠십이 되셨고, 그사이 나도 66세가 되었다. 이치과 원장님으로부터 배운 게 많다.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언제나 쾌활하시다.

본인 자신이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서 성공하셨기 때문이다. 해병대 출신에, 월남전 전투경험이 있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결하신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대단한 집념과 성실함이 있다. 그런 자세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은 자원하여 해병대를 다녀오고, 나도 덩달아 우리 아들을 해병대 통역장교로 입대 시켜, 얼마 전에 대위로 전역했다.

살다 보니 함께 늙어간다.

요즘도 가끔 술 한잔하면서 세상사 얘기도 하고, 과거도 회상한다.

우리 세대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큰 실수없이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병호 원장님도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정말 멋진 형님이시다. 늘 용기와 희망이 넘친다.

우리도 늙었다. 그런데 이 원장님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제 같이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

이병호 형님.

앞으로 30년만 더 사셔서 백세를 채우실 때까지, 같이 여행도 하고,
저녁에는 약주 잔을 기울이시죠.

늘 감사합니다.

이병호 원장님!

부라보!

만만세!

고희기념 산문집 『늘 푸른이처럼』의 출간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전직 방송작가이자 논픽션 작가. 1955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저서: 『상신 리자청』, 『이병철과 정주영, 카리스마 대 카리스마』, 『오사카 상인들』, 『이건희, 그의
시선은 10년 후를 향하고 있다』 외 다수

수상: 1983년 제1회 한국기행문학상, 1990년 MBC방송대상 작가상 비드라마부문, 2000년 한국일보
백상 출판문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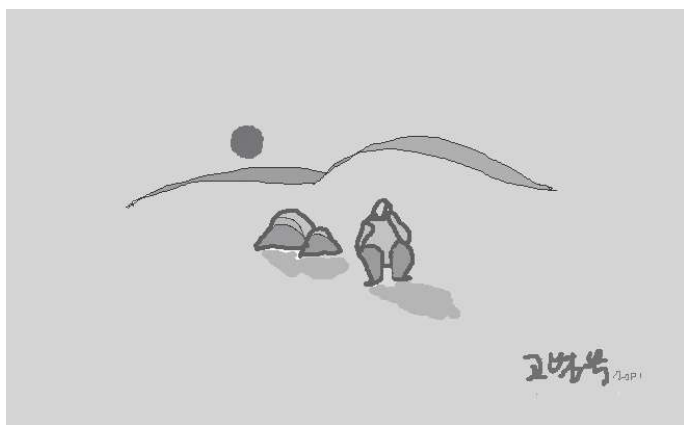
차례

늘 푸른이처럼

1부

기억(記憶)과 흔적(痕迹)의 오솔길을 따라

왕조(王朝)의 반항아(反抗兒)와 자유부인(自由夫人)	18
만남과 이별이 있기에	28
세월은 강물처럼	36
가슴 아프게	61
동네 한 바퀴	78
공수래공수거	89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17
부자유친을 꿈꾼다	143



墨井 畫 〈생각〉

2부

여백(餘白)을 채움이

부끄러워도

한때는 네가 참 좋았다-발렌타인	166
가요무대	170
누나, 1월에 안 돼요?	173
도련님과 아가씨가 문제였네	176
렛잇비(Let it be)와 렛잇비 미(Let it be me)	179
마지막 명함	181
막말과 욕이 표현의 자유인가	184
문재인 쾌어(快語)	188
미사의 노래	192
바위고개 넘어 희망의 나라로	195
바지 입은 여자	198
어르신과 늙은이	201
슈베르트의 이발관	208
보훈병원에서.....	211
취객십경(醉客十景)과 소주 예찬	215
빈대떡.....	218
사(師), 사(士), 사(事)	220
산사(山寺)의 봄	223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226

아바나의 비둘기와 관타나모의 여인	231
애국가 논란	235
여성이 돌로 보이는가?	238
제사 유감(祭祀 有感)	243
통신폭력(通信暴力)	246
취미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249
타인의 벽	254
팜므 파탈 왕수복	256
홍어 잡살랴요?.....	259
객지 벗 10년이라....	262
목사님과 환속(還俗)	265
조문(曹文)과 조문(弔問)	269
가훈(家訓)의 대물림	271
사면곡(思麵曲)	274
그들의 인생, 3인 전(傳)	277
 에필로그.....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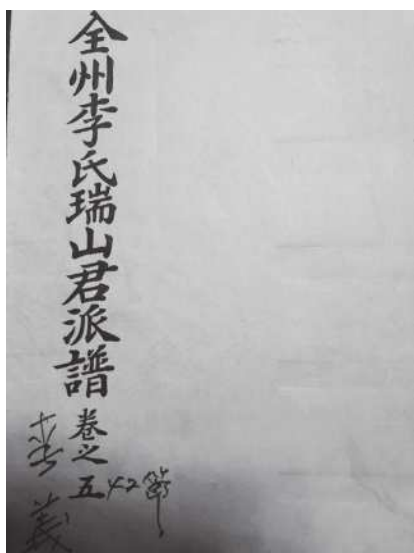
1부

기억(記憶)과
흔적(痕迹)의 오솔길을 따라

늘 푸른이처럼

❁ 왕조(王朝)의 반항아(反抗兒)와 자유부인(自由夫人)

서산군(瑞山君) 이혜(李譏)와 현주(縣主) 이구지(李仇之)는 누구인가?



나는 30여 년 전부터 전주 이씨 족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전에는 단순히 조선의 3대 임금이신 태종대왕의 장자였던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裀, 1394년-1462년)의 후손 중 한 명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후, 나는 엄밀하게 따져서 양녕대군 할아버지의 세 번째 적자였던 서산군(瑞山君) 이혜(李譏) 할아버지로부터

뿌리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공식 족보는 ‘전주 이씨 서산군 파보(全州李氏 瑞山君 派譜)’로 전해진다.

양녕대군은 누구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알려진 그분, 바로 세종대왕의 만형이 아니신가? 원래는 태종대왕의 뒤를 이어 조선의 임금이 되실 세자였는데 왕위계승 계임은 동생인 충녕대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야사에서는 사람에 따라 양녕대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르고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양녕대군께서는 얼마나 좋은 길 많이 드시고 정력이 좋으셨는지는 몰라도 슬하에 본부인 수성군 부인 광산 김씨에게서 3남 5녀, 첩실에게서 7남 12녀 등, 총 10남 17녀를 두었다. 이처럼 27명의 많은 자식을 두었으니, 대군께서는 자식들 이름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중국의 진시황제도 아니건만 양녕대군은 평생을 음주 가무에 축첩을 즐기며 68세까지 살았으니 오늘날의 100세보다 더 장수한 셈이다. 바로 양녕대군의 적 3남인 서산군(瑞山君) 이해(李懣) 할아버지가 우리 집 족보상 최고참 어른으로 등재된 인물이다. 이분의 생애 역시 파란만장함을 알게 되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왕족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콩가루 집안이 많음을 밝히자니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역사와 인물에 관심있는 이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며 내가 좀 더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했을 뿐이다.

우선 서산군은 자기 아버지 양녕대군을 롤모델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만장한 왕손으로서의 이해 할아버지께서도 술주정, 폭력, 주색잡기 등에 일가견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짐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39년(세종 21년) 1월 20일, 서산군은 종묘제를 서계(誓戒)한 후에 영돈녕 부사 권홍(權弘)의 사저에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 기생 소지홍(小枝

紅)과 김규월(金閨月) 등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질퍽하게 놀다가 그 자리에 합석한 미모의 기생 한 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 게 문제가 되어 탄핵되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서계(誓戒)라 함은 나라의 큰 제사를 4, 5일 앞두고 제관(祭官)이 될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가무(歌舞)·조상(弔喪)·문병(問病) 등, 금지된 사항을 확약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하던 의식이었는데 서산군의 도덕성 자체가 진즉에 망가진 상태에서, 서계고 뭐고 다 잊어버린 채 친구들과 문란하게 나름 신바람 나게 놀다가 사고를 쳤으니 서산군은 탄핵보다 더한 엄벌을 받는 게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년 후인 1440년(세종 22년) 4월 2일에 다시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으나 곧 황계령(黃溪令)으로 강등되었던 서산군은 급기야 1447년(세종 29년) 10월 3일에는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을 일으켰다.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종부시(宗簿寺)’라는 부서에서 그 죄를 처벌토록 청하여, 세종의 명령으로 직첩을 거두고 지금의 경남 고성현(固城縣)에 안치(安置)함과 동시에, 그 도감사에게 일러서 자체 농사지어 먹을 전답은 주되, 활과 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은 금하고, 또 외부인과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서산군은 가택연금을 당한 셈이었다.

역시 세종대왕은 의리와 정이 많은 임금이었나 보다. 왕족이 아니면 진즉에 목이 잘리고도 남았을 텐데 서산군께서는 삼촌인 세종대왕의 뺨을 믿고 개판을 치며 살았던 모양이다.

세종의 붕어 직후, 이 할아버지가 몰래 도망친 것을 알고 아버지 양녕

대군이 사람을 보내 찾게 하였으나 행방불명이었다. 후에 밝혀진 것은 서산군께서 금강산으로 도피하여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가 돌아왔다고 하니, 이 할아버지는 요즘 말로는 이른바 탈주범이 아니었던가?

실록에서는 서산군 이해가 망가진 원인을 사랑했던 첩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난 후에 생긴 율화병이 연유로 기록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부자지간이다.

1451년 4월 7일에는 이해의 고신(告身 :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직첩職牒)과 나라의 녹봉을 돌려주나 이해는 고신을 돌려받은 바로 다음날, 유배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 이틀 후,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정의를 위한 자결도 아니고 말년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지레 겁먹고 어영부영 돌아가신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왕족이라는 간판 덕분에 돈 한 톨 못 벌면서도 평생 연금받고, 세금 축내가며 참으로 기막힌 삶의 주인공이었다. 풍운아도, 독립투사도 아닌데….

서산군의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다.

- 아버지 :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禔, 1394년 - 1462년)
- 어머니 : 수성부부인 김씨(隨城府夫人 金氏, ? - ?)
광산인(光山人) 증 좌의정 광산군 김한로(金漢老)의 딸
- 부인 : 양천군 부인(陽川郡夫人 金氏, ? - 1464년 6월 5일)

안산인(安山人) 판중추부사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 1405년
~ 1484년)의 딸

- 장남 : 학림군 이이(鶴林君 李頤, ? ~ ?)
- 2남 : 취성군 이빈(鷲城君 李頻, ? ~ ?)
- 외할아버지 광산군(光山君) 김한로(金漢老, 1358년 ~ ?년)
- 처부 : 안산군(安山君) 김개(金漑, 1405년~1484년)

지금부터는 서산군의 이복 여동생인 현주(縣主) 이구지(李仇之) 할머니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현주(縣主)라 함은 왕세자(王世子)의 서녀에게 주는 정3품(正三品)의 세금 축내는 봉작(벼슬)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분에 관해서는 왕족과 전주 이씨의 명예를 더럽힌 여인이라고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도 취급되지 않았는데 이왕 쪽팔린거 그냥 옛이야기 삼아 적어본다.

현주 이구지(縣主 李仇之, ? ~ 1489년 3월 7일)는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여덟 번째 서녀이고 서산군 할아버지의 이복 여동생이다. 신분은 현주였으나 실록과 족보에는 그녀의 작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남편 사후, 남편이 부리던 머슴과 정을 통하고 왕족의 품위를 더럽혔다하여 사사를 당했다. 참 대단한 여인이다.

문헌에 의하면, 이구지 할머니는 별제* 권덕영(權德榮)이라는 사람과

* 별제(別提) : 정 · 종6품

혼인하였는데 남편이 일찍 죽자, 남편의 호위 머슴이었던 천례(天禮)라는 녀석과 간통하여 딸을 낳은 뒤 그 딸을 양가집으로 시집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천례와의 연애는 불문으로 붙여졌으나 이 불륜 남녀가 자신들의 딸이 왕실의 후손이라고 여기저기 발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가 기강이 훼손되자 왕명으로 사형당했다.

천례라는 머슴 놈도 정신 나간 놈이지 머슴 주제에 갑자기 말을 타고 비단옷을 걸치고 품 잡고 다닌 점 역시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됐고, 이런 행위가 극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천례, 이 머슴 놈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카사노바 변강쇠였기에 이구지 할머니께서는 과부가 되자마자 정분이 났단 말인가? 자기가 자유부인인 줄로 착각했나 보다. 그냥 입 다물고 멀리 가서 살면 될 것을 여인의 허세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말았다.

이구지 할머니는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음란한 여성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마녀사냥감이 되어왔다. 이후 왕실 족보에서도 제명되었고, 은폐되어왔다고 한다.

불초(不肖)후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 힘 좋은 양녕대군의 가족관계가 몹시 궁금하여 여기저기 문헌을 찾아보니 엄청난 대가족이었음을 알게 되어 여기에 수록한다.

참고로, 적은 본처 소생이고 서는 첩(기생, 종)의 자식임을 구분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녕대군은 본부인 수성군 부인 광산 김씨에게서 3남 5녀, 첩실에게서 7남 12녀 등, 총 10남 17녀를 두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인 : 수성부부인 광산김씨(隨城府夫人 光山金氏) - 광산군(光山君)
김한로(金漢老)의 딸

실록에는 정부인 광산 김씨 사이에서 3남 4녀, 서출로 6남 10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에는 3남 4녀, 서출로 7남 11녀가 기록되어 있다.

적1남 : 순성군(順成君) 희안공(僖安公) 이개(李愷, ? ~ 1462년 9월 2일)

자부 : 신씨(申氏, ? ~ 1453년 11월 27일)

첩부 : 이름 미상, 양민 출신 서손 : 오천 부정(烏川副正) 이사종(李嗣宗), 장손이지만 서손이라서 봉제사를 두고 둘째 삼촌 이포의 후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적2남 : 함양군(咸陽君) 이안공(夷安公) 이포(李布, ? ~ 1475년 1월 17일)

자부 : 태인 군부인(泰仁郡夫人) 이씨(李氏)

적3남 : 서산군(瑞山君) 이해, ? ~ 1451년 4월 10일) - 우리 조상님 1호

자부 : 군부인 김씨(郡夫人金氏), 안산인(安山人) 안산군 김개(安出君 金漑, 1405년~1484년)의 딸

적1녀 : 재령군주(載寧郡主, 또는 전의현주, ? ~ 1444년), 돈령부사 이자(李孜)에게 출가(出嫁)

적2녀 : 현주(縣主) - 중추부사 이번(李蕃)에게 출가(出嫁)

적3녀 : 영평현주(永平縣主) - 주부 김철균(金哲勻)에게 출가(出嫁)

적4녀 : 현주(縣主) - 군수 박수종에게 출가(出嫁)

기생 봉지런 : 양녕대군이 혼인하고 4년 후 정을 통했던 기생이다.

서1남 : 고정정 이겸(李謙)

서2남 : 장평부정 이흔(李訢), 사후 도정으로 추증됨. 이승만의 15대조

서3남 : 계천도정 이성(李誠)

서4남 : 봉산부정 이순(李淳)

서5남 : 안창정 이심(李諶)

서6남 : 밀산부정 이광석(李廣石) <선원계보에는 밀산(密山)부정으로 쓰여 있으나, 실록에는 돌산(突山)부정으로 기록됨>

서7남 : 금지부정 이광근(李廣根)

기생 어리 : 원래 곽선의 첩이었다.

서1녀 : 현주 이름 미상, 상장 이종경(李宗慶)과 혼인

초궁장 : 초궁장은 양녕대군의 숙부 상왕 정종의 애첩이었다

기생 정향

기생 칠점생

서2녀 : 현주 이름 미상, 부령 김암(金巖)과 혼인

서3녀 : 현주 이름 미상, 부사 권치중(權致中)의 처 - 외손녀가 연산군의 후궁이 됨

서4녀 : 현주 이름 미상, 현감 김승간(金承幹)과 혼인

서5녀 : 현주 이름 미상, 사직 김오(金澳)와 혼인

서6녀 : 현령 김원(金瑗)과 혼인

서7녀 : 현주 이름 미상, 좌리공신 영의정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의 초취(첫 번째부인)

서8녀 : 현주 이구지(仇之), 별좌 권덕영(權德榮)과 혼인

서9녀 : 현주 이름 미상, 창승 유석번(俞碩蕃)과 혼인

서10녀 : 현주 이름 미상, 봉사 김의(金儀)와 혼인

서11녀 : 현주 이름 미상, 정남 임중(林重)과 혼인

서12녀 : 현주 이진이

이상 총 27명(10남 17녀)이 양녕대군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불확실하게 전해진다.

양녕대군께서는 임금을 지낸 큰아버지의 첩도 자기 것, 매형의 첩도 자기 것, 자식의 첩도 자기 것이었으니 아들인 서산군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수밖에 없었으리라. 양녕대군은 딸이 도합 17명인데 그중 12명은 첩실 소생이며 12명의 서녀 중에서 서열 1위는 어리(於里)라는 여인과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 어리가 누구인가? 중추원의 관리였던 사대부 곽선(郭璇)의 소실이었다고 한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미색이 출중하였는지 실록에서 조차 조선 시대의 여인들 중에서 장희빈 말고는 어리를 따라갈 미색이 없었다고 하니 그냥 상상만 하여도 대단한 듯하다.

양녕대군계옵서 국가 공직자의 애첩에게 필이 꽃힌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한술 더 떠서 나이 어린 내시를 보내 몰래 데이트 신청을 전하였으나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1저 1첩이 정식으로 허용되어 소실도 엄연히 유부녀로 인정받던 그 시절이었으니, 어리(於里)의 입장에서는 임금도 아닌 대군이 만나자고 한들 쉽게 허(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군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었는지 급기야 줄개들을 시켜 어리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동거하다가 결국 제1 서녀를 시작으로 한 다스, 12명의 서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양녕대군은 물론이고 3남 서산군 혜, 8서녀인 이구지(李仇之) 등등은 요즈음의 막장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는, 재벌가나 권력층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비뚤어진 애정 편력과 많이 닮아보인다.

만남과 이별이 있기에

회고록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산문집으로 소제목을 바꾸고 보니 부담은 덜었지만, 한 인간의 살아온 인생사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서술하는 것도 고해성사에 버금가는 용기가 필요하며, 자기 합리화를 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존해 계신 분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일부 묘사나 표현을 달리해 보려고 했으나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 평생 써온 수십 권의 일기나 메모, 기억의 편린들을 찾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집약하는 것이기에 애증의 세월도 공평하게 기록하고 탈고하여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부모님과 형제들께는 나의 치우침 없는 표현이 서운함과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핑계로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짧은 기록을 남겨둔다. 나를 낳아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양(梁) 여

사님. 아버지와 혼인신고 하시고 4남매를 낳으셨으며 지금도 내가 유일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김(金) 여사님,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진 연유를 알 수 없는 윤(尹) 여사님. 윤 여사님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나와 형제간에 혈연으로 엮인 어머니가 계시고 나의 형제는 5남 1녀이며 내가 그 중 장남이다.

참 복잡한 가족관계임에 틀림이 없으나 내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

선친께서는 1927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시어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함께 북만주로 이주하셨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자 중국 목단강에서 의정부까지 도보로 단신 남하하여 고향의 친척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시다가 국방경비대에 입대, 직업군인의 길을 걸으셨다.

한국전쟁 시에는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압록강까지 북진하셨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신 경험이 있으며, 육군병기장교로 여러 곳의 병기탄약창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964년 말에 영관장교로 예편하셨다.

선친은 북진하면서 함경남도 북청군을 거쳐 가셨다. 그리고 그곳 북청수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조합 경리로 계시던 어머니 양 여사님을 만나고 1.4 후퇴인지 홍남 철수인지는 몰라도 양 여사의 가족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북 포항 구룡포에 정착하였다. 나는 1951년 12월 15일에 구룡포 우체국 관사 2층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휴전이 되고 우리 가족 - 선친, 양 여사, 이모, 나 - 네 사람은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 신길동의 육군 관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생모 양 여사께서 결핵으로 세상을 뜨셨다. 이때가 1954년 경이니까 내게는 기억 밖의



생모 양정숙



내게 있는 유일한 유년기의 사진인데, 사진 뒷면에 4288, 5, 12라고 적혀 있으니 1955년인 셈이다. 나를 안고 있는 여성은 부전동 집에 세들어 사시던 이웃이라고 한다.

사건이다.

육군 관사에서 살 때도 이모 정란(貞蘭)이 모친 병간호 겸 나를 돌보아 주었는데 모친이 사망하고, 선친은 충남 서산의 전후 복구 후생사업에 지휘관으로 투입되었다. 그 사이 이모와 나는 부산 부전동의 외가쪽 먼 친척 집에서 잠시 생활하였으며 얼마 후, 이모는 외조부와 외삼촌이 계시는 속초로 가버렸다. 이모와는 이게 마지막이었다.

선친 생존 시에도 우리 부자는 양 여사나 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마디 알려 주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훗날, 수소문 끝에 이모를 찾아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메모해 놓은 것이다.

나는 중학생 시절에 어렴풋이 나 자신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알게 되었으나, 성공하기 전에는 혈육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왔다. 지금은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 근무하던 친구의 도움으로 헤

어진 지 39년이 흐른, 1994년 2월 10일, 설날 다음 날에 이모와 만났다. 기억 건너편의 이모였기에 애뜻한 그리움도 없이 그저 내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줄 오직 한 사람이었다. 이모와는 그 후에도 몇 번 만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다.

이모의 색 바랜 노트에서 옮겨 적은 친 외가 쪽의 과거 거주지와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전,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평면 신평리 737번지

외조부 양화진(梁華鎭)

외조모 하상진(河相鎭)

이모 양칠석(梁七夕)

외삼촌 양홍래(梁洪來)

모친 양정숙(梁貞淑), 1928년(무진) 5월 20일(음)생, 1954년 3월 7일(음)졸(추정)

외삼촌 양홍무(梁洪武)

이모 양정란(梁貞蘭), 1934년 5월 11일(음 3월 28일)생

이모 양정원(梁貞瑗)

외삼촌 양홍범(梁洪範)

위 가족 중 1.4 후퇴 시 월남한 분들은, 외조부와 모친 정숙, 외삼촌 홍무, 그리고 이모 정란 이렇게 네 명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북에 계셨기에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결국, 나도 이산가족인 셈이다.

외조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북청과 속초, 구룡포를 오가던 명태잡이 어선의 선주였다고 한다. 월남하신 분들도 모두 고인이 되셨고, 내가



윤호순 여사

찾은 이모도 아마 세상을 뜨셨을지 모르겠다.

모친은 영등포 대림동 근처의 야산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파묘되고 간이 화장되어 뿌려졌다 하니 현재 모친의 흔적은 전무하다.

충남 서산군의 전후 복구사업에 선친이 군대 파견 책임자로 내려가 계시면서 민간업자들과 교류하던 중에 공주 사범학교 출신의 서산 토박이 여교사 윤 여사님을 만나서 처자식 있음을 속이고 사모관대 두르고 혼인을 하셨다. 청년 장교의 인기가 대단한 시절이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인접한 고향 당진에서 몇몇 친척들까지 혼례에 참석하였는데 이들 역시 선친이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선친이 경기도 가평으로 전근을 가면서 새로운 가족사가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양 여사도 세상 뜨고 윤 여사님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청년 장교는 가평초등학교 여교사 김 여사님과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드셨다.

1956년도에 소령 계급장의 장교정복을 입은 나의 아버지와 웨딩드레스, 면사포를 두른 김 여사님은 많은 하객 앞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부모 형제 하나도 없는 청년 장교에게는 전쟁의 후유증과 방종이, 책임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풀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어머니와 관련된 간략한 이력인데 내게는 아직도 차마 다 말 못하고 담아둔 사연이 너무 많다.



가족사진 1973년

내 부모님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별도로 책 한 권을 낼 만큼이나 넘치겠지만, 그들의 살아온 인생사를 함부로 내 멋대로 평가하고 묘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게 마련이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도 결국은 세월이 해결해 주더라.



처음 본 어머니

1956년이 되어 아버지 이의수 소령이 영등포 신길동 가마골의 큰 할머니 댁에 위탁 보호 중이던 나를 데리러 왔다. 그 시절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군대 담요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강원도 원주로 갔다. 선친께서는 그 당시 2군사령부에 근무 중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과 철교가 있는 독방아래 동네에 단칸방을 얻어서 생활하셨다.

그곳에서 어머니 김 여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버지 말씀에 울음으로 대신하였다.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김 여사님은 이모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도저히 엄마는 아니었기에.

어린 나는 잔병치레를 많이 했다. 허구한 날 설사와 기침을 해대어 병원에 출퇴근 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생모 사망 후 친척 집에 버려진 아이의 건강을 누가 돌봐 주었겠는가?

원주에서의 짧은 기억을 남기고 육군 병기학교로 전근가는 선친을 따라서 부산 동래 근처 반여동으로 이사했는데, 그해 말에 동생이 태어나고, 아버지의 주벽이 좀 심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자주 부부 싸움을 하셨다. 짧은 어머니 김 여사님께서는 종종 나와 동생을 데리고 가까운 바닷가로 나가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직산초등학교

직업군인들의 가족이 다 그랬듯이 우리 가족의 유랑도 계속되어, 이사 횟수를 따져보면 족히 서른 번 정도는 된다. 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학사(轉學史)를 우선 정리해 보려고 한다.

충남 성환(成歡)에 주둔했던 육군 053 병기탄약창(兵器彈藥廠) 부창장(副廠長)으로 전근 발령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성환 옆 동네 직산(稷山)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였고, 1958년 꽃피는 4월에 직산국민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가방끈을 잇게 되었는데 호적이 없어서 급조하다 보니 호적상의 내 생년월일은 13개월 늦게 신고되어 있다.

직산국민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계단을 내려오다가 초록색 운동화가 벗겨져서 울던 기억이 있고, 일곱 살 아이의 눈에는 참 높고 길게 보인 계단이, 훗날 다시 가보니 그냥 평범한 높이의 짧은 계단이었다.



2000년도에 추억 여행으로 다녀온 직산초등(국민)학교 계단

직산초등학교는 1907년 4월 24일 조선 말기 승지(정2품)를 지낸 민철
훈씨가 직산군 관아 객사를 빌어 사립경위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연혁
이 정리되어 있었으나 1895년 (개국 504년 7월 19일) 칙령 제145호로 소
학교령이 반포되고 1901년 2월 27일 관보(휘보)에 직산군 공립소학교 부
교원으로 노승욱씨가 임용된 사실로 보아 사립경위학교는 1901년 2월에
공립학교로 승격 인가된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4년간 존속해
온 사립 경위학교는 1897년 4월 24일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4월 24일 개교는 기록이나 연대 환산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교연대는 직산군 공립소학교 최초 교원이 임용된 해(1901년)에,
사립경위학교 존속기간 4년을 더한 1897년 4월 24일을 개교일로 정하
였다.

4월 입학

나는 1958년 4월 1일(화요일) 충남 천안군 소재 '직산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당시 신학년의 시작일이 4월 1일이었다. 지금과 같은 3월 신학년 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다.

직업군인이셨던 선친 덕분에 내가 거친 초등학교(국민학교)는 무려 일곱 곳이나 되었으니 내 기억 속의 초등학교는 없다.

단지 전학했던 순서대로 더듬어 보면 충남 직산초 입학- 충남 성환초- 대구 대봉초- 경기 지평초- 서울 우신초(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부산 해운대초- 서울 종로초등학교(종로구 수송동) 졸업의 순서만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이 집에서부터 나의 유년기 기억이 또렷하게 살아난다. 부모님과 나, 두 살 먹은 동생과 함께 세 살던 초가집이었다. 선친은 당시 육군 소령이셨는데 매일같이 술에 취해 운전병이 업고 들어왔다. 초라하게 변했지만 위치와 형태는 1958년도의 기억 그대로이며 우측에 일부 보이는 벽돌 건물은 그 당시에는 판자집 교회였는데 2000년도 추억의 테마 여행을 하며 찾아갔을 당년도 교회였다.

이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학년 시작일이 9월 1일, 취학 기준일이 8월 31일이었다. 1949년 말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 법에 따라 학년 시작일이 1950년에 6월 1일로, 1951년에 4월 1일로 당겨졌고, 1962년에는 다시 3월 1일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학년 시작일의 하루 전인 취학 기준일도 함께 당겨졌다.



1962년 3월 2일 字 동아일보, '금년도 신학년은 예년과 달리 한 달 당겨 시작되었다'

부산 1등도 서울서는 별거 아니더라

5.16 후에 부산에 있는 육군 051 탄약창장으로 발령받아 전근 가시는 선친 이의수 중령을 따라 한 집 건너 목욕탕이 있던 해운대 온천 동네의 관사로 이사하고, 그곳 해운대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는데, 선택받은 어린 이 몇 명과 함께 담임선생님 댁에서 죽집게 과외를 받으니까 졸지에 전교 1등이 되었다.

그 해에, 집에서 가까운 해운대극장에서 ‘사라호여 안녕’이라는 태풍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았다.

어머니 김 여사님의 동생 중에 나보다 다섯 살 많은, 공부를 무척 잘하는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유일한 외삼촌으로 남아 있다.

이 양반은 방학이 되면 누나가 있는 부산에 내려와서 놀다가고는 했으며, 한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해운대 해수욕장 촌동네에 나타나면 수재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묻는 등, 참 인기가 많았다.



종로초등학교 졸업앨범, 필자

나는 외삼촌을 인생 로망으로 삼아 5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단신 유학을 와서 종로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담임선생님께서 내가 전학온 첫날,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부산에서 전교 1등이 전학왔으니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소개해 주셨다. 나는 부산 사

투리도 단시간에 버리고 코피 흘리며 공부하여 첫 시험을 치렀는데, 10등 안에도 못 드는 결과를 맛보고는 부산 1등도 별거 아니라는 놀림을 받았다.

이 시절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갔는데 명문 5대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게 많은 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5대 공립 입학시험에 낙방하여 한경직 목사께서 설립한 사립 기독교 미션 학교인 대광중학에 후기로 합격하였고, 중학생 시절을 우울하고 고달프게 보냈다.

어느 날, 교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암동 방향을 바라보니 뿌연 최루탄 연기와 함께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한일협정 반대 데모였다.

중학교 동창과는 지금도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기억 속의 친구들은 1964년인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장지량 장군의 아들 장대환(매일경제 회장), 한국관광공사 김일환 회장 아들, 삼천리 연탄 아들(이름 미상) 정도이고 탤런트 최명길의 남편인 김한길 의원, 작고한 마광수 연세대 교수가 나보다 한 학년 아래 위였다.

태풍 사라

1959년 가을에 사라호로 명명된 무지막지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그 당시 선친께서는 대구 2군사령부에서 막 중령으로 진급하셨고 나는 대봉초등학교에 다녔다.

9월 어느 날 엄청난 비바람이 지나가고,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 낙

동강인지 금호강인지는 몰라도 강이 흐르는 뚝방으로 구경을 가보니 왕창 불어난 흙탕물과 각종 잡동사니가 둑 위로 범람할 정도의 위협을 주면서 쓸려 내려가는데 수많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이 쪼터미에 올라앉아 함께 떠내려가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인명 피해를 포함해 사라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했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비극을 다룬 영화 ‘사라 호여 안녕’이 제작 상영되었다.

서울 전차를 아시나요?

1964년 말에 선친께서 고참 중령으로 예편하셨다. 별을 달고 육군본부 병기감이 되는게 꿈이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부산에서 탄약창장으로 계실 때에, 5.16 세력들의 애국단체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애국자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단체로 하계 휴양을 왔다. 선친이 장병들을 동원, 진두지휘하에 백사장에 천막을 치고 애국하는 분들을 접대하였다. 그 당시 금기시하던 양담배와 양주는 물론, 도우미까지 조달하라는 압력이 있어서 예하 지휘관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게임비용인지 노름 밀천인지는 몰라도 거액의 자금 조달을 요구받아, 이런 자금을 마련하려면 부대를 통째로 팔아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 이상은 힘에 겨워 현금 상납을 포기하셨다고 한다. 이 사건이 껴썬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병기감은 고사하고 대령 진급을 앞두고 진급심사에서 탈락, 그 좋아하던 군복을 영원히 벗으셨다.

나는 중학생 시절, 약 2년 정도 전차를 타고 통학한 기억이 있다. 그 당시 1개월 학생용 전차 패스는 60원이었다.

전차 패스는 신분증과 유사하게 생겼으며 사용하는 달의 숫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며 하루에 수십 번을 갈아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도 이 패스만 있으면 교통비는 해결되는 시절이었다.

영등포 신길동 우신 초등학교 근처의 영단주택이라는 곳에 살던 나는 신길동 전차정류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그 전차를 타고 동대문까지, 그리고 청량리 가는 전차를 한 번 더 갈아타고 신설동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학교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집에서 학교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받아 들여졌으며 교통 혼잡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의 2시간 30분은 그 만큼 전차가 느림보 교통수단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전차는 고장이 심했었는데 문제는 앞에 가던 전차가 고장이 나면 뒤에 오던 전차도 앞의 전차가 고쳐질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등교 시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반면에 주머니에 비상금이나 버스회수권이 없는 이 불쌍한 소년을 비롯하여, 무기력한 노인들과 하루살이 근로자들은 그저 앞에 가던 전차가 수리될 때까지 전차 안에서 졸고 있는 수밖에.

그래서 중학교 졸업 때, 그 혼한 개근상도 못 받았다. 지각이 여러 번 쌓이면 결석으로 간주되는 것을 그때엔 잘 몰랐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일본 순사 모습과 비슷한 모자와 제복을 입은 전차 차장이 마치 두부장사처럼 종을 흔들며 ‘육신묘...’, ‘중계소 앞’, ‘명수대’하며 육성으로 정거장을 안내하던 그 시절을...

국립철도고등학교, 그리고 철도원

60년대는 군사 독재정권이 시작되었고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천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기능공이 되기를 바라셨다.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기술 배워서 독립해 떠나기를 은근히 강요하셨다. 고등학교도 5대 공립이나 대광고 본교 진학도 반대하고 공고 진학을 추천하였지만, 학원 한 번 다녀보지 못하고 5대 공립고인 S고에 알량한 기본 실력만 믿고 그냥 시험쳐서 떨어지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친께서 고등학교 특차 신입생 모집 신문광고를 들고 오셔서 강력하게 명령하셨다. 이 학교 아니면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이게 바로 ‘국립 철도고등학교’였으며 전국에서 모여든 가난하고 우울한, 두뇌는 그런대로 우수하다고 할만한 아이들에게 국비 장학생의 혜택을 제시하며 무려 10대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하였다.

재학 중에는 교복, 교과서, 학습자료는 물론 공짜이고 기차도 공짜요, 졸업과 동시에 철도공무원에 임용한다 하니 어렵게 살던 친구들에게는 참으로 매력있는 떡밥이었다.

예비소집일 날, 무료 교복과 교과서, 책가방을 받으러 가보니 참 기막힌게, 동급생이 될 녀석들의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내가 그동안 봐 온 시골 촌놈들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구질구질한 옷차림과 딱 어울리는 지방 사투리는 물론, 소음 공해 등 모든 것이 신세계를 보는 듯하였다.

더 가관인 것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1~2년 다니다가 다시 신입생으로 하향 지원해 온 친구들인데, 다니던 고등학교 교복을 그대로 입고 왔

다는 것이었다.

차림새는 비록 누추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매우 총명해 보였다.

아무튼, 철도고등학교의 입학은 내 인생의 커다란 변환점이 되어버렸으며 국제표준 철도 궤도의 폭이 1.435 미터라는 것을 배웠고, 짧게나마 철도원이라는 직업을 경험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고, 외고 등을 특목고로 부르는데 내 경험으로 보면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내가 졸업한 철도고등학교나 내 아들이 졸업한 예술고 등을 바로 특목고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립철도고등학교 학생모집 공고

철도원의 궤도 이탈

고교 동기들 중에는 철도원으로 시작하였지만, 30년 넘게 근속하여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명예퇴직한 친구들이 제법 된다. 현재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1967년도에 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철도공무원으로 6년간 의무 근무할 것이 골자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 장학금 전부는 물론 교복, 교재 등 그간 혜택받았던 것 일체를 변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몇 년 후에 추가된 조항은 필수 인원에 한정하여 철도청에서 지정하는 대학 및 학과에 합격하면 졸업 시까지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의무 근무 기간도 그만큼 연장한다는 사관학교식 코빼기였다.

고교 졸업 무렵이 되어 우리 동기들은 철도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보았는데, 소수 인원만 일반직으로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채용 시하게 하였다.

나는 나름대로 고민 끝에 기능직 채용시는 포기하고 대입 본고사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고교 입학 당시 제출한 서약서 때문에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즈음에 부모님과 내 거취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출을 감행하고, 동가숙 서가식하며 군대 지원 입대를 결심하였다. 고교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병 시험에 합격하니 호적상으로, 내 나이 만 17세였다.

제대 후, 형식적인 특채시험을 거쳐서 용산에 있는 서울 동차사무소의 검수원으로, 수색 기관차사무소 난방승무원으로 일하던 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나는 길지 않은 철도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 군대에서 전염된 방광결핵으로 혈뇨는 물론, 습관적인 요도 응고가 생겨 배뇨장애를 심하게 겪었던 나는 마지막에 입원하였던 철도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1년 만에 완쾌하였지만, 처음에는 한강성심병원에서도 오진을 하여 엉뚱한 치료를 받으며 고생을 많이 하였다.

투병 중에, 철도청 의무근무와 학비 상환문제도 면제받았기에 빨리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철도원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평생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선친께서는 철도원의 길을 포기한 나를 무척 안쓰럽게 여기셨으나 당장은 대책이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선친과 담판을 짓는 마음으로, 의대 진학을 하고 싶으니 2년간만 입시학원에 보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다.

학원 비용도 문제지만,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혹 합격하면 그 많은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의대를 보내실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철도고등학교 진학을 고집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백수진달 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에 있는 지인의 권유로 임상병리사가 되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학교를 수소문해 보니 서울소재 학교는 이미 입시가 끝났고, 지방소재 학교(현재는 4년제 학부과정 S대학교)는 지원이 가능하기에 독서실에 처박혀서 열흘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2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 졸업을 하였고 국가고시는 전국 차석합격의 영예를 얻었지만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 미국에 가서 주립면허시험을 보려던 계획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할 수 없이 개인병원에 취업하여 몇 년간 모든 병원업무를 익힐 기회가 있었다.

이런 생활에 젖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평생 돌팔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 북부, 군 사단이 있는 P군에서 내가 하던 일은 수많은 윤락여성과 유흥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 후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였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지나가는 여성들이 죄다 안면 있는 고객이었으니,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P군에 근무하던 1980년에 남쪽 지방에서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대사가건 발생하였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감히 그 사건을 ‘사태’, ‘혁명’, ‘운동’ 중 어느 것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무거운 표현이며 더 먼 미래에 역사가 답을 주리라 믿는다.

시골 동네에 있으면서 독신 장교, 교사, 시골 건달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내 또래의 젊은 업소 사장들과도 교류하고 지내는 어느 날부터 건달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석식 전화기로 교환을 경유하는 방식의 통화를 하면서까지 안부를 묻기에는 말 그대로 거시기한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오래 안 보이네?

그 친구들 죄다 삼청교육대로 잡혀갔다는 소문도 들렸다. 객지에서 볼 똥 떨어질까봐, 갑자기 병원 밖으로 나가기 싫어졌다.

시골 거시기한 개인병원에서는 성병검진 업무 말고도 쥔 종일 내기 바둑 두는 원장을 대신하여 가운 걸친 직원이 진료에 종사하기 일쑤였다.

단순 골절환자의 깁스는 물론이고 수많은 외출 장병을 대상으로 고래잡이까지 도맡게 된다. 고래잡이 포경(捕鯨)이 아니고 포경(包莖)수술에 참여한다는 얘기이다.

초짜 군의관들까지 포경(包莖)수술을 원하는 장병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한테 부탁하였고, 원장 선생은 일반의이지만 법의학 박사학위가 있어서 인근의 변사체 현장 부검을 도맡아 하는데 항상 나를 데리고 가서는 개복 후의 봉합은 나한테 시키고는 하였으니 정말로 돌팔이가 따로 없었다.

혹 보건증에 재검 도장 받아서 영업 손실이 있었던 업소 사장이 앙심을 품고 끈지를지도 모른다는 잡다한 생각도 떠나지 않고, 이런 흑역사가 꼬투리 잡혀 삼청교육대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내 인생 꼬일 것이 뻔하기에 더더욱 도망치고 싶었다.

더 넓은 세계가 그리워지고 막막하고 답답하던 판에 중동으로 돈 벌러 갈 기회가 찾아왔고 이때가 내 나이 31세, 한 참 젊은이였다.

리비아는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1981년도 봄에 리비아 보건 노동청 위촉에 의하여 나는 대우건설 의료진으로 선발되어 리비아(Libya)에 갔다. 김포공항에서 타이항공을 타고 방콕을 경유하여 로마까지 가고, 알이탈리아 항공으로 갈아타고 리비아 제2 도시 벵가지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48시간이 걸렸다. 이 여정은 경유지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비행기 타는 시간도 길어 참으로 지루하고 숨이 막힐 듯한 것이었다.

그 당시 대우건설은 벵가지 시내에 아파트, 병원, 학교, 도로 등 많은

공사현장이 있었고 사막 한가운데에도 여러 군데에 비행장과 도로건설이 한참이었는데 나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신규 수주받은 사막 현장에 선발대로 가게 되었다.

벵가지와 트리폴리를 동서로 잇는 국도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길고 지루하게 펼쳐지고 중간중간에 낙타들이 출현하기도 하여, 로드 킬(Road Kill)을 당한 낙타의 사체도 수없이 널려 있었다.

벵가지를 떠나서 트리폴리 방향으로 몇 시간을 가다 보면 중간쯤에 시르테(Sirte)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이곳에는 건설 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치 군대의 파견대 비슷한 휴게소 겸 숙소가 있다. 그곳에서 끼니



이집트 치과의사, 인도 약사와 함께



현지인 어린이들

도 때우고 하룻밤 신세를 진 후, 남쪽 내륙 방향으로 또 떠나가는데 주위는 온통 사막이었다. 날씨도 엄청 덥고 흙먼지 바람이 불어대는 별판을 대형 트럭을 타고 지나가는 여정이었으니 참으로 고난의 행군이 따로 없었다. 중간중간에 마을이 나오면 잠시 음료수 사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또 강행군하였다.

벵가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나는 알 주푸라(Al Jufra)의 주도(州都)인 훈(Houn)을 거쳐 또 사막을 질주하여 소크나(Sawknah)라고 하는 시골 동네를 뒤로하고 방향감각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DC-20이라고 적힌 조그만 표지판만 달랑 꽂혀 있는 캠프에 도착했는데 컨테이너 숙소 한 동과 천막으로 된 간이식당이 전부였다.

나는 이곳의 의무실장 겸 산업재해 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나를

포함 20명 정도의 선발대가 소크나(Sawknah)-샤리프(Ash Shwayrif) 간 238Km의 군용도로 건설현장인 DC-20 요원이 된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아무 차나 얻어 타고 서울 대전 거리 정도 되는 훈(Houn)으로 나가서 현지병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의무실 운영과 관련한 기자재 및 의약품 지원 요청 업무를 하며 병원뿐 아니라 보건소, 치과에 소속된 의료진과 얼굴 알리기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다.

한국 근로자도 리비아 정부에 의료보험을 들었기에 내가 인솔하여 현지병원 이용은 물론, 의약품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지 경찰서와 비행장 담당자를 만나서 중상 환자 발생 시 수도 트리폴리(Tripoli)의 종합병원으로 신속 후송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 수질오염이나 풍토 질환이 의심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의 책임공무원도 찾아가고, 전갈이나 맹독성 뱀 등에 물리게 될 경우,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독제 등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 너무 바쁜 일상의 연속이었다.

업무를 대충 마치면 전화국 앞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쓰디쓴 커피 한 잔 마시며, 대우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 차를 얻어 타고 현장 캠프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는 젊은 나이니까 잘 견디었던 것 같다. 일단 구급 약품만 얻어서 컨테이너 숙소 구석에 풀어놓고 혹 작업하다가 다치는 근로자가 있으면 1차 처치를 하고 좀 심한 상태이면 현지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출장 외진(外診) 형태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나의 주요 일과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속건물이 완성되었다. 숙소는 물론, 사무실, 식당, 창고, 정비소, 공무, 중기사무소, 연구실, 그리고 내 손으로 의무실 내부



푸조 504 앰블런스

시설도 만들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니까 구급차와 운전기사도 지원받아 환자 이송이나 대민업무도 한층 편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매일 매순간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잠재하기에 정신교육과 안전교육이 필수였고 그런 업무가 내 몫이었다.

이 현장은 약 3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공사가 피크로 진행될 때에는 근로자의 수가 내외국인 합쳐서 1,000명 정도 되었으니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환자도 많았으며 속칭 나이롱환자는 더 많았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 안전에 자칫 소홀하여 작업현장에서 다치는 경우도 자주 있고 환경적 요인인 열질환 환자도 거의 매일 발생하였다. 공상 환자는 반드시 지방노동청 분소에 보고하여야 현지병원에 입원 치

료가 가능하기에, 그 또한 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현지병원의 행정업무는 리비아 현지 공무원이 맡고 의료진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수단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북한 간호 인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마주친 적은 없다.

나는 여기서 만 2년을 근무하고 잠시 귀국하였다가 벵가지(Banghazi)에 있는 ‘가리우니스 이공대학’ 의무실에서 1년을 더 일했다.

내가 2년간 근무했던 DC-20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여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근로자 간의 폭력이 사망으로 이어져 소생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결국, 가해자는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지방검찰에서 조사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사건의 통역을 내가 맡아서 했지만, 판결에 큰 도움은 못 주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국내로 송환되어 과실치사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했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은 아스콘 운반 트럭기사였는데 초과 수당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루 만에 마무리 짓는 통상 ‘야리끼리’라고 하는 무리한 수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였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신의 국내 이송을 위한 서류 준비 등, 행정 업무를 현지병원과 관공서에서 마치고, 시신을 냉동차에 싣고 트리폴리(Tripoli) 국립병원 영안실로 옮겨 안치하게 된다. 시신의 비행기 탑승 등, 나머지 업무는 트리폴리(Tripoli) 건설 본부에서 처리해 주며 나는 다시 사막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심신이 녹초가 되지만 사막 한복판에 감춰 놓은 야자 대추를 발효시킨 막걸리 한 잔이 피로를 씻어 주고는 했다.

처음 리비아에 갔을 때,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석유 덕분에 부국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 차림새나 품성이 결코 잘 사는 나라의 국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같은 차종의 회색 반트럭(픽업트럭)이 한 대씩 있었는데 왜 한결같이 회색일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독재자의 대표 모델이 되어 버린 당시의 국가지도자 가다피 대령이, 회색을 좋아하여 전 가구에 똑같이 선물했다는 걸 알고 한참 웃었다.

그 당시에는 리비아가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모델이라고 하였으나 군인과 경찰이 지배하는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였다. 남한보다 북한과 먼저 수교하였고 북한은 군사고문단을 위시해서 많은 근로자와 기술 인력이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였



트리폴리 광장

다. 리비아 자국민의 인적 두뇌 자원이 빈약하여 공무원 외에는 모두 외국인의 손을 빌려야만 사회가 유지되는 듯 보였다. 세금도 없고 교육, 의료 등, 모든 복지가 무료이니 국민의 근로의식이나 서비스 정신이 형편 없었다.

35년도 넘는 기억인데, 지금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독재자의 종말은 리비아인은 물론, 지구상 독재자로 군림하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그래도 우리는 그네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에 작으나마 애국(?)의 밑거름이 되어 경제적 성취를 얼마만큼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통근버스 白技士님

리비아 DC-20 캠프에서 공사현장까지는 차량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각 공정에 소속된 인력은 버스로 출퇴근하며 일하였는데 버스기사 중에 백 모씨가 있었다. 이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외모는 해병대 헌병 출신답게 장신이며 늘씬하다. 자신은 술을 한 방울 못 마셔도 밀주 만들어서 남 주는 게 취미이다.

그리고 녀석도 좋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의무실이 제집인양 붙어살고는 했는데, 이 아저씨는 현재 내 처삼촌이 되셨다.

백 기사님의 소개로 그분의 조카딸인 지금의 아내와 1년간 펜팔을 하다가, 휴가차 잠시 귀국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인연이란 말이 매우 신비하게 느껴진다.

한 달간의 신혼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계신 집에 집사람을 남겨놓고 또

리비아에 가서 1년을 더 돈 버는 일에 종사하다가 1984년 봄에 완전히 귀국해 버렸다.

리비아 근무 3년 차에는 벵가지(Banghazi) 병원에 취업한 외국 의료진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벵가지에는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 의료진과 필리핀 의료진이 무척 많았다. 그들 중에 필리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 한 친구는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한 퇴역 장교인데 매우 친절하고 영어도 유창하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각자 귀국하면 서울과 마닐라에서 만나기로 기약하였고, 내가 마닐라에 있는 오캄포 의기술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리비아와 대우건설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결혼자금과 유학자금을 만들어 주었고 운전면허 취득과 연습의 기회도 주었으며 영어도 익히고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러서 리비아의 지도자 가다피도 죽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많이 늙어버리고 힘든 유랑의 세월을 보냈지만, 나는 지금도 그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다.

슈크란, 리비아 그리고 알라 갈립~Thanks Libya, God bless your land..

유학, 그리고 만학의 길

나는 처음 유학을 계획하면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일단은 내가 벌여 놓은 돈을 가지고 학업을 끝낼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애초에는 미국에 가서 의학기술분야 주립면허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였기에 토플도 준비하고 여기저기 갈 만한 학교를 수소문해 보던 중, 테네시 대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그 시절은 해외여행도 규제가 심하고 여권을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유학을 가려면 일단 토플 점수와 입학허가서가 필수였다. 언어 문제 등의 장벽이 있었지만 2년 정도 열심히 하여 대학원에서는 병원미생물학을 공부해 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비자도 한 번만에 받았다.

문제는 자금 부족이었다. 가족을 동반해도 생활 문제가 고민이 되고, 남겨놓고 혼자갈 생각을 하니 도무지 자신이 없어 차일피일 담금질을 하고 있던 차에 리비아에서 사귄 필리핀 의사 친구의 강력한 추천으로 미국이고 뭐고 포기하고 마닐라행으로 모든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가족을 동반해도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1985에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혁명이 불같이 일어나서 치안, 행정 등 현지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여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다음해인 1986년 봄에 처자식을 끌고 마닐라로 이주하였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자처해 가며 오캄포(Ocampo) 의학기술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루손(Luzon) 북쪽에 있는 Lyceum Northwestern 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1학년에 학사편입 하여, 졸업하고 귀국하는 데까지 5년 반이 걸렸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선 장모님이 매월 보내 주시는 200불과 하숙을 쳐서 받는 100불, 합쳐서 300불로 한 달을 살았다. 생활이 궁핍하여 아들에게 좋은 간식이나 먹거리를 못해주고 깨강정이나 만들어 먹었더니 허구한 날 소화가 덜 된

깨가 섞인 똥을 누었다. 나 역시도 공부할 분량이 엄청 많아지고 매일같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그곳 팡가시난 메디컬센터에서 출생하였다. 그래도 목적이 있었기에 모두 잘 견뎌주었고, 무사 귀국하여 4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치과의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애초 목표였던 병원미생물학 교수가 치과의사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경기도 소도시에 안착하여 치과위원을 개업하고 바빠 잘 지내던 어느 날, 종합병원 이사장으로 있던 R이라는 친구가 지역에서 체육관계 단체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나를 수석부회장 자리에 강제로 앉혀 놓고는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닌가. 뭘 도와줘? 돈 좀 쓰라는 얘기였다.

로타리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던 때이고 애들도 어려서 재정적 여유가 있던 시절이었다.

막상 벼슬은 맡았지만 체육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어울리는데 남들에게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돈이나 쓰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차에 R회장과 나는 대학원에 가서 체육관련 공부를 해 보자는데 쿵짝이 맞아 2000년 1학기에 올림픽 메달의 산실이었던 Y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R회장은 스포츠키획 전공, 나는 운동처방 전공을 하였으나 R 회장은 1년 만에 배울 것 없다고 때려치우고 나는 남아서 논문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친김에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2005년도에 학위를 받으니 내 나이 55세였다. 만학의 길을 걸어온 것이었다.



런던 템즈강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아내와 함께

나 자신이 이렇게 가방끈을 이어 오다 보니 들어간 비용도 적지 않고 육신도 고단했지만, 옆에서 싫은 소리 않고 힘이 되어 준 집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다 늙어서 고생스럽게 그까짓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할거냐고 물었다면 딱히 할 말도 없었고 그저 마음속으로 혼자만의 합리적 위안을 만들어 왔을 터이다.

그래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5년 경험하였으며, 첫 강사로 받아서는 아내 내복을 사주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가슴 아프게

청룡부대

이제, 시간을 좀 되돌려 본다.

나는 청룡 6진 23제대로 파월되어 2대대 7중대(광남성 남푸억 주둔) 2소대 소총수로 있었다. 70년도 말인지 71년도 1월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전날 밤 매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소대원 전체가 기수 뺏다를 맞고 너 나 할 것 없이 엉덩이가 피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본부에 남진 선배, 해병 204기가 공연 온다기에 구경 다녀왔다.

김남진 수병(그 당시는 해병대 병의 호칭을 수병이라 했음)의 귀국 신고 공연이었다.

우리 졸병들은 고달픈 월남에서의 군생활을 하면서, 가수 남진이 불러서 히트한 ‘가슴 아프게’를 개사하여 구슬프게 불러대고는 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해병대가 없었다면

쓰라린 배고픔만은 없었을 것음(1절)

—중략—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울고 있진 않았을 것을

-생략-

당신과 나 사이에 월남땅이 없었다면

쓰라린 뺏다만은 없었을 것을(2절)

-중략-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울고 있진 않았을 것을

-생략-



이명진, 태원, 진송남, 남진 등 청룡이 된 가수들

월남전 ‘김치 레이션’

내 기억 속의 C-레이션과 K-레이션을 얘기하기에 앞서 조선일보의 ‘만물상’ 칼럼에 소개되었던 기사를 인용해 본다.

6·25 직후, 굶주리던 아이들에게 미군 전투식량 ‘C-레이션’은 황홀하도록 경이로운 보물상자였다. 깡통 고기와 과일, 커피와 주스 가루, 견, 비스킷, 초콜릿에 담배까지 한없이 쏟아냈다. “1주일에 한 번쯤 학교 선생님이 ‘빈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도시락에 C-레이션 음식을 나눠줬다. 칠면조, 쇠고기, 콩, 스파게티···. 별의별 음식을 다 먹어봤다. 쓴 커피를 서로 먹으려고 다투었다.”

다음은 어느 해방둥이 정치인의 회고다.

▶베트남전에 나간 한국군에게 C-레이션은 악몽이었다. 폭폭 찢는 정글에서 허구한 날 밍밍하고 느끼한 C-레이션을 먹다 보니 진이 빠졌다. 파월 첫해가 다 가던 1965년 말, 월남 쌀 ‘안남미’와 된장이 보급돼 그나마 입맛을 달래게 됐다. 채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우리는 쌀밥에 된장국을 먹어야 전투를 할 수 있다”며 웨스트모얼랜드 미군 사령관을 설득했다고 한다.

▶병사들은 경기관총 LMG의 탄약통에 쌀을 안치고 나뭇가지나 C-레이션 종이상자를 때 밥을 지었다. 비 오는 날이면 가설형 지뢰 ‘크레모아’(클레이모어)에서 흰떡처럼 생긴 폭약을 떼내 땀감으로 썼다. 탄통 뚜껑을 밀착시키는 고무 ‘바깥’(패킹)을 떼지 않은 채, 밥을 하다 탄통이 터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느낄거리는 속을 시원히 가라앉힐 김치는 구경할 수 없었다.

▶베트남전 문서가 공개되면서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김치 친서’도 빛을 봤다. ‘김치만이라도 하루바삐 우리 군인들이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는

편지가 간절하다. 통조림 생산능력이 없던 그 시절, 정부는 ‘대한식품’에 김치 통조림을 만들게 했다. 하와이의 미군 군납 식품검사소에 보낸 시제품 깡통에 녹이 슬어 두 차례 퇴짜맞은 끝에 김치가 베트남에 상륙했다. 한국형 C-레이션, ‘K-레이션’의 출발이다.

▶‘김치 레이션’은 1970년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모독을 당했다. 사이밍턴 의원은 미국 정부의 한국군 복무수당 지급을 추궁하며 “한국군에게 썩은 채소를 먹이느라 국고를 낭비하느냐”고 공격했다. 통조림 기술이 시원찮아 시름하게 익어버리긴 했어도 그 김치 덕에 없던 힘 짜내던 우리 병사들이다. 박 대통령의 ‘김치 친서’는 국가원수로는 너무 절절한 호소여서 찐하기까지 하다. 군사(軍史)편찬연구소 최용호 연구원은 “김치 납품으로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벌여보겠다는 뜻도 있었다”고 말한다. 워부터 아래까지 온 나라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던 시절이었다.

오태진 수석논설위원 tjoh@chosun.com

입력 : 2005.08. 28 21:19 58' / 수정 : 2005.08.28 22:29 09'

C-레이션이 악몽이었다고?

베트남 전장에서의 C-레이션이 윗글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악몽으로 기억된다면 참 불공평하다. 나는 베트남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파병되었는데, 그 당시, 내 주위의 전우들은 작전지역에 투입되지 않으면 C-레이션을 먹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산 K-레이션조차도 작은 크기의 김치나 멸치 통조림 1개가 매 끼니 각 분대에 배급될 뿐, 나머지 중대 병사들에게는 드럼통과 비슷한 커다란 통에 K-레이션 통조림 서너 개 뜯어 넣고 소금만 섞어 끓인, 멸건 국과 훑훑 날아다니는 안남미 밥을 평상시의 식사로 배급받았다. 그것도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다.

C-레이션은 고사하고 K-레이션조차도 줄병에게는 정량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 나가서 먹는 C-레이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맛있었다. 젊은 병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맛있을 수밖에.

중대 방석(주둔지 캠프)에 헬기로 보급품이 도착하고,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본부 요원들은 보급창고에 쌓여 있는 C-레이션 박스를 등에 지고 위병초소로 날라야 한다. 대기하고 있는 반 트럭에 실어주면 본부 요원들의 임무는 끝난다.

요즘은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본부 선임하사(상사)가 현지인 브로커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여 자기도 조금 챙기고 윗선에 상납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두 불문율을 지킨다. 따지고 보면 불쌍한 줄병들의 입에 들어가야 할 C-레이션이 강탈당하는 것이다.

쥐꼬리 만한 생명수당을 몇 톨씩 각출하여 현지인 상점에서 사 먹는 C-레이션은 우리에게도 꿀맛 그대로였다. 강탈당한 먹을 권리를 돈 주고 찾아 먹은 셈이었다.

현지인의 상점에 가면 마치 군수품 시장을 방불케 한다. 없는 물건이



없다. 그런데 C-레이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K-레이션도 버젓이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데 누가 팔아먹었나?

호이안지역의 해병대원들은 그렇게 굶주리며 조국의 경제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MRE(Meals Ready to Eat 전투식량/즉석식)

요즈음은 C-레이션을 MRE라고 하더라.

수년 전, 송탄 K-55(Osan Air Base) 근처 상가에 우연히 들린 나는 그곳에서 MRE 1박스(12팩)를 사게 되었다. 유통기간이 2년 정도 지난 물건인데 진공포장이 워낙 잘 되어서 유통기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여 5만 원을 주고 1박스 사 들고 왔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가며 시식을 해 보았는데, 맛? 너무 짜다. 그리고 강하다.

옛날 남대문 양키 시장에서 사 먹었던, 또 월남에서 먹던 C-레이션은 이런 맛이 아니었다. 결국, 이것저것 뜯어만 보고 그냥 처박아 놔다가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1팩씩 나누어 주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병영 체험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으며 하루에 1팩만 먹으면 모를까.

敵들도 안 먹을 식량? 敵들도 탐내는 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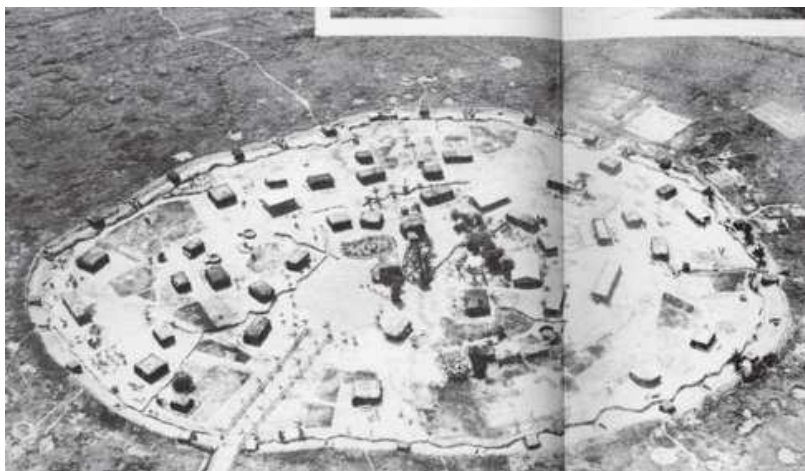
바로~ C-레이션이다.



본부요원들



개구쟁이 대원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부대 모습

월남의 달밤

가수 윤일로가 부른 ‘월남의 달밤’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먼 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 십자성이 어찌고 저찌구’로 가사가 되어있어서, 어떤 무식한 작사가께서 월남을 섬나라로 둔갑시켰을까 했는데...

훗날, ‘남 남쪽 먼 먼 나라 월남의 달밤’으로 개사했다고 한다.

같은 해외 파병이라도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생활은 분쟁지역에 파견된 UN 평화유지군과는 완전히 달랐다.

월남전에서 해병대가 주둔한 지역은 육군의 주둔지보다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보급이나 후생도 매우 열악하였다. 내가 있던 호이안(Hoian, 會安) 지역은 미 해병대의 희생이 너무 커서 한국 해병대에게 작전 임무를 대신 넘겨준 곳이고, 케산 지구 전투로 악명 높은 곳이다.

월남 파병 기간은 통상 1년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안 죽고 안 다치면 1년 근무 후, 대부분은 귀국하게 된다. 내가 소속되었던 전투 중대에서도 처음 6개월간은 매복과 작전을 수도 없이 나가지만 거기서 살아남으면 나머지 6개월은 작전이나 전투에 내보내지 않고 외곽 경비나 본부 요원으로 근무하므로 위험에서 조금 멀어진다.

그런데 외곽 경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 2교대로 야간 경계를 서는데, 독성이 강한 미제 모기약을 온몸에 발라가며 모기와 싸우면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쓰레기장 매립과 조성, 간이 화장실 구덩이 파기, 사계 청소 등, 사역에 동원되고는 하였다.

피곤이 축적되고 먹는 것도 부실하여 영양실조에 걸려 몸은 바짝 말라 가며 베트남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리니, 언제 깨질지는 몰라도 차라리 작전 나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들 하였다.

나도 6개월간의 야간 매복과 작전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함께 근무하던 전우들은 총탄이 오고 가는 교전이 아니라 베트남들이 몰래 설치해 놓은 부비트랩이나 각종 불발탄으로 만든 지뢰를 밟고 희생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아 다친 데 없이 나머지 반년은 재무병의 직책을 수행하며 돈도 제법 만지다가 귀국하였다.

군대 달러와 쿠폰

귀국하는 선임 재무병과 중대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500불이 모자라기에 기가 막혀 물어보니까, 이 인간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게 물려받았으니 알아서 해결하란다. 일하다 보면 자연히 방법을 알게 된다고.

병장 1년 급여가 500불이었으니 그때는 정말 큰돈이었다.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상업과목에서 어설프게 익혔던 추억의 주판을 가지고 장병들의 급여 청구 및 국내 송 적금 업무를 하는데, 습자지에 먹지 깔고 막대기 주워 만든 자(尺)로 줄 그어가며 공문을 작성하였으니 참으로 가난한 군대였다.

송 적금을 빼고 나면, 용돈보다도 못한 수준의 돈을 장병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달러 지폐가 아니고 한국정부에

서 파월장병 전용으로 한시적 발행한 조잡한 형태의 군불(軍弗)과 쿠폰이었다. 그래도 이 딱지 같은 물건이 부대 밖의 현지 상점에서도 화폐로 통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쿠폰이 없는 군불은 액면가의 50%밖에 시세를 쳐주지 않았으며, 둘 다 있어도 현지 상점이나 환전소 등에서의 거래는 10~20% 정도 할인(와리깁)하여야 가능했으니 채권 할인과 흡사한 형태였다.

그렇지만 이 쿠폰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였고 이 쿠폰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따라 재무병의 능력이 평가된다. 이 딱지들은 최종적으로 주월사령부에서 회수하고 한 번 더 와리깁(할인)하여 현지화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는 종종 공무를 핑계 삼아 여단본부 재무담당 선임하사와 수병을 찾아가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기에 내가 제출한 서류는 한 번도 반송되지 않아 능력을 인정받았고, 처음 전임자가 내게 전가한 500불도 어렵사리 해결하였다.

장교나 하사관들도 내게 담배나 림주 등 선물을 하며 쿠폰 부탁을 하니 줄지에 나 같은 졸병도 대우받는 처지로 바뀐 셈이었다.

이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휘관인 장교들 말고는, 부대에 파견 나와 있던 미 해병대 소속의 앵글리코(항공함포 연락중대) 대원들과 콩글리쉬와 필담을 섞어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졸병이 바로 나였기에 영어도 많이 배우고 부자 나라 군인들의 술도 자주 얻어 마시며 부대원들과 미군 간의 연락병 노릇도 하였다. 학창 시절에 억지 춘향으로 암기한 단어나 문장이 그렇게 써 먹힐 줄은 몰랐다.

이제, 월남전의 기억들도 조금씩 잊혀 가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

러 내 아들들도 해병대에 복무하는 사이에 극성스러운(?) 다른 부모들께서 ‘해병대 가족 모임 다음카페’를 만들고 온라인 교류는 물론 정기적인 등산, 식당 모임까지 그야말로 나를 포함하여 극성 부모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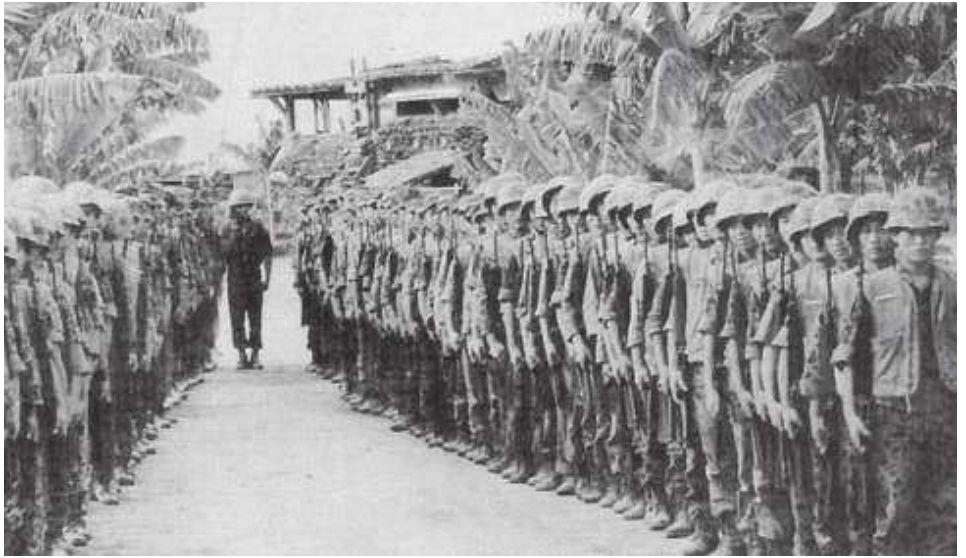
아이들이 모두 전역하고 십수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몇몇 가족은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거기서 만난 한 아버지는 말씀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나이 불문, 예의에 인색하여 다른 회원들과도 한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월남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게 하는 말이 형님은 철수 군대로 다녀오셨으니 위험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찌고 하며 평가절하 비아냥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나와는 피동감 이상 나이 차가 있는 이 아버지의 태도가 참 불쾌하여, 해병대 청룡부대 철수 이후에도 육군은 계속 파월되었고 1972년 4월의 육군 수도사단 맹호부대가 치른 치열한 ‘안케패스’ 전투에서도 수많은 아군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 함부로 떠들면 13개월이나 근무하고 돌아온 해병 장병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안케의 영웅들에게도 매우 불손한 언사가 되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부언하여, 월남전에 가보지도 못한 놈이, 겨우 위문편지나 쓰던 놈이 참 싸가지 없다고 한 번 더 경고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휴전되던 1953년 7월 27일에도 총성은 있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출전준비



아랫줄 가운데 - 7중대장 정국본 대위(작고 해사 20기), 훗날 해병대 제1 상륙사단장역임. 해병소장 예편.

해병 226기

사람들이 개병대(犬兵隊)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는 군 생활을 마쳤다. 비록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 가슴속의 모군(母軍) 해병대를 영원히 사랑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신현준 해군중령을 사령관으로 하여 해군에서 편입된 380명의 적은 병력과 일본군이 버리고 간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진해 덕산 비행장 격납고에서 창설되었다.

해병대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겪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용맹을 떨쳐 국민에게는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의 잘못되고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미움과 조롱도 많이 받았다.

통수권자의 독백 한마디로 해체와 재창설의 아픔을 겪으며 서자(庶子) 군대 취급을 받아온, 영욕(榮辱)을 간직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이다. 우리나라에 3대 극성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호남향우회와 고려대 동문회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를 일컫는 말이다.

우스개이지만 서울大보다 들어가기 힘든 국립대학이 바로 해병대(海兵大)라고 한다. 참고로 세계 최강인 미합중국 해병대의 마스코트는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이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진돗개’이다. 둘 다 용맹함을 대표하는 각국의 토종개(犬)다. 그러하기에 혹자가 개병대라고 비하해도 웃고 넘기지만, 강아지나 똥개(便犬)도 잘 못 건드리면 물리는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핏볼테리어나 진돗개는 정말 무섭지 않을까.

우리나라 남성들은 자기가 몸담았던 군대 이야기를 즐겨한다. 각 군의 특징을 개와 비교하며 열변을 토하다 보면 육군은 ‘땅개’ 해군은 ‘물

개' 공군은 '술개'라고 한다. 술개는 실제로는 개(犬)와는 무관한 조류이다. 그럼 해병대는 무슨 개일까? 비록 진돗개가 마스코트일지라도 이 경우에는 '미친개'라고 농담을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 신병 226기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보고자 한다. 나는 서빙고에 있던 병무청 서울지구 모병 창구를 통해서 지원하였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그들은 1970년 6월 4일, 경남 진해시 경화동 해병교육기지사령부 해병훈련소에서 해병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2005년 현재, 54~58세의 연령대를 이루고 있다.

1970년은 월남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병력이 많이 필요할 때여서, 한 기수를 1,000명 넘게 선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포항 상륙사단에 근무하던 거의 모든 226기 동기생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해병대에 가면, 월남 파병은 피할 수 없고 줄병이 월남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해병대를 가려고 아우성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동기는 인분(人糞)을 먹은 기억이 있는 기수이다. 요즈음이야 그런 야만적 행위를 하게 되면, 매스컴을 통하여 다 알려지게 되고, 지휘관을 비롯하여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인분을 먹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가 불문율이었다.

우리는 월남전에서 거의 매주마다 기수 뺏다를 겪었다. 터진 엉덩이로 인해 바로 앉지는 못해도 고국에서 온 위문공연단의 여자가수들과 어울려 트위스트를 추었으며, 밤에는 옆으로 누워서 정신없이 꿀잠을 잤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만든 벙커 안에는 수류탄과 실탄, 개인화기 등이 방탄복과 함께 벽에 걸려있지만, 그 누구도 인명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동기 해병대원들이 월남전, 특히 케산지구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상이군인이 되었다.

나는 1년이 조금 넘는 월남 생활을 하고 귀국하여, 또 1년이 넘게 연평도 지하벙커에서의 군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였다.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는 국민투표에서 언제나 집권당을 지지하는 군 부재자투표를 하고 전역하여야 했기에 강제로 군대 생활을 연장해야 했던 기수가 226기이다. 1970년 6월 4일, 한날한시에 입대하고서도 군번이 빠른 동기생보다 2~3개월 군생활을 더 한, 운 없는 동기생이 매우 많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도 아닌 해병들에게 것처럼 불공정한 인사명령을 하달한 국가는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그들은 말했다. 군대에서 줄 잘못 선 것이 죄라고. 그래서 226기의 해병대 복무기간은 31개월부터 34개월까지 다양하였고 나는 34개월을 복무하였다. 해병 동기의 결속력은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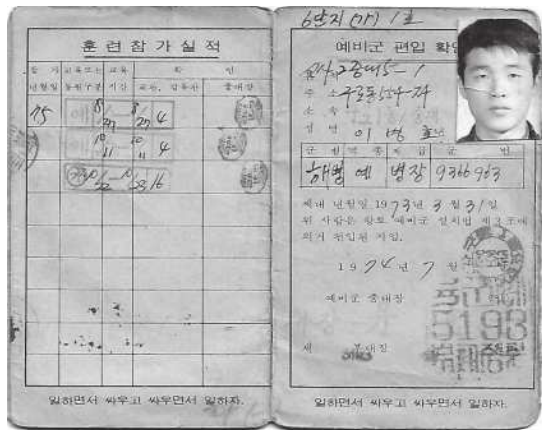
2000년도 초반인가, 충남 금산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였으며 30여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인데도 금방 알아보고는 즐거워하였다. 전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의 해병 226기가 포항사단에 모여 사열식에 참석하였다.

226기! 그들의 자녀 결혼식을 비롯해 애경사에는 전국의 해병 226기가 모인다. 그날의 주최자 해병은 참석한 동기생들 앞에서 ‘필승’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한다.

다른 기수에도 나름대로 특징과 전통이 있었지만 유신헌법 찬 반 국민투표에 동원되어 원치않는 군 생활을 더 하였던 필자의 일부 동기생을 참고로 하였음을 이해 바란다.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 습격을 위해 남파되었던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사건 당시에도 말년 병장들이 전역을 못 하고 강제로 하사로 진급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는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오산시 월남 참전 기념탑, 참전자 명패



향토예비군수첩,1974년도

동네 한 바퀴

나는 개원의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저 평범한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다. 시골스러운 소도시 치과의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고,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나 분쟁의 아픔도 겪지 않았으며, 단 하루의 결근도 없이 30년을 한 장소에서 무탈하게 진료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해 부르는 곳이 있으면 기꺼이 동참하였다.

로타리클럽과 생활체육회

나는 지역에 살면서 20여 년간을 봉사를 핑계 삼아, 본업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은 다 내려놓고 유유자적한다. 동네 한 바퀴 돌아 보면 손잡고 인사 나누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훨씬 젊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내가 거쳤던 바쁜 일들을 맡아 하고 있기에 그 작은 공동체의 바퀴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

영원한 열정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늘 푸른이처럼’ 살아왔다.

모친과 막내 동생이 각자 소속된 로타리클럽의 회장을 역임하며 왕성

한 활동을 하는데 동화되어, 치과를 개원한지 몇 년 지나서 나 역시 로타리클럽에 가입하였다. 지역에서는 그나마 인정받고 재력있는 유지들이 회원으로 있었다고는 하나 로타리클럽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전문가와 사업가들의 봉사 모임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적 이해관계로 들락날락하기 일쑤였고 봉사에 앞서 친목이 우선하는 분위기였기에 한 편 아쉬움이 남는다.



로타리 창시자, 폴 해리스 묘/ 시카고 남부 마운트호프



아들과 미시간 호수에서/시카고 로타리 국제대회 참석차



자매결연식, 로타리클럽 국제대회/1994 타이페이

그래도 십여 년 열심히 활동하면서 신경외과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입회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진료와 무의도 순회진료 등, 클럽이 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였고 대만 타이페이 국제대회와 미국 시카고 국제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내가 추천하여 입회시켰던 A교수는 4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저격수로 국정조사에서 유명해지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로타리클럽 의료봉사/소자복지관



로타리클럽 국제대회/2005년 시카고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생활체육회는 친구 R회장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망하는 바람에 몇 년간 회장 없는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분담금을 내다가 사퇴하였다.

2002년경에 모친이 신도회장을 맡았던 용인 대각사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A교수가 스님과 함께 지역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함께 참여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못하고, 호형호제하고 지내던 모 한의원 J원장을 물귀신처럼 끌고서야 자문위원직을 수락하였다. 결국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떠맡는 신세가 되었다.

A교수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을 앉혀 놓고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힘 받아서 경기도 전 지역을 싸뜩이한 열린우리당 후보로 거뜬히 당선되었다.

오산시음악협회

내가 처음 오산에 왔을때만 해도 이곳은 겨우 시로 승격한 인구 6만의 소도시에 불과했다. 이곳은 문화예술의 황무지였고 지원하는 민간단체조차 없었다. 여기서 또 A교수가 등장한다. 그 부인은 미국교포이며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인데 지역에서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리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예술 불모지인 오산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문가 비전문가 망라하고 친한 이들을 꼬드겨 음악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이 되어 수년간 벌기도 어려운 돈을 써야만 했다. 그래도 창립음악회, 신춘음악회, 피아노경진대회 등의 음악 행사를 치렀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A교수에게 끌려다닌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만 하여도 A교수가 신선하게 보였고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정치에는 관심 없는 평범한 대학교수라고 믿었기에, 몇 명이 의기투합하여 의형제의 도원결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내리 4선 의원이 된 A의원은 이제 그야말로 ‘넘은 먼 곳에’ 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의형제의 도원결의는 물거품이 되었다.

음악협회는 오산시산하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보조금도 받아 쓰면서 잘 나가고 있던 차에 ‘한국음악협회경기도지회(支會)’에서 자기네 소속 단체로 들어와야만 음악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정식으로 지부(支部) 인정을 한다며 정관과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음악 전공자만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젠장, 회장부터가 음대 출신이 아니거니와 이사들 태반이 비전공자인

의사, 교사, 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어찌겠는가. 한편 그 기회를 핑계 삼아 전공자 이사들에게 종잣돈과 함께 모든 걸 넘겨주고 새롭게 창립하도록 권유하고 해산하였다. 그 당시 이사 명단에는 정계 입문 전의 A의원과 오산시 민선 3선 시장을 지낸 K시장도 있었다. 결국, 음악협회와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는 정치지망생이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잠시 기웃거리는 곳이 아닌가 싶다.

2003년 봄에 개최한 신춘음악회 기사를 소개한다.

보도자료(4.28) 시장 동정/오산, 신춘음악회 성황리에 마쳐...

따사로운 햇살과 푸르름이 완연해져가는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지난 26일 오산시 청 대회의실에서는 박신원 오산시장을 비롯한 많은 음악애호가와 시민 등 550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음악협회(회장 이병호) 신춘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오산시음악협회가 지난해 12월 21일 창립되어 두 번째 갖는 것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훈훈한 마음과 잠시만이라도 여유를 갖는 햇살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음악회 선사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 신포니에타의 현악 4중주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테너 임권묵교수, 소프라노 오은영, 김행자교수, Two piano에 김용은·경현정씨가 장승호교수의 기타연주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인사의 말씀

오늘 베풀린 가운데 오산시 음악협회의 산은 음악과에 참관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늘 오산의 문화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박신원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오산시 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음악회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열입니다.
이런 열 세를 맞아 여러분의 눈과 귀를 활기롭게 해 주는 좋은 음악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의 세계로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음악자의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 음악협회
회장 이병호

금관6중주가 연주되었으며 오산시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발전위원회

오산에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계셨던 C회장님(작고)은 내가 나온 철도고등학교의 전신인 교통고등학교 1952년도 졸업생으로 나보다 18년 선배이셨는데, 이 분의 추천으로 화성경찰서 ‘치안행정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20년간 활동하였다. 위원회의 명칭도 몇 번 바뀌어 나중에는 경찰발전위원회가 되었다. 위원 중에는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와 약사도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남았던 분은 정형외과 K원장과 J한의원 원장이었다.

화성경찰서가 화성 동부 및 서부경찰서로 분리되었고 2018년 말에는 화성동부경찰서도 오산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로 다시 나뉘어졌다. 동탄신도시가 커지고 치안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모임 자체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옛사람들도 거의 떠나면서 진보성향의 젊은 위원들로 대체 되었으며, 나도 이 모임을 마지막으로 모든 동네 벼슬로부터 졸업(?)하였다.



경찰발전위원회 OB 멤버들

동문회장

Y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지도교수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이 와서 찾아갔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양반, 나한테 대학원 동문회장을 맡아 달란다. 각대학원별로 그간 없었던 동문회를 만들도록 윗선의 지시가 있었으며 체육과학대학원은 내가 낙점되었으니 맡아 달라고 하였다. 감히 지도교수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봉착했다. 사무국장으로는 현직 경찰관으로 경찰대학 무도 교관을 지내던 S교수를 소개해 주었다.



승마 국가대표 김형철 선수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낙마 사고로 사망),
씨름 천하장사 이태현, 필자

결국, 총장님 모시고 창립총회를 하였는데 먹고 사는 본업을 수행하다 보니 회장 대신에 사무국장께서 고생 많이 하였다.

초대회장은 연임하게 되어 4년 임기가 끝날 무렵에 책임자를 물색하여 윤영비와 함께 회장직을 넘겨주었는데 몇 년 후, 결국은 흐지부지 동문회가 깨져버렸다고 한다.

치과의사회장

90년대 초, 처음 오산에서 개원할 때 인구 6만 명의 이 소도시에 치과가 다섯 개 있었다.

2018년 현재 인구는 네 배 정도 증가한 23만 명인데, 비하여 치과는 80개에 육박하니 가히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는 일본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 지경이고 보니 선후배고 뭐고 모두가 경쟁자일 뿐, 오산시 치과계의 미래도 참으로 암울하다.

오산시 치과의사회가 없어졌단다. 수년간 경기도 전체에서 치과의사회가 없는 유일한 곳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회장을 3년간 맡았고 지금은 후임 회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니 참 다행이다.

포화 상태는 단지 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인들은 단편만 알 뿐, 그 속사정은 잘 모른다. 의사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걸 누가 믿을까.



공수래공수거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소도시 오산은 내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30여 년을 살고 있다. 원적지 충남 당진은 선친의 고향이지 내 고향은 아니며, 나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피난처였던 경북 구룡포에서 태어났을 뿐, 그곳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 일가친척이 조금 남아 있고 초등학교 친구라도 한 둘은 살고 있어야 하는 추억의 땅이 고향 아니던가?

선친께서는 고향이며 원적지였던,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113번지에서 서울로 전적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본적지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산75~8로 바뀌었으며, 서울서도 20년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 1988년에 오산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오산사람’ 되어버렸다.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인구 5만으로 다음해에 오산시로 승격하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23만 명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잘 지냈는데,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가버린 사람도 많지만 남은 사람도 제법 된다.

먼저 떠난 동창생 친구들

1967년 철도고 학생 모집공고에는 역무과 50명, 기관사과 50명, 공작과 30명, 보선과 20명으로 첫해에 150명을 선발했으며, 입학하자마자 업무, 운전, 기계, 토목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었고, 나는 기계과 한 반에서 같은 담임선생님과 3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였으니 참 정이 많이 들었다. 30명 중에서 7명이 작고하고 1명은 행방불명되어 22명 남아 있지만 그나마 서너 명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3년간 담임을 맡아주신 영원한 은사 김종억 선생님과의 졸업사진

위의 사진은 1969년 가을에 찍은 졸업사진인데 사진에 표시한 번호 순서대로 작고했다. 이것은 운명인지, 계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 조합을 망자들은 알고 있을까?

사인도 참 다양하다.

1-열차 통로에서 추락, 2-복상사(심장마비), 3-열차건널목 사고, 4-당뇨합병증, 5-위암, 6-돌연사(심장마비), 7-뇌출혈, 모두 절친이었는데..... 마지막 7번 친구는 공항출국장에서 부음을 받아 빈소에 못 가고 나머지 인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다 배웅하였다.

2번으로 표시된 친구의 사인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조금 민망하지만, 1976년 정도로 기억한다.

나 살던 집 1층에 가구점이 있었고 그곳에 인물은 그다지 출중하지 못해도 성격이 쾌활하고 뒤통도 좋고 결혼자금으로 거액의 통장도 가지고 있는 골드미스 여점원이 있었다.

이 여인은 그 가구점 사장의 조카였는데 그 사장과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게 되어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조카 부모께서 딸의 배필을 찾고 있으니 혹시 내 친구 중에 건실한 녀석 있으면 한 명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번 친구와 통장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는데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기에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켄장, 그 여인이 너무 못 생기고 가슴도 절벽이라서 자기 취향이 아니란다.

어찌하는가? 예쁘고 풍만한 여인을 찾는 수밖에.

몇 년 지나 이 친구에게 새 여인이 생겼다하여 친구 몇 명이 껌싸게 달려가 면접을 보았는데, 인물은 가구점 여인보다는 짝끔(?) 좋은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상스럽게 보였다. 그 앞에서 말도 못 하고, 함께 갔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면서 나한테 멍석깔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였다.

새 여인은 지방 철도청 구내 교환원으로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소개해 준 모양이었다. 이 친구, 결국에 이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주말부부가 되어 번갈아가며, 서울의 신랑 본가와 새댁의 지방(전북 정읍) 자취방을 오가면서 피 끓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경험하였다.

나는 2번 새신랑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정읍으로 내려갔다. 상가 분위기야 다 비슷하지만, 박수무당이 밤새 북 치고 장구 치고 대신 곡을 해 주는 통에 한숨도 못 자고, 미망인은 남편 시신이나 지킬 것이지 왜 친구들 화투치는 방에 와서 신세한탄을 하는지 기가 막혔다.

그리고 하는 말인즉 신랑이 외아들이다 보니 시부모께서 너무 손을 보고 싶어 하시기에 박수무당한테 택일 받아 목욕재계하고 바로 전날 거사를 치렀는데, 업무 끝났으면 자기 옆자리로 원대복귀해야할 신랑이 미동이 없고 숨도 쉬는 거 같지않아 어깨를 밀어보니 그냥 굴러떨어졌단다.

함께 화투를 치던 사람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왜 자초지종을 적나라하게 그것도 신랑 친구들 앞에서 묘사하는가 말이다. 그게 끝이다. 그래서 황망하게 가버린 2번 친구의 간접사인을 그리 밝혀둔 것이었다.

몇 달 후에 만난 망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망인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은 소식은 며느리가 뱃속 생명을 지우고 사라졌다하니, 남의 집 대나 이어주고, 그 대가로 한밑천 챙긴 후에 팔자를 고치러 갔으면 은인 소리나 들었을 텐데,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1973년 연말 무렵, 친구들 대부분은 군 복무 중이고 나는 이미 제대해서 철도원 생활을 하던 중에 1번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안치실에 가서 간단히 장례를 치르고 3번 친구랑 함께 시신을 리어카에 실었다. 추운 겨울에 난생처음 영구차 대신에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신이 들어있는 관(棺)을 밀고 끌고 가는데 기가 막혔다. 친구 몇이 화물열차에 관을 옮겨 싣고, 망자의 고향인 충북 청원군 미호면으로 내려가서 근처 악산(惡山)에 묻어주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1주일 내내 몸살을 앓았다.

죽발이라는 음식을 내게 처음 사주었던, 3년 내내 반장을 지낸 3번 친구는 1995년에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녀석의 빈소에는 어린 두 딸과 미망인이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1, 2, 3번 모두 외아들이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지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너무 일찍 가 버렸다.



친구들과 정기모임,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친구는 암 투병을 하다가 2019년 말에 별세하였다.
수년 전, 필자가 이 친구의 차남 결혼식 주례를 썼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

생활체육회를 함께 하던 R친구는 Y고와 S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 부인도 명문 여의대를 나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오산 유일의 종합병원 법인 이사장이었다. 이 친구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치판에 끼어들어 오물 다 뒤집어쓰고 돈도 많이 날리고 설상가상 내로남불 사고로 부인과 이혼, 우리 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 버렸다.

1급 정비공장을 잘 운영하던 만년 호탕하고 쾌남인 L친구는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렇게도 나를 좋아하던 H철강 H친구는 그놈의 대장 용종 몇 개 제거하겠다고 조용히 암병원에 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도 내 곁에는 아직도 죽고 못 사는 J원장은 물론, 영원불변 내 편임을 자처하는 K동생과 중국에서 온 의리남 사촌 동생도 남아 있으며 대학원장을 지내고 우리 큰아들 결혼식 주례도 봐주신 J형님도 계시고, 옆 동네 안성에 가면 50년 지기이며 나랑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모 학교법인 이사장 친구도 건강하게 남아있다. 참치와 민어의 해부학적 특성과 맛을 가르쳐준 먹거리의 사부 S사장도 변함없이 잘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의 임종을 함께 하고 의학적 ‘사망선고’를 맡아준 쌍둥이 아빠 C 박사도 꾸준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모두 다 이름을 열거하면 한 페이지가 넘을 것 같고 혹 명단에서 실수로 빠진 나의 그분들이 서운할지도 몰라 그만 적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신에 증정용 학위논문에 첨부하였던 ‘감사의 글’을 스크랩해서 올린다.

지천명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한 학문의 길이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받기까지에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그 결실을 보았으며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또한 감사와 더불어 그간 맺어진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로서 매사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인고의 생활을 보내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매사에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격려해주신 김정행 용인대학교 총장님의 은혜에 삼가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초 만학도의 스승이 되시어 마지막까지 동행하여주신 이근일 지도교수님과 조현철 교수님, 경북대학교의 이수천 교수님, 경주대학교의 김창선 교수님께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운동처방연구실의 임순길 교수님과 연구실 가족 모두에게도 그 끈끈했던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형이신 대한유도회 김진도 부회장님과 체육과학대학의 장국진 학장님, 동경 의대 산부인과교실 후꾸오까 교수님께 아우의 예를 갖추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림자가 되기를 마다않고 묵묵히 따라준 아내 백미숙과 두 아들 상윤, 현승군에게도 그간의 미안함을 감사의 말로 대신한다. 영면하고 계신 아버님과 빙부님, 영원한 후원자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신 모친 김보원각 보살님과 장모 김선비 여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아껴주었던 모든 지인들의 존함을 두서없이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감사의 글을 끝내려고 합니다.

조성구한의원 원장, 오산메디칼의원 최진구 박사, 김동규 실장, 대각사 정호스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인천일보 공병일 기자, MBC 홍하상 작가, 이종천 사장, 동생 창열, 종권, 선미, 병주, 병희, 동서 Ryan Driscoll과 처제 Miye Driscoll, 두 처남 백희명과 백명길, 박필교 여사님, 조카 성민, 성학, 베어리, Peter, 이신우패션의 이석주 사장님 내외분, 설미아버지 윤재범, 홍사선 여사님, 조병권 대학원장님, 김기홍 교수

님, 박순진 교수님, 윤익선 교수님, 김종달 교수님, 이한경 교수님, 엄주정 교수님, 홍장표 교수님, 이보선 교수님, 이동호 과장님, 이복구 주임, 기일회 동기생 여러분, 장운상, 한두석, 김재명, 이종무, 이택선, 임영창, 윤진국, 여운철, 김인기님, 용화회의 김형철 박사, 제주관광대학의 장예선 교수, 경운대학교 최동재, 권창기 교수, 경호학과 정성숙 교수, 이태현 천하장사, 최상현 사장님, 김문수 관장, 윤국철 선생, 한동진 선생, 의료법인 광진회의 나까무라 이사장, 그리고 오산중앙로타리클럽의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05년 6월

이병호 올림

그리고 타계한 가족들

이미 언급했지만, 선친은 양녕대군으로는 17대, 서산군으로는 16대손이 되며 1998년 12월 31일에 작고하시어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선영에 잠들어 계신다.

17대: 義秀 1927년 정묘 12월 14일생, 1998년 11월 13일(음)줄

18대: * 丙鎬 * 丙烈(일명 昌烈) * 丙權(일명 忠權) * 丙周 * 丙熙 * 善美

* 丙鎬-19대: **尙潤 ** 炫承(일명 炫基)

17대: 漢秀(한국전쟁 중, 중국군으로 참전 사망)

17대: 吉秀(중국 조선중학교 교감, 중국에서 작고)

18대: * 春元 * 春虎 * 春玉 * 春姬

4촌인 춘원(春元)은 내가 초청해서 10년 가까이 오산에 살고 있다.



선친,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선영



선친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중공(中共)에서 온 편지

선친께서는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함께 북만주로 이주하였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자 중국 목단강에서 의정부까지 도보로 단신 남하하여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였다. 한국전쟁시에는 소대장으로 참전하였고 영관장교로 예편한 후, 토건업으로 자수성가하였으며 1975년도에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在中國同胞 離散家族協會)’를 창립하고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선친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학동 6단지 가-1 한중빌딩 3층에 사무실을 두었다.



선친 이의수(1998년 12월 31일 별세), 사진 앞줄 오른쪽 의자에서 네 번째

이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추천으로 외무부 산하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5년 정도 중국과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였다.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만큼의 소액의 입회비를 국내 이산가족에게 부담시키는 것 외에는 정부 보조금 단 한 푼도 없이 이사장 개인의 사재로 상주 직원 1명의 월급을 주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호칭했고 외교 관계가 없던 적국이었다.

선친의 동생 이한수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고, 1980년에는 중국에 거주하던 가족 중에서 모친을 극적으로 국내 귀환

시켰으며 1985년, 민간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중국 동북 3성을 방문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중국과의 우편이나 전화 등의 통신 자체가 불가하여 일본 도쿄에 있던 ‘사할린귀환한인회 회장 박노학’을 통하여 우편물이 오가고 하였다. 우편물의 상호 발송이 용이해지고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전담하게 되자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在中國同胞 離散家族協會)’는 설립인가를 반납하고 사업을 종결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는 상호왕래가 가능해졌고, 이때부터는 중국 동포와의 관계에서 이산가족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아래 내용은 1975~76년,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在中國同胞 離散家族協會)’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이다.

망향 38년...중공서 보낸 유필

[중앙일보] 입력 1975.07.30 00:00 | 종합 7면 지면 보기

【담양=황영철 기자】38년 전에 고향을 떠나 중공 땅에 살았던 한국인 교포가 숨을 거두기 전, 고국을 그리며 쓴 유필이 고향인 전남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11반에 사는 동생 이동식씨(56)에게 지난 27일 우송돼왔다.

유필의 주인공은 중공 흑룡강성 아역현에서 살다 72년11월 56세를 일기로 이국 땅에서 타계한 이동춘씨. 발신인은 이씨의 맏아들 광호씨(27)로 수신인 동식씨의 친조카.

전남 담양군 수북면 출신 이동춘씨 아들이 우송(소식 모르던 동생 동식씨 뜯어보고 울음)조카가 쓴 편지엔 “아버지에 한글 배웠다”고향주소·부모형제 등 적어

이 유필의 우송이 늦어진 것은 중공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

문인데 지난 6월,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의회(이사장 이의수)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것.

동춘씨는 일제 시대인 1937년 21세 때 돈벌이를 한다며 고향을 떠나 함경북도 청진으로 갔으나 그 후 소식이 끊겨 일가친척들은 오랫동안 생사조차 알길없는 동춘씨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중공에서 온 편지를 의아한 표정으로 뜯어본 동식씨와 그의 아들 판용씨(37) 등 가족들은 뜻밖에도 날아든 형님 가족의 소식에 외락 울음을 터뜨렸다.

“숙부님 보십시오…”라고 시작된 광호씨의 편지에는 아버지 동춘씨가 폐암으로 숨지기 직전, 유필로 남겨놓은 고향집 주소와 부모·형제들의 이름·나이 등이 우편엽서의 두 배되는 크기의 흰 종이에 쓰여 유서처럼 동봉돼 있었다.

동춘씨는 고향에 편지와 함께 전해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고국 땅에 못 가는 게 못내 한스럽다며 눈을 감았다는 것.

광호씨는 한국인인 엄순자씨(27·경남출신)와 생부(하르빈)에서 결혼, 3칸 짜리 집에 살고 있으며 모두 생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급중학교와 아버지에게서 한글을 배웠다는 광호씨는 한글과 한문을 섞어 쓴 편지에서 아버지 형제의 소식이 몹시 궁금하고 고국에 무척 가고 싶다고 적었다. 뜻밖에도 친형의 친필을 받은 동식씨는 지난2월,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로부터 형이 흑룡강성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편지에 적힌 조카딸(동춘씨의 딸)의 이름인 명옥·명순이 자기 딸 이름과 같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중공서 온 편지 혈육 못 찾아 애가 탄다

[중앙일보] 입력 1976.10.26 00:00 | 종합 7면 지면보기

중공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족·연고자를 찾는 편지가 계속 날아오고 있으나(1년간 1만여 통) 수취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이들이 보낸 편지는 주소가 너무도 오래 전의 것이라 지명이 틀리거나 수취인인 가족·연고자 등이 주소를 옮긴 것이 대부분으로 수취인을 찾지 못하고 반송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이사장 이의수 · 서울 강남구 학동 6단지 가 1)는 26일 국제우체국과 협조, 체신부의 인가를 받아 중공에서 보낸 가족이나 연고자 등, 혈육을 찾아 달라는 편지가 수취인을 찾지못할 경우, 동 협회에서 이것을 모아 매월 1일과 15일 두번씩 발신인 · 수취인 등의 명단 · 주소를 공개, 이들의 가족 찾아 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년에 만여 통…반송되기도재중국동포이산가족협회사취인 찾기 캠페인매월 두 번 명단 공개 연고자 찾아오도록

재 중국동포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신을 띄워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연고자를 찾았으나 거의가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인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백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중국동포들은 모두 2차 대전을 전후한 30~40년 전에 조국을 떠난 사람들로, 그 당시의 주소로 가족이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대부분의 편지가 모두 반송되었던 것.

이들은 대부분이 당시 일제의 압제에 못이겨 이민이나 독립운동 · 장용 · 정신대 등의 이유로 조국을 떠나 중공에 정착한 사람들로 지금은 거의 만주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등 3개 성에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재중국동포들의 편지는 중공에서 직접 오는 것과 중공~일본을 거쳐 오는 두 가지로, 그동안에는 영남지방인 경남 · 북의 연고자를 찾는 것이 많았다는 것.

이번 조치로 재중국동포의 편지는 일단 수신인 주소로 배달했다가 수취인을 못 찾으면 모두 동 협회로 보내져 한달 기한으로 공개적인 수취인 확인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동 협회는 20일 1차로 수취인을 못 찾은 50통의 발신인과 수취인 명단, 주소 등을 국제우체국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들의 수취인 확인에 애태우고 있다.

중공에서 직접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74년 9월 정부의 「비적성공산국가와의 우편물 교류원칙」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이 조치에 따라 그전까지 우편물교환이 안 되던 소련 · 알바니아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체코 · 백러시아 · 동독 · 폴란드 · 우크라이나 · 헝가리 · 유고슬로비아 등 동

구 11개국과 중공·몽고·쿠바 등 14개 비 적성 공산국가와 우편물이 교환되고 이들 국가에 우편물을 보내려는 사람은 상대방 주소를 쓰고 국제우편으로 부치면 됐다. 그전까지는 이들 국가와는 일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오갔다. 중공에서 연고자를 찾는 사람과 연고자의 전 주소, 이름(괄호안)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혈육의 정

“오매에도 잊으랴 혈육의 정
유년 시절 이별하여 장년에 소식 알았으니
꿈에서나 만나련가 죽어서나 만나련가...”

28년간 이별하였다가 1973년에 소식을 알고, 조모님과 숙부님께서 선친에게 보낸 첫 편지의 구절이다.

선친께서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며 국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중공적십자사는 물론, 한국의 외무부, 중공 외교부 등에 귀환 요청 탄원서를 내고 8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소망을 이루셨다.

1980년 초에 중국의 조모님과 숙부님을 일본에서 상봉할 수 있는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선영의 추모비와 설단



경기도 광주시 충현동산 조모 묘지

그리고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숙부님은 1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시고 조모님은 국적을 회복하였다. 민간인 신분의 개인이 이루어 낸 중국동포 귀환 제1호였으며 적성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시도였고 인도적 차원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조모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 계셨다는 충현교회를 다니시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1993년 겨울에 별세하시고 현재 경기도 광주의 충현동산에 잠들어 계신다.

몇 년 후, 선친께서는 중국 동북 3성을 다녀오시면서 조부님의 시신이 멸실된 지역을 찾아가 그곳의 흙을 한 단지 가지고 오셨는데, 용인 선산에 가묘와 설단을 만드시고 그 흙 단지를 가묘에 묻으셨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남 명길이

선친께서 별세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장인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셨다. 평생 술을 안 드셨던 장인은 대신에 커피와 담배는 그야말로 마니아셨는데 폐암이라니, 아마도 담배가 주범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고희는 넘기시고 발병하였지만, 임종 시까지 고통을 겪으셨다. 마약 진통제와 산소 호흡기를 관리해 드려야 하였기에 내가 살던 곳과 멀지 않은 시골 동네에 집을 얻어 투병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통증이 좀 덜 하면 동네 수로에 나와 함께 낚시하러 다니시고는 했다.

2000년 6월 13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날이다. 바로 그 날 오후에 장인께서 별세하셨다. 남한강 공원 묘지에 모셨다가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다.

장인 국가유공자
故 白泰龍(본관 水原)



(예) 육군 대위/ 군번 207367
1946년 11월 국방경비대 6연대 입대
1950년 11월 소위 임관
평양성 입성 전투, 다부동 전투
충무무공훈장, 금성화랑훈장
은성화랑무공훈장 수훈
2000년 6월 13일(음 5월 12일) 별세



대전 현충원 장인 묘비



장모 김선비 여사

장모께서는 췌장암으로 투병 중,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별세하셨다. 인천 길병원에 서 확진을 받고 개복수술을 시도 하였으나 전이가 광범위하여 손도 못 대고 도로 봉합한 상태로 퇴원 하여 수개월, 우리 집에서 딸의 간병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장모님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의식도 없는 듯, 가래 끓는 소리가 너무 심하여 내 치과에 있는 가래흡입기를 가지러 온 사이에 운명하셨다. 대전 현충원에 장인과 함께 계신다.

처남 백명길은 다음 해인 2014년 추석을 지내고 직장인 인천공항 지상업무에 복귀하여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지내다가 9월 11일 목요일 정오 무렵에 영면하였고 현재 인천가족공원 만월당에 있다. 이제 처가의 직계가족은 손위 처남과 처제가 한 명씩 남아 있을 뿐이다.

옛날 분들은 이장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않는다. 잘 못 이장하면 자손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심한 훼손이나 주위 개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삼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같은 이야기이지만 산소에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청명이나 한식 같은 날을 골라서 이장이나 조경 공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경관이 아주 좋은 공원묘지에서



처남 백명길 생전에 함께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처남 백명길의 영면처

아무 문제없이 잘 계시는 장인을 망자의 두 아들이며 내게는 처남 되는 위인들께서 현충원으로 옮기겠다는. 이런 문제에 내가 무슨 발언권이 있겠는가?

2013년 6월 9일에 이장을 하였는데, 반년 후에 장모님 가시고 또 9개월 후에 처남도 따라갔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고 보니, 미신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는 걸 어찌합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장인은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공원묘지 일대에서 십 년이 넘게 군기대장을 하면서 맘껏 호령하던 분이었는데 현충원으로 이사를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육군대위는 계급도 아닌 것이 넓은 묘역 일대에 취침중인 분 중에는 장인보다 훨씬 높은 중령, 대령 그리고 별들이 부지기수여서, 장인도 이제는 윗분들 눈치 보느라 기가 꺾이셨을 것 같다. 그래도 남아있는 당신의 혈육들을 오래오래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후손들도 항상 장인 장모님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제 남은 가족들

선친께서는 타고난 근검절약 정신과 시대적 사업운에 힘입어 막대한 부를 이루셨고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다. 모친과 우리 형제들은 별 다툼 없이 법정 상속분을 물려받았고 나름대로 잘살고 있으니, 선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형제들과 조카 등, 친가의 직계가족은 현재 성년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이 걸어온 자취나 지금의 모습도 참 다양하다. 옛날 도라



대전현충원 장인 장모 합배

지 위스키 팔던 시골 다방과
꼭 닮은 분위기의 치과의원에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하는 종심(從心)의 치
과의사를 비롯해 빌딩푸어
라고는 하지만 흙수저를 자
칭하는 이들이 가장 부러워
한다는 영원한 건물주 겸 관
리인도 있고 대기업 전무를
거쳐 은퇴 후 사진작가로 또

다른 삶을 사는 이도 있다. 대학교수도, 사회사업가도 있다. 그리고 다
문화가족 기관의 최고책임자도 있고 음악, 미술 패션 분야의 전문가도
있으며 국제변호사도 있다. 외국 국적의 대학교수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몇 명은 더 합류할 것 같다.

매우 우애가 좋다고는 말 못 하지만 원수처럼 결별하고 살지도 않으니
모두가 조상님의 덕분인 듯하다.

어릴 적의 형제애도 나이 들어 각자의 가족이 생기면 퇴색하기에 그나
마 다툼없이 조용히 살면 다행이지 뭘 더 바라겠는가?

다른 집들도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한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은 물
론, 기업을 꾸려가는 이도 없다 보니 이 험한 세상, 비리에 연루되어 철
창에 갇혀본 경력자도 전혀 없다. 그리고 요절한 사람도 없다.

내 세대가 사라지면 그다음 세대들이 나보다도 훨씬 현명한 삶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집안에서 최고 어른은 당연히, 김경애 어머니이시며 다음 서열(?) 2위는 나다.

하지만 그 서열은 우습게도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여러 번 느꼈다. 그러나 내 나이 고희를 맞고 보니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가족사진. 정호스님(대각사 주지, 불교신문사 사장)은 가족의 예우로 모신다.

스크랩 - [불교신문이 만난 사람] 김경애 오산 대각사 신도회장

어현경 기자 승인 2020.04.01 10:21

“부처님 법 공부하고 그대로 회향하는 삶”

12연기 법문 듣고 불교 귀의
운명처럼 만난 대각사 포교원

30여년 신도회장으로 봉사해
부부가 대각사 부지 보시도

법화행자로 16년째 사경 수행
남편 비롯해 가족포교도 성공

부처님 가르침 배워서 행복해
많은 분들 사회봉사 실천하길



墨井 畫 〈탕빈 마음〉

늘 푸른이처럼 _



늘 온화한 웃음을 잃지 않는 김경애 오산 대각사 신도회장은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 곁을 지키며 오산불교를 지탱해 왔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불교신문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500만원을 쾌척했다. 신재호 기자

오산 대각사(주지 정호스님)는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사찰과 오산 시내에 있는 대각사 포교원을 통해 수행과 전법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 특히 대각사 포교원은 인재불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불교 불모지인 오산에서 지난 30여 년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신도회, 직장인 등, 계층법회를 열어 포교하고, 행복한 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을 보살펴 왔다.

김경애(85, 법명 보원각) 대각사 신도회장은 포교원 초기부터 신도회장을 맡아 사찰을 항상 지켜주고 지지해줬다. 관음보살처럼 인자한 미소가 인상적인 김경애 회장을 3월 23일 오산 대각사 포교원에서 만났다.

김 회장이 불자가 된 것은 부처님 12연기법 가르침 덕분이다. 사실 김 회장은 개신교 신자였다.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대구로 내려가서 지낼 때였다.

집안에 어려움도 있고,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남편 소속부대에 사고도 생기고 힘든 일이 많아 유독 힘들어하던 시절이었다. 목사나 권사를 만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답은 찾아지지 않으니 마음속에

는 답답함이 쌓여갔다.

“외할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어요. 해마다 백중때만 되면 저를 직접 찾아와서 기도비를 받아갔어요. 할머니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기독교 신자라고 기도 안하겠다고 할 수 없죠. 용돈삼아 드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해에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은가 하는 걱정이 들어 서울로 올라갔어요.”

마침 할머니는 법륜사 백중 법회에 참석 중이었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법륜사로 가니 법당은 이미 앉을 자리도 없었다. 마루 끝에 앉아 법문을 듣는데 12연기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날, 김 회장은 그토록 궁금했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법륜사에서 찾았다. 그리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봉은사나 도선사 등 법문을 잘한다고 소문난 절을 찾아다녔다. “법문을 듣기 위해 절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니 어느 날 가부(家夫)가 저를 따라나섰어요. 늘 어디를 그렇게 다니나 생각했나봐요. 절에 가서 법문을 들어본 후에는 신행 활동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날마다 환희심 넘쳐나는 시절, 영암스님 주석할 무렵 봉은사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능인선원 불교대학에 입학해 9기로 졸업하고 법사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경전반까지 연속이었다.

그 사이 오산으로 이사도 갔다. 작고한 부군이 오산에서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법사대학원만 졸업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오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며 경전 강의를 들었다.

“음식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 서울에 가니 가부가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제지를 했어요. 야속하고 힘들었죠. 그래도 강의날이 되니 다시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왔어요. 가부와의 약속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 버스를 환불하고 되돌아오는데 오산역 앞 상가 2층에 대각포교원을 발견했어요.”

불교공부를 그만뒀야 되나 상심했던 순간, 찾아낸 포교원은 기쁨 자체였다. <금강경> ‘17 구경무아분’까지 강의를 듣고 왔는데 대각사 강의 진도까지 딱 들어맞았다.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신도회장 소임까지 맡게 됐다. 신심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신행활동하는 모습을 눈여겨 본 스님이 중책을 맡긴 것이다. 처음엔 감당하기 어려워 고사했지만 스님 말씀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1년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가까워졌다.

김 회장은 인자한 미소 속에 엄격함과 철저함을 담고 있다. 스님과 함께 대각사 산하단체 공동대표를 맡아 인재불사를 후원했다. 또 매월 신도회 산하 16개조 간부회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 회의 자료도 직접 만들어 온다. “항상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도들과 자비로운 스님 덕분에 사찰이 순조롭게 전법 포교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오랫동안 신행활동을 하면서 김 회장은 “가피는 분명히 있다. 신심을 다해 한 가지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역전 상가 2층에서 지금 건물 지하로 이사를 와야 할 때도 있었어요. 좁은 포교원에서 힘들게 포교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보며 넓은 포교당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했어요.”

기도는 이뤄졌다. 밤마다 잠자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포교원을 도와달라고 기도가 통했다고 했다. “자수성가해서 한 번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는 가부였는데, 어느 날 달라졌어요. 포교원 개원 3주년을 맞아 예식장에서 암도스님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열었어요. 법회가 끝난 후, 정호스님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며 그동안 사놓은 산들을 둘러보더니, 평생 지은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각사 부지를 보시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관세음보살’이라며 가부에게 3배를 했어요.” 지금 용인 대각사 불사는 바로 김 회장 부군의 발심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한 달여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서 기도했다는 김 회장이 불교신문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모처럼 딸 이선미 씨와 함께 나왔다. 놀랍도록 닮은 모녀가 환하게 웃고 있다.

남편을 시작으로 가족포교에도 성공했다. 큰아들은 퇴직 후, 마애불 촬영을 시작하며 전시회까지 여는 등, 사진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법화행자가 됐다.

매주 목요일마다 포교원에서 법화경 강의를 듣고, 출근 전 사경을 한다. 손자, 손녀,



외손녀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기도 정진한다. 특히 영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외손녀는 현대 미술과 불화를 접목한 대각사 산신각 탕화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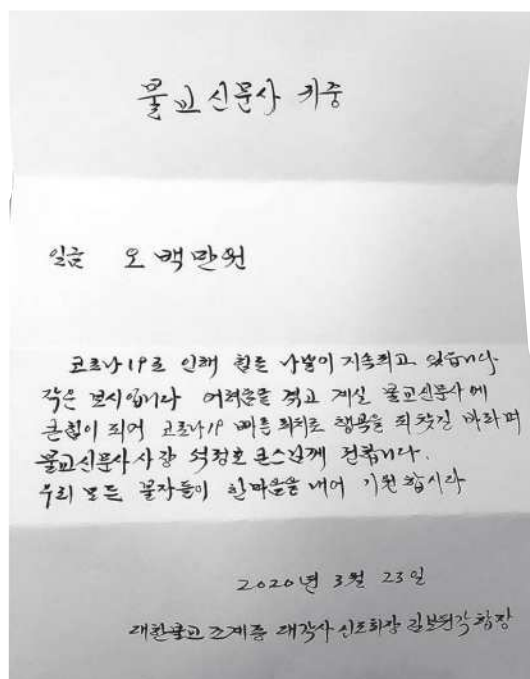
김 회장 역시 법화행자로 16년 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매일 오후 9시 사경을 한다. 칠순을 맞아 아르헨티나 여행을 갔을 때도 법화경과 함께였다. 좋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경전 100권을 사서 신도들에게 보시했다. 주지 정호스님에게 <법화경> 강의도 부탁했다. 덕분에 스님은 4년 째 신도들에게 법화경 강의 중이다.

“이제 귀가 좋지 않아 법문을 듣고 싶어도 잘 못 들어요. 앞에 앉아도 뒤에 앉아도 스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너무 속상해서 보청기 회사를 찾아갔어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싶는데 어찌하면 되냐고 하니 무선마이크를 하나 맞춰줬어요. 스님 전용 무선마이크인 셈이에요.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 세월 스님과 함께 해온 불교종흥과 인재불사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호스님은 행복한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시립지원아동센터, 건강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등 10개 단체를 운영하며 오산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가장 가까워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조력해온 김 회장 또한 후배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배운 그대로 사회에 봉사하고,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늘 얘기한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고 “포교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절에도 잘 오지 못한다는 김 회장은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한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만나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향해 온 그간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깨달았다”는 그는 “어려움도 따르지만, 많은 분들이 인과법을 제대로 깨달아 선업을 많이 쌓고 생활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불교신문에 발전기금과 함께 보내온 김경애 회장의 손편지.

오산=어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사진=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불교신문3571호/2020년4월4일자]

❁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나는 1970년 6월에 해병대 병 226기로 자원입대하여 진해훈련소 8주 신병 기초교육, 상남 보병훈련연대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고 포항 해병 제1 상륙사단 3연대 3대대 11중대로 팔려(?) 가서 정말 힘든 줄병 생활을 하였다. 나 자신의 훈련병 시절에는 부모 형제와 단 한 통의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고 월남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첫 면회를 다녀갔다.

월남전이 막바지였지만 나 역시 차출되었다. 월남주둔 해병 제2 여단(청룡부대) 2대대 7중대(베트남 꽝남성 호이안 근처 남푸억 주둔)에서 첨병 생활과 재무병을 거쳐 13개월 만에 귀국하였다. 그 당시는 통상 30개월이 넘는 군 복무기간이라서 귀국 후에도 연평도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 34개월을 채우고 집에 돌아왔다.



필자의 군시절

1971년 크리스마스

13개월간의 월남 파병생활을 마친 나는 1971년 12월 중순 경에 귀국을 하였다. 그리고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1주일 정도 대기하다가 휴가증을 받고,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서울 명동에 입성, 산도적 모습의 귀국 동기들과 명동 일대 술집을 죄다 섭렵한 후, 통금시

간이 다 되어 부모님이 이사하여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갔다.

아침에 깨어나서 TV를 켜니 대연각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중앙우체국에 근무하는 친구와 만날 약속이 되어있어서 저녁 무렵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시간까지도 화재현장 근처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아 남대문시장 못미처 택시에서 내려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니 방송국에서 화재현장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것 같았다. 내게 꾸준히 위문편지를 보내주었던 친구들과 함께 1971년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사진 속에 검은 테 안경을 끼고 계신 분은 그 당시 국회의장이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점선안 팔각모의 군인. 처음으로 뉴스화면에 잡힌, 바로 내 모습.

모두 대연각호텔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한뉴스 게재(掲載).

훈련병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남은 2006년에 1029기로 입대하여 포항 1사단에서 발간 포병으로, 차남은 2010년에 1112기 군악병으로 입대하여 해병대사령부 군악대에서 각각 전역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편지를 보냈던 흔적이 내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어서 옮겨 본다.

인터넷 편지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장문의 편지 형식을 취할 수 없기에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다 보니 어찌 보면 편지가 아니라 메모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속어들은 거의 수정하지 않았고 문법에도 안 맞는 문장이 대부분이기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새삼 새롭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던 마음의 표현인데 이 마음이 아들들에게는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큰아들에게

상윤아,

잘 지내고 있지?

이곳 우리 가족은 모두 잘 있단다.

오늘이나 내일쯤 네가 입고 간 사복 소포가 집으로 올거야.

엄마는 그거 보고 또 울겠지만, 아빠는 상윤이가 자랑스럽다.

해병대는 악이다, 그리고 짱이다.

너보다도 어린 나이에 해병대 생활을 겪은 아버지, 226기 선배 해병이
1029기 아들을 그리워하며 몇 자 적는다.

울 아들 핫팅!

아래의 글은 226기 동기생 홈페이지에 아버지가 올린 글이다.

—해병 226기 아버지와 1029기 아들—

6년간 미국서 공부하던 85년생 아들 녀석이 대학 2학년을 마치고
5월에 귀국하여, 한 달 동안 미친 놈처럼 놀더이다.

그리고는 6월에 해병대를 지원하여 당당하게 한 번에 합격하고 또
신나게 놀다가 친구들과 부모 형제 잠시 이별하여 지난 월요일(9월
4일), 포항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해병대 입대 권유는 고사하고 군대 얘기도
별로 안 했고 게다가 마눌님은 해병대 '해'자만 나와도 거부반응을 보
였지요. 하물며 몇몇 동기생들과의 정례모임도 마눌님 몰래 다니고
있답니다.

우리, 오, 육십 대 노털 해병의 기준으로 보면, 해병대가 널널하고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신세대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고달프고 힘든 군대 아닙니까?

많은 유학생이 군대 가는 거 피하려 하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해병대 간다니까 꼴통으로 취급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마눌님은 마음 아파하고 질질 눈물 짓지만 소생은 속으로...

“새애끼 ~.. ~ 뽕이 쳐봐라. 흐흐”

그러나 잘 참고 건강한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날 빨간 명찰의 1029기 쫄다구 아들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일요일 아침에 컴터(컴퓨터) 켜려보며 끄적거리려 봄.

필승!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상윤아.

어제 아빠 모임이 있어서 영등포에 갔다가 인천 집에 들러서 자고, 아침에 내려왔다.

네 소포 도착했더라.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어 올 아들 쪼매 고생하겠구나.

해병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조만간 엄마 편지, 친구들 편지 다 받아볼 수 있을 터이니 위안으로 삼고, 부자 해병으로 거듭나자.

현승이도 해병대 군악대 갈거니까. 우리 집 남자들은 모두 해병이다!

필승!!

훈련 1주 차가 지나가는구나.

어제 엄마가 지필 편지 보냈다고 하더라.

올 아들, 사막에 혼자 떨어뜨려도 살아 돌아올 의지의 해병대원이 되리라 믿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병대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다.

상윤이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모든 것 굳건하게 참으며 멋진 빨간 명찰을 오른쪽 가슴에 달 수 있을 거야.

36년 전 6월, 아빠가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M1 소총들고 연병장 돌던 생각이 나네.

그때는 그 총이 무지하게 무거웠는데, 해병 군기가 들어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가벼워지더구나.

오늘 오후에 인천 집에 올라간다.

아빠 생각으로는, 성민이가 5소대이니까 너랑 한 내무반에서 마주 보고 생활할 것 같은데, 아닌가? 만약 아빠 추측이 맞다면 너희 두 놈은 대단한 인연이야.

성민이도 잘 해내고 있겠지? 첫 월급 타면 고모부한테 소주 한 병 올려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서 패섬하다고 그래라. 해병대 아니고 타군 갔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패섬죄이니라. 대신 너보다 조금 더 기합 많이 받으라고 해.

You two guys, 건강 챙기고, 절대 다치지 말고, God bless my son.

아들 이상운 핫팅!!!

Old Marine, 226기 아버지가 토요일 오전에 아들을 그리워하며.



가운데 열, 중간 큰아들 상운

상윤아,

오늘부터 2주 차 훈련에 들어가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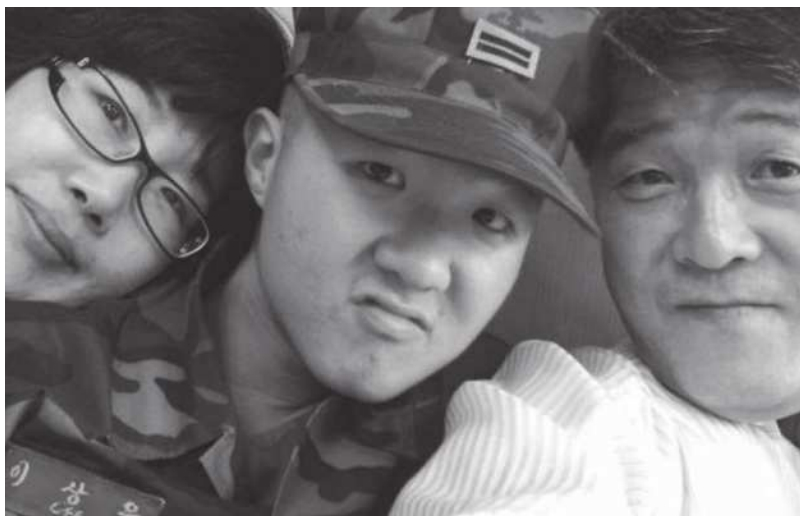
태풍 소식이 있던데 포항 쪽은 어떤지 모르겠다. 어제는 Y대학교 바다 사랑회(해병대 출신 교수, 교직원, 졸업생, 재학생 모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다녀왔다.

그 모임에서 아빠가 장교, 사병 포함해서 최고참이더라. 우리 아들 1029기 훈련 잘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왔다.

이번 주에는 소대별 사진을 볼 수 있겠네.

동기생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겠지? 멋진 해병대원으로 만들어질 아들 이상윤을 고대한다.

새벽이다. 아버지도 이제 자야지.



큰 아들, 첫 면회

상윤아,

어제 드디어, 너희들의 1기 후임인 1030기가 입소했다. 후임 기수가 생긴 거지.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낸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 사진 볼 수 있을 텐데, 군복 입은 상윤이 모습이 너무 그립구나.

아버지는 내일 강의 수업준비 중인데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잠시 편지 쓴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3, 4학년 아이들 보면 상윤이 생각이 더 나는 구만.

요즈음은 “나가자 해병대”라는 군가는 안 부르는 모양이야.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 때 없었던 “팔각모 사나이”가 자주 나오더라.

나가자 해병대는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충무공 높은 정신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대한해병대, 나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악! 악!’ 하며 부르던 거야.

아들을 해병대 보내놓고 나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아부지는, 하던 일 마저 해야지~ 해병대 시계는 실새 없이 움직인다. 필승!

아들아

가을하늘이 무척 높고 푸르구나. 이제 조금씩 해병대원이 되어가는 아들이 그리워 하루에도 수 십 번 인터넷 접속을 해 보지만, 예고~ 1029기 사진은 안 올라오네. 목 빠질 지경이다.

그래도 오늘은 기어코 사진을 올려 주리라 믿으며, 해병대 홈페이지 들

랄 날락 거린다.

아들, 훈련을 즐기시겠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라고 하는 해병대의 전통이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 가족들, 상윤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필승!

창밖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 바라보다가 문득 아들이 그리워지네..



큰아들, 말년 휴가

상윤아,

드디어 내일이면 수료하는구나. 그간 고생 많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병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편지가 훈련소로 보내는 마지막 인터넷 편지가 되리라 싶구나.

성민이에게도 축하한다고 전해 줘...

동갑내기 외사촌 형제가 외국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은 달라도 같은 대학을 다니다가 함께 귀국하여 한남한시에 해병대 1029기 동기생으로 입대하고 같은 포병 병과를 받고 영광의 이등병 계급장을 달게 되다니...

군대 안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너희들도 마음만 먹으면 뭘 짓을 못

했겠느냐... 그러나 이 아버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마음속으로 실천하고 싶었고 너희들도 자진해서 귀국하여 해병대에 지원 입대하였으니, 정말 장하다- 아들이 그리고 조카야!

이런 게 흔하지는 않은 인연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구나.

비록 세부 주특기야 다르고 2년간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 아버지의 예감으로는 두 녀석이 아마 휴가도 서로 맞추어 나올 거 같다.

포항이면 어떻고 김포면 언제? Penn State에서 Orwigsburg보다도 가까운 곳인데...

아들..

소대장님과 교관님들과의 인연도 오래 간직하려므나..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1029기 동기생들은 평생 가는 인연이다. 모두 축하한다.

조금 전에 226기 서울 동기회장이 전화왔다. 26일 날 정기총회하니까 참석해 달라고.

매월 26일이 되면 226기 동기생모임이 있지만, 아버지는 수원 모임에 참석하느라 서울모임은 잘 못 나간다.

동기회장은 월남전에서 오른팔 관통상을 입고 팔 하나를 잃었다. 그야말로 해병대에 청춘을 바친 거지. 올 아들 1029기로 내일 수료식 한다고 하니까 그분은 손자가 1024기라고 하는구나..

기가 막혀서... 아마 외손자이겠지? 20살에 딸을 낳고 그 딸이 스므살에 시집가서 아들을 보았다면 가능한 일이야. 허허..

상윤아...

우리 모두 너를 그리워하며 또 사랑한다.

해병대 만세! 아들 만세!!!
오산에서 아버지 보냄.....



작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꼴통 아들 이현승 보아라.

현승아, 네가 해병대에 간지도 1주일이 넘었구나. 이제 머리 뽕뽕 깎고 해병대원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겠지? 이곳, 아버지와 엄마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단다. 작은 아들 현승이를 군대에 보내놓고 맘이 짠~ 했는데 우리 꼴통이 악으로 깡으로 개기면 그깟 훈련쯤이야 별 것 아니겠지?

아버지와 형도 그리고 꼴통님도 우리 집 남정네는 모두 해병대라는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이제야 거의 정리가 되어간단다. 엄마가 고생이 많지 뭐.. 현승이 방도 다 정리가 되었다. 아들 놈 둘다 없는 큰 집에서 엄마랑 아버지만 있으니까 마치 절간에 온 것만 같구나. 해병대 홈페이지에 아직 1112기 교번이 안 나와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엔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제는 케빈이와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네 얘기로 꽃을 피웠단다. 비염은 어떤지 모르겠네.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현승아! 핫팅!! 또 편지 보내마. 필~승!!

2010년 3월 2일 11시 26분, 오산에서 아버지 보냄.

작은 아들 현승이 잘 있지? 네가 쓴 첫 군사우편도 받았고 옷 보따리 소포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1112기 소대별 사진이 해병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8소대 3분대의 올 아들 현승이의 군복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다, 그리고 오늘은 1113기가 입소하는 날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잘 있다니 아버지도 기분이 좋고 훈련소 소대장님과 교관님들께도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구나. 이곳은 아직도 아침에는 좀 춥다. 포항날씨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훈련받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승아, 해병대 밥맛이 어떠냐? 규칙적인 생활과 힘든 훈련을 하다 보면 밥맛이 꿀맛일거야.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해병대 동기(226기) 4명과 모임이 있단다. 아마도 한 잔 하겠지. 환갑이 된 나이에 군대 동기생들과 연락을 취하고 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나 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승이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으로 믿는다.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악으로 깡으로!

필승!!~ 2010년 3월 8일, 아버지가



해병대사령부 군악대, 클라리넷 부는 작은아들 현승

아들, 잘 있었는가? 오늘은 어제와 달리 날씨도 좋아지고, 훈련받을 만하겠네. 어제는 포항에도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눈 치우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어떠냐? 해병대 훈련이 받을만 하자??

군가도 많이 배웠느냐?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가, 나가자 해병대, 해병대 행진곡, 도솔산의 노래 등등 ㅋㅋ.

지금은 훈련소가 포항에 있지만, 옛날 아버지 때에는 진해에 있었던 다. 1970년 6월 4일에 입대해서 배운 첫 군가가 <나가자 해병대>였는데..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충무공 높은 정신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어찌구' 하는 거였느니라. 세월이 많이 바뀌어 즐겨 부르는 군가도 바뀐 모양이야. "훈병! 이현승! 지금부터 군가를 시작한다. 군가는 팔각모 사나이, 반동준비.. 하나 둘 군가 시~작!" ㅎㅎ 현승아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힘든 훈련들이 지금은 고달파도 강인한 정신과 몸을 만드는 길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안되면 될 때까지~ 오산에서 아버지

그리운 아들 현승아, 3월 5일 아침 10시이다. 이곳은 잔뜩 찌푸린 날씨가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구나. 포항의 번덕쟁이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네.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훈련받을 1112기 아들을 생각하니 흐뭇하기도 하며 한편 안쓰럽지만 해병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코스인걸 어찌겠니?

악으로, 깡으로.. 밀어 붙이는 거야 ㅋㅋ. 미국형과 성민이형에게도 현승이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도록 해병대 선임으로서 명령했다. 엄마도 손편지를 쓴 모양인데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며칠 걸릴 거다. 오늘 오후

썸 네가 입고 간 옷 보파리가 소포로 올테지. 상운이 때에도 아버지는 그 상자 바라보며 밤새 소주까며 아들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작은 아들은 더 그리울 거야.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수료하여 빨간 명찰 가슴에 달 날을 고대한다. 또 쓸게. 필~승~~

오산에서 아버지 보냄

현승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오늘 손편지 보낼 거야. 우체국에 가서 편지 봉투와 편지지 그리고 우표도 좀 보낼 터이니(봉투에 넣어서) 혹 시간나면 편지 쓰거라.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격 훈련을 하겠지. 현승이는 눈이 나빠서 특등 사수는 되기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해병대에서는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던 유사시에는 모두가 소총수로 편제가 짜이게 되지. 즉, 취사병이고 군악병이고 간에 필요하면 다 총 들고 나가서 일반 전투소대로 편성되는 거야.

너는 군에 가기 전에 해병대에 관해서 사전 지식을 알지 못했겠지만, 해병대에는 다른 군대와 달리 빛나는 전통과 자긍심이 전해 내려온단다. 아마 거기서도 소대장님이나 교관들께서 해병대 특유의 정신을 많이 강요할거다.

“이 새~끼들 봐라. 여기가 논산훈련소인 줄 아나? 기압이 빠졌군! 오와 열!! 쪼그려 뛰기 실시!”, “해병대 아무나 되나! 선착순 뛰어 갔!” 안봐도 눈에 선하다 이놈아. 현승아, 우리 모두 너를 그리워한다.

아버지 씀

2010년 3월 12일



작은 아들, 공수 기초 훈련

현승아,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그곳 포항의 날씨도 별로 좋지는 않다는구나. 주말에는 무얼 하며 지냈느냐? 종교 활동도 하고 과실자 특별훈련도 받았는지 궁금하다. 벌써 3주차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다. 1111기는 천자봉도 다녀오고 빨간 명찰도 달았던데 다음은 현승이의 1112기 차례이겠지?

어떠냐? 이제 슬슬 병아리 티를 벗고 군인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곳에서도 너희들의 훈련 사진이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기에 근황을 알 수 있단다. 현승아! 군대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서로 협조하면 다 지낼 만하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자라온 배경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 친구들이 해병대에 같은 날 입대하면서 동기생이 되는 거다. 물론 훈련이 끝

나면 서로 다른 예하 부대로 뿔뿔이 헤어지지만, 동기생은 평생 꼬리를 달고 쫓아다닌다. 아버지는 어제 집 앞의 세마대 산에 등산을 다녀왔단다.

야 이 꼴통아. 너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 핸드폰 며칠 빌려 간 사이에 전화 요금이 16만 원이 넘게 나온 거 기억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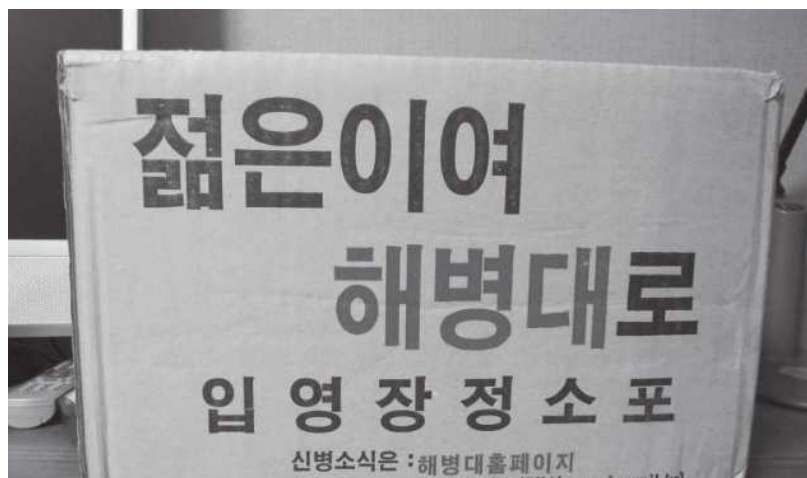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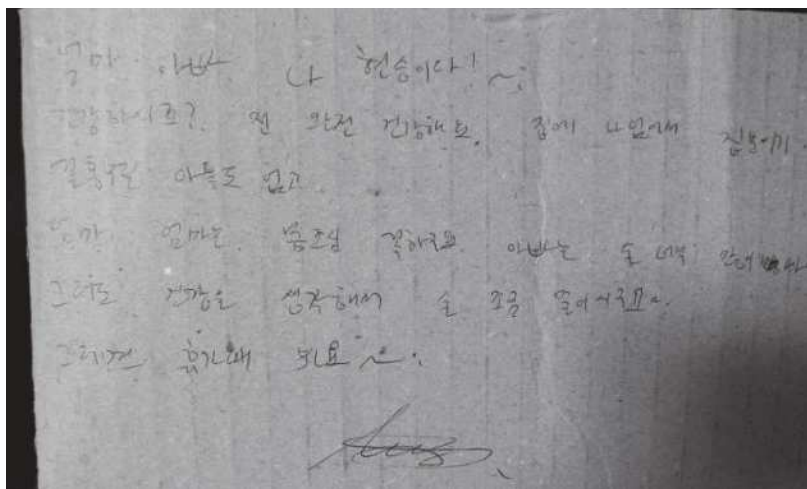
2010년 3월 15일



작은 아들, 첫 면회

3월 5일 받은 첫 군사우편...

손으로 쓴 건지 발가락으로 그린 건지 알 수가 없네. 군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사복을 넣어 집으로 보낼 상자에 즉석에서 써 보낸 편지.





앞줄 맨 왼쪽 안경잡이, 해병대 112기 이현승 훈련병



작은 아들, 해병대사령부 군악대원



늘 푸른이처럼 _

그리고 끄적거렸던 흔적...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해병 가족 모임 다음카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해병대 출신인 양재현 후배께서 카페지기로 있다. 자식들을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정보에 목말라하는 해병 가족들에게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의 공간이며 백과사전이다. 카페 개설일은 2006년 11월 15일이다.

아래 글은 10여 년 전, 처음 카페가 생겼을 때 올렸던 글이다.

목련чат집

어제 해병대 1사단 방공포대에 있는 1029기 아들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급히 ‘포항 종합장례식장’에 문상을 갈 일이 생겨 아들놈 면상이나 볼 겸해서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포항까지 가는데 무지하게 멀더군요.

밤 11시에 ‘청룡회관’에서 과메기 안주삼아 폭탄주 몇 잔 마시고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서문 면회소에 가서 1착으로 면회 신청하고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짚(Jeep)차가 오더니 반가운 아들을 내려놓고 가더군요.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시원창?)으로 가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다가, 건너편 극장에서 영화 ‘향수’를 봤는데 극장을 나오면서 향수에 취해 몽롱한 기분이더군요. 죽도시장에 영덕대게도 있는 것 같아, 마늘님과 저는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 잘난 아들께워서 삼겹살을 드

시고 싶다 하니, 포항까지 가서 그것도 서문 앞, 히쭈구리한 음식점에서 삼겹살 먹는 신세. 게다가 씹주 한잔도 못 걸쳤습네다.

마눌님이 밤눈이 어두워 운전을 못 하니까, 술 마시지 말고 운전이나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예고 내 신세여. 나는 밤눈이 좋으냐? 그놈의 운전 때문에 아들과 술 한 잔도 못 하는 불쌍한 아버지..

갈 데가 없어 서문 근처에 있는 찻집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부자 모자시간에 이바구를 했어요. 그 찻집 상호가 ‘목련찻집’입니다.

찻집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며 느낀 점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해병이 무지 많다는 것, 특히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맴돌면서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울 아들도 6시까지 복귀하면 되는데, 늙은 아버지와 오마니가 인천까지 운전하려면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꼬셔서, 몸에 좋지 않은 담배 서너 팩 안겨주고 사이 좋게 나누어 피우라고 지시한 후, 5시도 채 되기 전에 서문 위병소에 집어넣고 왔습니다.

오는 길도 역시 멀더군요. 다음번에는 기차를 타고 오자며 이 얘기 저 얘기 주절대고 운전을 하는데, 옆 좌석의 부인은 강(그냥) 정신없이 주무시더군요.

李海병과 白海병

李海병은 제 아들놈이고 白海병은 처남의 아들놈이니까 두 해병의 관계는 외사촌 간이지요. 놈과 님은 둘 다 85년생인데 李海병은 5월생, 白海병은 10월생이므로 사실 친구나 다름이 없건만.

작고하신 장인어른께서는 가족 간에도 위계질서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시어 애들이 어렸을 적부터 특별하게 교육시켜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도, 앉으나 서나 키가 훨씬 큰 白海병이 李海병을 형님으로 호칭합니다. 두 친구 모두 친사촌이 있음에도 그들보다 더 끈끈한 우애를 지금까지 잘 지니고 있습니다.

처제가 미국서 오래 살았는데, 이 여인깨옵서 두 조카인 李군과 白군을 데려가서 공부시키겠다고 해서 2000년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李군은 OK 되고 白군은 NO 되어 눈물을 머금고 李군 먼저 떠나서 외국인 학생 1명도 없는 펜실베이니아의 촌놈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고 白군은 1년 뒤에 쫓아갔습니다.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기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능력있는 처제님 덕분에 저비용 고효율의 유학을 할 수가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친구 함께, 꿈에도 그리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되었고 나란히,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할멈 같은 이모와 고모의 품을 떠나 두 놈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대학촌으로 자취방을 얻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군대 안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금년

5월 2학년을 마치고 두 녀석 모두 홀연히 귀국을 했습니다.

아들놈의 귀국 제1성이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해병대로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아들놈에게 해병대 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영원한 여친이 해병대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은 지나가는 해병대 친구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좋아해요.

작대기 한 개이면 일병이지 왜 작대기 두 개를 이병이 아닌 일병이라고 하냐는 등, 군대 계급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네요.

어쨌든, 아들놈은 그렇다치고 조카인 白군이 덩달아 해병대를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白군은 현병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허물며 해병대훈련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맹탕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해병대는 좀 짹시다’라는 애매모호한 상식뿐이었던 듯합니다.

白군의 해병대 지원동기는, 형님인 李군이 해병대에 가는데 자기가 육군 가면 李군이 자기를 물로 볼 것 같아서 함께 간다라는 웃기는 논리였습니다.

두 녀석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보다도 들어가기 힘든 해병대에 1029기 동기생이 되어 입학이 아닌 입대를 하였고, 둘 다 원하던 보병을 못 받고 포병이 되어 李해병은 1사단 발칸포 총잡이, 白군은 2사단 155밀리 사격지휘병으로 여~얼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모두 12월 중순, 비슷한 날에 4.5초 휴가온다는군요.

해병대 이등병, 李海병과 白海병 부라보!
해병대 만세!



白海병과 李海병. 조카님과 아들놈

❁ 부자유친을 꿈꾼다

우리는 착하게 살자

나는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떠드는 소위 친교의 밤과 음주가무에 익숙하지만, 밖에서는 가족, 특히 아들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잘못 떠들면 팔볼출 소리를 듣기도 하거니와 누가 아들에 관해서 물어보면 거의 짧게 답변하고 마는 성격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 바다낚시



父子 姑婦有親 가족사진



며느리 생일날

그래도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 그들이 살아온 과정과 일상을 진솔하게 돌아보고자 한다.

우리 집 두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로망인 속칭 SKY를 나오지 못했지만, 큰아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언론정보학과(영화영상 전공)를 졸업하고 투자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

은 아들은 클라리넷을 전공으로 하여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두각을 나타내더니만 ‘인 서울(in-seoul)’ 입성에 성공하여 K대 음대를 졸업했다.

나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명랑한 두 녀석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가끔은 잔소리 같은 조언을 한다.

이제 서른이 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애들 모친과 내 모습은 아무리 봐도 노화의 과정에 한참 진입하였음이 뚜렷하다.

큰며느리는 K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리치료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제목이 길고 어려워서 나는 기억을 못 한다. 큰아들이 직장인 밴드에서 기타 연주할 때 보컬을 하던 여인이 바로 우리 집 며느리다.

큰아들 내외는 둘 다 과묵하고 배려가 깊어서 주위의 지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데 반면, 나는 애들 모친으로부터 자주 힐난을 받는다. 무게 좀 잡고 쓸데없는 말 삼가라며.

그래도 꼭 할 말은 하고 정의롭게, 우리 모두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

두 녀석 모두 해병대를 전역하였기에 우리 집 남자들은 3부자 해병으로 통한다. 나는 그것이 항상 자랑스러워 아파트 현관문에 해병대 상징 로고를 강력본드로 붙여 놓았는데 우리 집 부인께서는 영 못 마땅해하지만 그래도 휴가나온 해병대 군인을 보는 눈은 다정스럽다.

군대 사병 계급이 일병-이병-삼병-사병인 줄로 알던 사람이 아들 군대 보내고서야 이병-일병-상병-병장을 겨우 암기하였으니, 병장 윗 계급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아마도 오병(하사)이라고 거침없이 답하였을 듯 싶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대위의 딸이 참 웃긴다.



父子有親 선산에서 조상참배



별난 병역이행 가족

2015년, 병무청(청장 박창명)에서 시행한 ‘병역 우리가 최고야! 별난 병역이행 가족’ 공모에 우리 가족이 선정되어 은상을 받았다.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이xx

주소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일반전화 (031)

휴대전화 (010)

E-mail

[별난 병역이행 신청서 내용]

신청인 본인 이xx는 1970년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13개월간 월남전에 참전(유공자 등록번호 21-1305571)후, 연평도에서 잔여기간을 복무하고 전역하였습니다. 본인의 장남 이상윤(해병대 1사단 복무)과 차남 이현승(해병대사령부 복무)도 대를 이어 해병대를 명예롭게 전역하였습니다.

특히 장남 이상윤과 조카 백성민(해병대 2사단 복무)은 동갑으로서 미국 유학중(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의기투합, 함께 귀국하여 해병대에 지원하고 같은 날 입대하여 통역병 교육도 함께 수료하였으며, 키리졸브와 같은 한미합동훈련에 차출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카 백성학(해병대 2사단 복무)도 형들의 뒤를 이어 해병대에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의 선친 고 이의수 중령(예)과 장인 고 백태룡 대위(예)는 두 분 모두 해방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고 백태룡 대위는 충무무공훈장(훈기번호 216,8705,63829)과 화랑무공훈장(보훈번호 160214)을 수훈하였으며

현재 대전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신청인 본인의 직계가족 3대는 병역의무자 11명중 10명이 현역 복무를 하였고 1명은 신체조건(고도 비만)으로 현역복무 불가 판정에 의한 공익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하여 애석하게도 병역이행 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었기에 여기 “별난 병역이행 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후대에 귀감으로 전하고자 신청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별난 병역이행 가족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일

신청인 성명 이xx (서명 또는 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해병대 4형제 백성민, 백성학, 이현승, 이상윤

〈화제의 인물〉 오산 출신이 오산에서 찍은 영화가 궁금하다(?)

큰아들이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전공을 살려서 독립영화를 1편 제작했다. 그야말로 시나리오부터 제작, 감독 및 편집 작업을 거의 혼자해치었는데 자금 사정으로 최종 마무리를 짓지 못하여 독립영화제에 출품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한 내용을 스크랩해서 소개한다.

독립장편영화 〈투명인간의 노래가 들리는가〉(가제) 찍은 이상윤 씨
윤명은 기자



오산역 앞에서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이상윤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 © 오산시민신문

때 아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부터 오산역에서는 자주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존에 시끌벅적하게 온갖 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통제하며 하는 촬영과는 다르게 적은 규모이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영화 촬영 현장은 '무슨 영화

늘 푸른이처럼 _

를 촬영하는 거지?’ 하고 오산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게다가 배우들은 모두 노숙자 차림이고, 누가 감독인지 스텝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게 거개가 젊은이들이라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였다.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낳게한 것은 노숙자의 삶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현실에서 낙오된 이들의 상실과 극복을 다룬 독립장편영화 <투명 인간의 노래가 들리는가?>(가제)이다. 이 영화는 오산 시민이면서 미국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상윤(26세) 씨가 연출을 맡아 감독으로 메기폰을 잡고 제작하는 작품이다. 지난 7월 9일에서야 막판 영화 촬영 작업을 마치고, 이제 막 후반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를 만나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처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만 해도 아직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앳된 모습의 청년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영화라는 작업은 통념적으로 나이가 다소 든 연륜이 묻어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 탓도 있지만, 영화가 다루려고 하는 노숙자의 문제가 만만치 않는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신문사를 방문해 인터뷰에 응한 그는 시종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친숙함을 주는 웃음을 지으며 영화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상윤 씨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까지 오산에서 다니다가 유학을 떠난 경우였고, 그의 부모님은 지금도 모두 오산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영상영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영화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시작해 7년 정도 공부했다고 한다. 방학 동안에는 한국에 돌아와 필드 경험을 쌓기도 했는데 1년 정도 드라마 현장 편집과 일본에서 카메라팀 스태프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영화의 스태프들은 그 때 만난 인연들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지와 영화에 대한 생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무언가를 그리는 것과 음악에 심취해 지냈어요, 그런 면이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3편의 단편과 2편의 중편을 만든 경험을 살려 첫 장편으로 이번 영화인 <투명인간(이하 생략)>의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그가 2007년 군

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 오산역에서 내렸을 때, 한 노숙자가 담뭇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렇게 첫 구상을 하고 내리 3년을 고민하다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7개월 동안 영화 제작 준비를 하고, 지난 6월부터 40여 일 동안 본격적으로 오산에서 영화촬영을 한 것이다. 그는 오산시를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어 영화의 장례식이나 병원 장면을 제외하고 90% 이상을 오산역에서 촬영하였다.

“군대에 첫 휴가를 나와 오산역에서 내렸는데, 노숙자 한 분이 다가와 담뭇불을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 노숙자를 보면서 문득 ‘내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태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일까?’ 하는 생각과 ‘아무것도 없이 상실한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그의 영화 <투명인간>의 대강 줄거리는 이렇다. ‘유학 중인 주인공 성민(조혜훈 분)이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귀국했으나, 아버지는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상태였다. 차압과 빚쟁이들, 사채업자까지 성민을 괴롭혀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되어 먼 친척을 찾아 나섰으나 설상가상으로 가방까지 잃어버리고, 역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한 노숙자가 다가와 담배를 빌린다.

그렇게 노숙자들과 만남이 시작되고, 역 앞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한다. 죽은 아들과 닮은 성민에게 호감을 갖는 노숙자 1(박태경 분),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성민과 대립하는 노숙자 2(송기찬 분), 회사에서 사고를 쳐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노숙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노숙자 3(임대혁 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숙자들을 배려하는 여자 조연(이지은 분)이 주인공과 함께 가족 아닌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된다. 다시 빚쟁이들에게 몰려 성민은 결국 다시 역 앞에서도 떠나게 되고, 그가 떠나면서 함께 지냈던 노숙자들도 재기를 위해 각자의 삶을 찾아 역을 떠난다.’

“영화 제목은 아직 가제 상태입니다만, 제목의 투명인간은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거나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노숙자들이 역을 떠나도 사람들은 그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일상의 삶을 계속하는데요,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처음에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노숙자들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 하는데, 도리어 나중에 그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죠. 영화를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세상은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현실은 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이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의도를 다분히 짙게 깔아놓았다.



이상윤 씨는 평소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의지가 박약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영화를 준비하고 찍으면서 노숙자 개개인이 그들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는 물질적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노숙자들을 자신과 다른 부류로 인식하기보다 동일한 인간으로 대했으면 한다고 했다.

오산 지역 시민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촬영 무사히 마쳐

사실 그의 영화가 어려운 제작 여건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은 무보수 자원 활동으로 참여해준 12명의 배우, 스태프, 그리고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아버지 이병호 이치과 원장, 어머니 백미숙 씨)과 오산 지역 시민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영화 출연 주요 배역 배우들은 모두 대학로 연극과 영화에 출연한 경험이 많은 분들로 인터넷 공모와 두 차례의 오디션을 거쳐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노숙자 역할을 맡은 배우 박태경 씨는 <떼루아>라는 드라마에서 병어리 주방장 역할로 우리에게 낯을 익힌 바 있다.

“배우들이 오산까지 와서 촬영하는 데 어려워했어요. 오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촬영하면서 나중에는 오산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웃음)

오산역 앞에서 촬영하면 비행기와 기차 소음 때문에 종종 촬영을 중단해야 하기도 했지만, 오산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했어요. 오산 시민들과 많이 친해지는 기회도 되었고요, 오산역, 편의점, 공영주차장, 식당, 청소부 아주머니 등등, 많은 오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촬영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영화 촬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소품도 빌려주시고, 배우의 연기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경험을 더해 조언도 해주시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 영화 작업이 이후에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앞으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으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촬영을 마친 장편독립영화 <투명인간>의 후반 작업은 대부분 이상운 씨가 8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진행할 예정이라 내년쯤에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평소 영화음악에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번 영화의 배경음악까지 직접 제작할 계획이라서 후반작업을 다소 길어질 듯하고, 완성된 영화는 미국과 한국의 독립영화제에 각각 출품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독립영화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영화, 감독의 메시지가 좌우되는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독립영화에 대한 의미가 너무 진지한 사회적 이슈와 편중된 주제를 다루는 본래와 다른 의미로 알려져 있다는 말과 함께 한국 독립영화가 너무 영화 공식

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며, 법칙을 깨는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제가 좋아하고 텍스트로 삼는 독립영화는 〈웰컴투 센트럴파크(Welcome to Central Park)〉인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대중이 알아주는 것이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꼭 독립영화만을 고집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영화계에 진출하면 일반적인 영화 공식을 깨뜨리는 영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타고난 낙천성으로 휴먼드라마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한 이야기’를 찍고 싶다는 그, 배우를 볼 때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는 느낌을 주는 배우를 좋아한다면서 톰 행크스와 하정우를 좋아하는 배우로 꼽았다.

존경하는 감독으로는 팀 버튼 감독과 박찬욱 감독을 들었는데, 그 자신은 할 수 없는 느낌 부분을 잡아내어 영화를 만드는 두 감독에 대한 선망감 때문에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화 공부가 끝나면 한국에서 활동을 할 예정인 예비감독 이상윤 씨, 좋은 영화를 만들면서도 대중들이 공감하는 상업성 있는 영화로 돈까지 벌고 싶다는 당연하지만 아무진 욕심을 가졌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전락한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다가 마침내 자신을 곧추세워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산역 앞을 떠났듯이, 오산 출신 청년 이상윤이 영화를 화두로 삼고 사람과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감독 이상윤으로 거듭 진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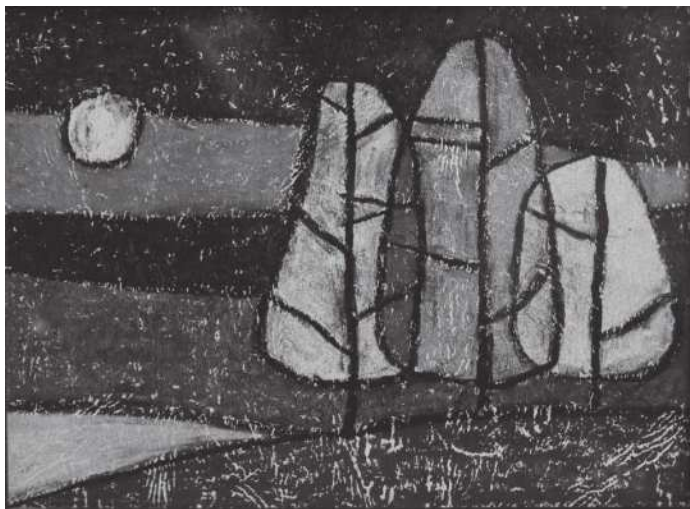


이상윤(26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영상영화학과 4학년 재학 중. 오산에 사는 아버지 이병호(이치과 원장)와 어머니 백미숙 씨의 2남 중 장남. 오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하고, 한국에서 해병대에 입대해 군 생활을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영화를 전공으로 하고 음악을 부전공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는 앞 길이 창창한 건강한 영화학도이다.

최종편집: 오산시민신문

큰아들은 기회가 되면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모두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墨井 畫 〈가을〉

늘 푸른이처럼 _

어버이날의 소회(所懷), 차남 만세!

불혹에 접어들어 작은 아들을 보았는데 그 아들 녀석이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되었다.

우리 부부와 친척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아는 지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집 작은 아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폭소를 짓게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나름대로 힘든 세월을 겪었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언어표현능력과 이해력이 뒤떨어져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아이들은 통상 입학 전부터 한글 받아쓰기와 읽기, 쉬운 산수 문제는 깨우치고 1학년이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입학했으며, 우리 부부는 그 아들이 혼자서 학교에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 받아쓰기가 옛날과는 너무 달라져서, 단어가 아닌 문장 받아쓰기로 변해 있었으니, 그나마 죽도록 단어(어휘)공부만 시킨 결과가 시험만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니 주위의 또래들이 얼마나 놀려했겠는가? 그러함에도 그 놀림에 대응할 수 있는 표현능력이 떨어져 결국은 주먹이 우선하게 되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죄다 우리 집 둘째 아들의 주먹세례를 받고 코피를 흘리고, 눈덩이 뱀뱀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쯤되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 및 항의방문을 거의 매일 겪게 되었다. 결국은 담임선생님의 충정어린 근심과 권유를 받고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인접한 다른 시로 이사하면서 전학을 시켰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필자는 어떻게든 전학을 피하려는 마음에 아들 녀석이 다니던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도 충실하게 (병원 문을 닫고) 봉사하였으며, 높은 자리에 계시던 선생님과 그 가족을 위한 무료 의치사업도 시행하였건만 어쩔 수 없이 권고전학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1학년 어린이의 눈에는 그 전의 학교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었을 것이다. 전학한 학교에서도 우리 차남은 용맹을 떨쳤다. 반면에 학업 성취도는 점차 좋아지고 학교생활도 적응되어 갔다.

‘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작은 아들놈은 엄마가 그렇게도 힘들게 교육한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선생님, 똥 싸고 올게요”를 외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마쳤으니 그동안 이 아들의 답임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특히 젊은 여선생님들께 아들이 내뱉은 언어폭력 “똥 싸고 올게요”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

우리 부부라고하여 아들 녀석의 학업과 인성계발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하나 열거하면 치사하고 기가 막혀 활자화하고 싶지도 않다.(돈, 시간, 방법, 정성 모두 포함하여)

처음에는 그저 학교만 다녀주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될 더 바랄까 했지만, 부모의 바람은 시종 일관되지 못하고 조금씩 상향조정되는 듯하다.

다른 애들도 그렇겠지만, 공부와는 별개로 컴퓨터게임에는 기가 막힐 정도의 집중력과 즐거움을 보였다. 중간에 차단하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표정을 보면 고시공부하는 젊은이의 결연한 자세와 다름 없었다.

이 아들은 예습이나 복습은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숙제)의 개념이 전혀 없다. 방학에 실컷 놓고 개학이 가까워지면 과제물 제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진 순전히 우리 부부의 몫이었다.

아들 녀석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량이어서 오십 대에 접어든 아버지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들의 숙제를 위해 공동 작업에 참여할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담임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우연히 술 한잔하는 기회도 생겼다.

이 아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선생님께 무슨 부탁을 하였을까? 시골 학교에서 이왕 1등 못할 거면 그게 그거니까 방과 후 수업이나 숙제 같은 스트레스를 내 아들에게는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통상 부모들은 아이들의 선생님들과 면담을 할 때, 공부 잘 할 수 있게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 집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상식 밖의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우리집 작은아들은 오늘날까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냥 착하다고 해야 할지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사춘기가 된 녀석이 이성에도 전혀 관심없고 경제 개념도 약한 편이다.

용돈은 허구한 날, 방바닥이나 책상 위에 양말과 함께 굴러다닌다. 돼지저금통도 집에 놀러오는 가끔은 불량(?) 친구들에 의하여 뜯어지고 탈취당하지만 진작 본인은 무덤덤하게 생각한다.

몇 년 전에는 미국가서 공부하는 형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니러 왔다. 공항에서 형을 만나 그 손에 뭔가를 슬쩍 쥐여 주었는데, 돼지저금통을 뜯어 그간 모은 돈을 죄다 자기 형에게 용돈으로 상납한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침소에 들 생각도 않고, 이 위인이 현관에서 리코더를 분적이 있었다. 청승맞지만 제법 잘 부는 거 같아서 다음날 바로 클라리넷을 사서 가르쳤는데,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내년에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특기가 되어버렸다.

금년 어버이날, 아들의 모친 되는 사람이 아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만 사서 달아 달라고 그 전날부터 애걸해도, 아들이나 모친이나 둘 다 고집이 대단하다. 결국 우리 집 차남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고, 아버지가 몰래 꺾어준 들꽃 한 송이를 아버지의 각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면쩍게 엄마에게 드렸다.

우리 부부는 이 아들이 어색해하는 행동의 내면을 잘 알고 있다.

내년 어버이날에는 기필코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둘째 아들의 손을 빌려 달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5월 11일



협연, 영산아트홀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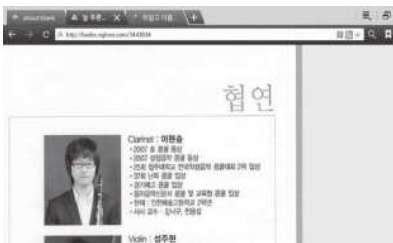
1. 첫 연주회



2. 중국 윤남성 여행. 석림(石林)



3. 협연



4. 협연 프로필



5. 대마도 테마여행.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손녀딸 소은(李蘇恩)

우리 가족은 2020년 현재, 성인 23명으로 구성되어 오던 중,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손녀딸 소은(蘇恩)이다. 손녀딸과의 이야기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두었다가 훗날에 기록해 보려고 한다.



2020년 2월 4일 입춘(立春)생 손녀딸, 첫 상견례

나 항상 그대 곁에

이제 부자유친을 넘어서 며느리와 손녀딸까지 우리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비록 떨어져 살아도 너희 곁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숨결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마지막으로 내 아내 이야기를 하고 『늘 푸른이처럼』 1부를 끝내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이 책 본문에 이미 밝혀 두었다. 우리는 1983년 7월 3일에 강남구 신사동과 도산공원 중간에 있던 영동 호텔 옆 ‘그랜드에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전날, 친구 세 명을 거느리고 이문동 처가로 소위 ‘함’이라는 것을 팔러 갔는데 화끈하신 장인어른 덕분에 별 소란없이 대문 안에 대기 하던 바가지를 밟아내고 처가에 입성했다. 남들 다 하는 사주단자 전달 의식을 끝내고 예비 신랑과 그 일행은 예비 신부의 친구들과 합석하여, 차려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돌렸다. 그런데 예비 신부의 친구들 미모가 범상치 않다 보니 내 친구들은 자리를 파할 기색이 전혀 없고 너무 즐거워하였다.

아쉽지만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이라서 다음날의 주인공을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구崔군이 자기가 근처 지리를 잘 알기에 운전하겠다고 하여 키를 주었는데 이게 문제였다. 청량리 방면으로 가다가 순간 신호를 잘못보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를 당한 분을 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함잡이를 비롯한 우리 일행은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당시에는 파출소에 음주측정기가 없어서 관할 경찰서의 순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순찰차가 오는 도중에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단다. 결혼식 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사고 조사서를 꾸미고 음주 측정을 하니 당연히 정상 수치가 나올 수밖에. 새신랑은 집에 연락도 못 하였으니 난리가 났다. 파출소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만이라도 좀 보내 달라는데 그냥 시간을 끌고, 인정 머리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었다.

아무튼, 함 값으로 받은 봉투는 하나도 열어 보지 못하고 내 지갑까지 전부崔군에게 주고 결혼식장으로 갔다. 목욕탕은 물론이고 이발소에 갈 시간도 없어서 모친께 예복을 식당으로 가져오시라 하고 나는 인근 가게에서 1회 용 면도기를 샀다. 예식장 화장실에서 얼굴을 베이면서 급하게 면도를 하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나마 나도 한 인물 한다고 믿었기에 대충 얼굴만 닦고 태연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우리 부부도 남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어왔고 남은 날도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과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정갈하고 맛있다. 겨울이 되면, 옷장 속에 걸어 놓은 스웨터와 조끼를 즐겨 꺼내 입는다. 바로 아내가 나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뜨개질하여 만든 손길이 배어있는 옷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즈음도 가끔 싸운다. 누구나 그렇듯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설전을 하고는 둘 다 무승부가 되어 지쳐버린다. 그리고 몇 분도 못 버티고 금방 후회한다. 좀 더 세월이 흐르면 지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싸움도 건강할 때 가능하지 몸과 마음이 병들면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을 것 같다. 더구나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누구랑 싸울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사를 서로가 잘 알기에 꼬집어서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아내에게는 그간 함께 해주어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나도 항상 그대 곁에 머물면서 아직도 어색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한다.



2부

여백(餘白)을 채움이
부끄러워도

늘 푸른이처럼

❀ 한때는 네가 참 좋았다-발렌타인

청춘 시절에는 좋은 술 마실 돈이 없어서 감히 양주 따위는 접할 기회가 드물었지만 혹 친구들과 의기투합하면, 다방에 가서 위티(홍차에 위스키 섞은 것 또는 홍차 한잔 위스키 한잔 따로따로)마시면서 폼을 잡아 보고는 했다.

그 시절의, 그 국산 위스키는 거의 ‘도라지 위스키’라는 상표가 아니었던가?

양주는 위스키 말고도 중, 장년층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캡틴큐’라고 하는, 마신 다음 날 필히 두통이 수반되던 유명한 럼주의 기억이 남아 있는 듯하다. 또 그 밖에 이름만 양주인 허접한 술들이 여러 종류 나왔다가 사라지고는 하였다.

영국인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 1853년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B(발렌타인) 30년 양주를 불혹이 한참 넘어서 처음으로 맛보았다. 은행지점장으로 있던 선배가 모임을 주선하시어 친구 몇 명과 일식집에 합석해서 하사주(下賜酒) 한 잔씩 받아마시는데, 애주가들한테는 역시 맛과 향기가 아름다운 술이었다.

맨날 소주나 푸다가 이렇게 비싸고 퀄리티가 높은 B 30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선배의 주법에 의하면 촌놈 소주 마시듯이 단숨에 마시면 맛을 모르니까 한 모금 입에 넣고, 우로 한 번 좌로 한 번, 입 천청으로 올려서 혀를 갓다대고 한 번 천천히 돌리고 목구멍 입구에 대기시켰다가 조금씩 삼키라는 것이다. 그래야 B 30의 진정한 맛과 향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날 이후로, 나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다른 건 몰라도 B 30년은 반드시 한 병을 사오고는 하였다. 문제는 집에 놔두고 좋은 날 기분 좋게 한 잔씩 드시라는 부인님의 부탁과는 달리 항상 들고 나가서 친구들과 다 마시고 와야 직성이 풀리고는 하였기에, 집사람한테 자주 혼이 날 수밖에. 왜 그 비싼 술을 집에 놓고 혼자 즐기며 마시지 죄다 친구들과 한테 선심쓰냐고, 그리고 음식점 비용이나 안주 값은 누가 냈냐고 묻는 거도 빠지지 않았다. 이왕 쓰는 것, 내가 내지 누가 내냐? 는 답변에 나는 또 한 번 혼나면서 듣는 뒷말은 “아이고, 이 호구 남편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술 처마시면서 100% 기부 천사가 되니 그렇게 좋더냐?” 빈정대지만 나는 대꾸하기 싫어서 잠시 묵언 수행에 들어간다.

수원 백(白)씨 성을 가진 내 처가 가족들은 오로지 처삼촌 한 명 빼고는 술 한 잔도 못 마신다. 한 잔을 억지로라도 마시려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각오를 해야하니 음주 문제로 불화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 참 좋은 유전자로 대물림 받은 줄 알았는데, 작고하신 처조부께서는 수십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복하게 드시다가 천수를 누리셨다. 장인어른부터 이하 식솔들은 아마도 외탁을 하셨나 보다.

수원 백(白)씨 성의 여인 중 한 명인 아내는, 자기는 술 못 마셔도 주태 백이 남편 덕분에 양주 사는 것을 참 좋아하여 그녀 역시 외국 다녀올 때



조카와 처제의 선물

면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B 30년 한 병은 꼭 사와서 여행경비를 제공해 준 남편에게 진상하고는 하였다. 한 번은 미국 사는 처제한테 다녀 오면서 사온 그 귀한 B 30년을, 집에도착해서 가방을 풀자마자 꺼내어 콘솔 위에 올려놓고, 거실과 방을 들락거리다가 옷소매로 잘 못 건드려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불상사를 만들어, 그 좋은 맛과 향을 뒤로 한 채 한 잔 맛도 못 보고 버렸다. 아내는 아까운 마음에 한 동안 슬퍼하였다.

또 한 번은 아내가 귀국할 때, 급한 마음에 뉴욕 공항 면세점에서 B 30년을 미리 사서 기내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던 중, 나리타 공항에서 한 번 갈아타고 오는 여정이 있었다.

국적기 보다 일본 비행기 요금이 훨씬 저렴하여 끊어줬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일본에 도착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뉴욕 공항에서 구매한 B 30년은 휴대품으로 기내에 못 가지고 탑승한다하여 일본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손짓, 몸짓으로 싸우다가 아내는 일본 사람들 보는 앞에서
B 30년의 뚜껑을 열어 쓰레기통에 부어 버리고 귀국하였단다.

중간에 버리고 온 것이 아깝지만 남편 좋아하는 선물을 잊지않고 챙기
려고 한 그 마음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 못가져갈거 부어 버린 그
성깔도 내 맘에 듭니다.

가요무대

1985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방영되는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KBS의 '가요무대'가 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데, 그 화면에 보이는 방청객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룬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나 역시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청의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나와는 많이 다른 아내의 음악적 취향 때문에 리모컨의 주도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여섯 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 선호하는 음악적 취향은 3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있어 아내는 가요무대를 보고 있는 나를 영 못마땅해하고 노인 취급한다. 자기도 환갑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말이다.

나는 가요무대에 나오는 옛날 가수나 노래를 거의 다 아는데, 집사람은 거의 다 모른다. 그리고 반대로 신나는 댄스와 함께 댄스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랫말이 요란한,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리고 흥겨워한다. 우리 집사람은 아이돌에 관해서는 그룹 이름은 물론, 노래 제목도 조예가 깊다.

집사람 보기에는 나를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비슷한 연령대 수준으로

혼동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누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씨스타’나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같은, 좀 오래된 그룹 정도는 알고 있다. 아니 ‘소시’와 ‘브아걸’이 뭔지도 알며 윤아, 서현이 어찌 생겼는지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요즈음 활동하는 걸 그룹 중에는 외우기 쉬운 ‘걸스데이’ 외에는 생각나는 아이돌이 없지만, ‘씨스타’의 멤버인 ‘효린’이라는 처자의 얼굴도 기억한다. 그리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히트곡 ‘가슴 아파도’는 내 애창곡이라는 사실!

하지만, 고희를 바라보는 내 친구들은 ‘은방울 자매’, ‘펼 SISTERS’, ‘바니걸즈’ 정도만 알까 완전 깡통이다.

그래도 아내의 눈에는 ‘홍도야 우지마라’나 ‘대전발 영시 오십 분’을 젓가락 장단 맞추어 불러 젖히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골동품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도 아직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동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가벼이 보십니까? 라는 것이 솔직한 내심이다.

나는 가요무대를 좋아하는 것 외에도, 우리 나이에는 좀 어렵게 느끼는 팝송도 많이 알고 도전 골든벨의 퀴즈도 잘 맞히고 게다가 수도쿠(數獨) 문제는 최상급도 잘 풀 수 있다. 컴퓨터? 주위에 나처럼 개인 블로그 운영하며 음악이나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가요무대는 내가 오랫동안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 아내로부터 그거 본다고 노텔 취급받으니 기분이 짱이다.

그래도 집사람 일찍 주무시는 월요일 밤 10시경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가요무대를 본다.

나한테는 가요무대가 훨씬 정겹고 그리운 예능프로인데 뭐 어찌라고?

장모님이 생전 즐겨 부르시던 ‘향기 품은 군사우편’은 아마도 보훈의 달
6월이 되어야 들려줄 것 같다



墨井 畫 〈불로목장 가는 길〉

❁ 누나, 1원에 안 돼요?

「연탄 파동은 마침내 버스 차장들의 합숙소에까지 미쳐 7일 상오 불을 때주지 않은 데 반발한 서울 신성교통(대표 김완수 · 서대문구 갈현동 49의 17) 소속 급행버스차장 53명이 상오 6시부터 일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상오 10시 현재까지 승차를 거부하고 회사에 모여 농성중인 차장들은 ①합숙소에 불을 피워줄 것 ②현재의 1천 3백 5원 내지 1천 5백원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해 줄 것 ③하루 14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이들 차장들과 합의를 못 본 채 정비공 · 조수 등을 동원, 37대의 버스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

윗글은 1966年 11월 7일 字 중앙일보 3면에 실린 ‘버스 차장들의 파업’이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인데, 내용만으로도 그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이 간다. 여기서 말하는 차장의 ‘장’은 한자로 ‘長’이 아니라 ‘掌’이라 쓰며 ‘맡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버스 차장은 원래 남성이었고 호칭도 ‘조수’라고 했으나 이 사람들은 인건비도 비싸며 성격들이 대부분 거칠고 승객들과 다툼도 빈번하여 군사정권 수립 후인 1961년부터 여성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1960, 70년대에 젊은 여성들이 택한 고달픈 직

업이었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버스 차장 양성을 위한 교통학원도 있었다.

고속버스가 생기고 ‘안내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일반 버스 차장도 안내양으로 불리어지기는 하였으나 현금, 회수권, 토큰시대를 거쳐 1989년을 마지막으로 김포교통 안내원 38명이 사표를 내고 속칭 버스 차장시대는 막을 내렸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63년 어린이날, 필자에게 창경원 구경을 갈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는 창경원에 동, 식물원이 함께 있어서 가족 나들이는 물론, 소풍이나 수학여행의 명소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창경원의 원래 명칭은 창경궁이었는데 일제가 동물원을 개설하고 궁을 원으로 격하시켰다고 하며, 동물원 시설은 1983년경에 과천 서울대 공원으로 이전하였다.

1963년은 초등학교생의 시내버스 요금이 2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거금 10원을 지갑에 챙겨 넣고 창경원 구경을 하다가 나는 코 묻은 돈 10원을 쓰리(?) 당했다. 그 흔한 솜사탕도 못 사 먹고 불량색소로 물들인 빙수 맛도 못 보고 어린이가 어린이날에 쫄쫄 굶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집에 갈 버스비가 없는 것이었다.

나름, 고심 끝에 어른들의 술판과 창경원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빈 병을 수집했는데 그나마 온전한 병은 하나도 없고 죄다 주둥이 일부가 깨진 것들만 있었다. 그래도 몇 개 골라 팔아서 1원을 벌었다.

나는 창경원 정문 건너편 원남동 버스정류장에서 미아리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여 문이 열리면 앞 차장, 뒤 차장 중에 누가 예쁜지 탐색을 하는데 어린 마음에도 예쁜 차장 누나에게 사정하면 1원만

내고도 태워 줄 것 같아서였다.

보통은 대꾸도 없이 켜려보면서 그냥 '오라이!'하고 가버리고 말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예쁘고 마음도 착해 보이는 뒤 차장 누나를 만나서 전 재산 1원을 내고 무사 귀가하였으니 그 누나가 참으로 고마웠다. 한편, 초등학교 주머니를 털어가는 통에 어린이날을 축하하지는 못할망정, 빈 병수집을 하게 만든 그 치사한 쓰리꾼이 원망스러웠다.

도련님과 아가씨가 문제였네

일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토론방 같은 곳에 댓글을 올리고는 한다.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이라 하고 여동생은 ‘아가씨’라고 부르며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여동생은 ‘처제’로 호칭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취지의 댓글이다.

이런 불공평한 호칭은 성차별이라 하여 여성가족부에서도 개선해 보겠다고 한다.

아래 형제를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왜 아내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상대방 즉, 남편의 동생과 여동생을 높여 부르냐는 것이다.

나는 별로 보수적인 사고를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이 값도 못 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아무 의견이나 생각없이 부화뇌동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이 같은 호칭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며,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문제의 초점은 바로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에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 토론이나 주장의 변(辯)을 살펴봐도 거의 비슷한 불만이었다.

남편 쪽에서도 아내의 가족을 호칭할 때, 공개석상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이라고 하지 ‘어른’이나 ‘님’ 자를 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형님’으로 호칭 되는 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적든 아내의 오빠이기에 형님이다. 처남, 처제, 처형에게도 ‘님’자를 붙여 부르는 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된다.

나도 과거에 처제들에게 처제님이라고 불러보았는데 장인어른한테 호되게 야단맞았다.

남들이야 어떠하던 괘념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한 번 시도해 보라는 얘기이다.

아내도 무남독녀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가 있을 터이고 그 형제자매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 처가댁이 생기는데 역사사지를 해 보면 이런 호칭 문제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 않고 남녀 간, 노소 간에도 이견이 팽배할 듯하다.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로 불리는 대부분 당사자도 왜 자기가 그런 호칭으로 불려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는 호칭이 성차별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또 다수의 변(辯)은 그리 예민하지도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는다.

이러한 호칭의 사전적 어원과 의미는 자신들이 가족 간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의 의미와는 다른데, 친정 오빠도 오빠이고 함께 사는 남편도 오빠인데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다.

그래도 영 거슬린다면 호칭 개선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여 잊

사람은 ‘님’ 아랫사람은 ‘씨’라는 호칭을 이름 뒤에 붙여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다른 제안을 하자면, 이거는 정말 공평할 것 같은데,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를 지아비 부(夫)를 붙여 부제(夫弟), 부형(夫兄), 부매(夫妹)라고 부르는 것도 대안이 될 듯하다.

그러나 그리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지, 여성가족부까지 동원하여 사회 전체에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도 짬밥이다.

세월이 가면, 원래부터 전통 양반가나 종갓집의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일부 가정 외에는 대부분이 ‘삼촌’, ‘고모’,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로 고쳐 불러도 호칭 때문에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는.

❀ 렛잇비(Let it be)와 렛잇비 미(Let it be me)

1970년에 발표된 비틀즈(Beatles)의 히트곡 중에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다.

노랫말을 요약해보면,

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한들 어찌겠는가? 그냥 나뉘라, 뉘뉘라이다.

싫다고 가는 놈 잡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 말씀인지, 성모 마리아님께서 참으로 대책없는 조언을 하신 것이다. 아니면 다 잘 될 터이니 신경을 꺼도 된다는 지혜로운 암시인지도 모르겠다.

(영문 가사 Mother Mary를 혹자는 어머니 메리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비틀즈가 찢어졌다는데 불화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비틀즈는 영국 출신 그룹이고, 미국에는 에벌리 브라더즈(Everly Brothers)라는 유명한 듀엣 가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에벌리 형제가 부른 노래 중에 'Let it be me'는 몇 곡 안 되는 내 18번 팝송이기에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자주 불러댄다.

내 사춘기 시절에는 음악과 관련있는 정보는, 지금과 달리 주로 라디오에 의존하여 알팍한 지식을 얻고 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밤을

잇은 그대에게’와 ‘한밤의 음악 편지’였다.

한국 가요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사를 받아쓰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데, 영어 가사를 어떻게 받아쓸 수 있겠는가? 방법은 동네 레코드 가게에 가서 레코드 케이스 뒷면에 인쇄된 가사를 베껴 와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외우고 불러대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때 배운 노래 중 하나가 바로 ‘Let it be me’인데 가수의 이름을 에브리(Every) 브라더스인 줄로 잘 못 알고 몇십 년을 살았다.

그럼 ‘Let it be me’는 무슨 뜻인가? ‘내 곁에 있어 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불려서 유명해진 ‘내 곁에 있어 주’가 있는데, 두 노래 모두 구구절절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오래오래 있어 달라는 애절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노래 제목에 “Me”가 없으면 ‘냅뉘’가 되고 “Me”가 붙으면 ‘내 곁에 있어 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 나 원 참….

하긴 우리 가요 중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 어찌고 하는 노랫말이 있다면 엄연히 점과 단어는 다르지 않은가?

오늘은 친절하고 예쁜 목소리의 인공지능 클로바에게 부탁하여 ‘렛잇비’ 말고 ‘렛잇비 미’를 들려 달라고 해야겠다.

2019년 1월 18일

마지막 명함

이른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러 나섰다.

걷기 운동 겸 자주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무지막지한 미세먼지 덕분에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한다. 그래도 큰마음 먹고 황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가 보았다. 경칩이 지나서인지 별로 춥지도 않고, 먼지만 덜 하면 참 상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역전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낮익은 인쇄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지내던 사장 얼굴도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은 없고 부인과 직원들이 마침 식사 중이었다.

사실 이곳 사장은 경제적으로 제법 성공한 지역 후배로서 로타리클럽의 회장도 역임하였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였으며 참으로 무난한 호인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별안간 뇌졸중이 와서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며 주로 집에서 소일한다고 하였다.

이왕 간 김에 새 명함을 주문했다. 그간 사용했던 명함의 직함은 원장, 교수, 회장이 차지하였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보니 남아있는 유일한 직함이 '원장'이다. 교수나 회장은 이미 전직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음

에도 가지고 있는 명함에는 아직도 ‘회장’이 적혀 있기에 사인펜으로 ‘회장’을 지워서 사용하는데 마치 내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며 그나마 몇 장 남은 것 같지도 않아서 이래저래 새 명함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과거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명함을 주고받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에 300매만 인쇄하여도 족히 5년은 사용할듯 싶다.

고희가 넘어서 천직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도 전무하거나와 다른 직책을 맡을 기회도 희박하다 보니, 오늘 주문한 명함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명함같은 생각이 들어 혼자 쓴웃음을 짓게 된다.

그리고 내가 치과의사를 은퇴하게 되면 현직으로서의 직함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박사’라는 직함 한 개는 훗날, 나를 기억하는 지방(紙榜)이나 위패(位牌)에 ‘학생부군’ 대신으로 쓰일지 잘 모르겠다.

문득 오래된 명함첩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니 참 새롭다. 그래도 그 많은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물론, 초면의 의례이기도 하지만 악수를 하였든 눈인사를 하였든, 한 점 인연이 되어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억되기도 하고 나 또한 일부나마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 명함첩에 있는 인물들은 지금 어찌 살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수십 년 된 명함들을 들여다보니 지역 번호도 변했고, 두 자리 국번도 눈에 띄며, 012와 015로 시작되는 뽀뽀 번호도 있다. 뽀뽀의 이동통신은 이렇게 많은지, 011, 013, 016, 017, 018, 019, 아이고.. 013은 무전기 겸 용 파워텔 전화라고 한다. 명함도 오래 간직하였더니 골동품인양 참 신기하다. 모양도 글씨체도 내용까지 각양각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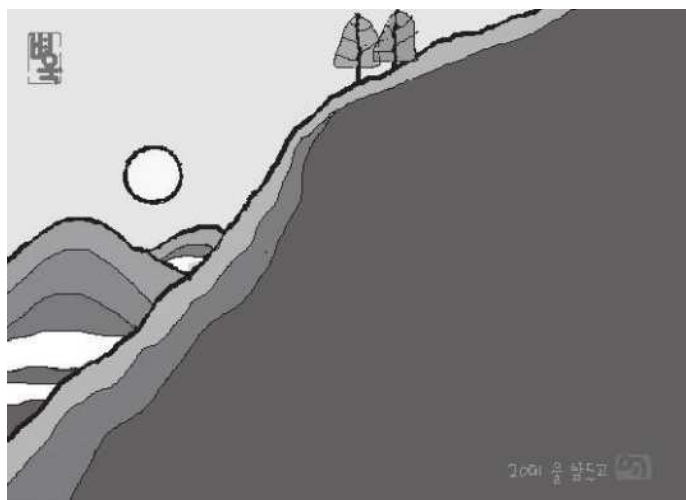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처음 명함을 사용한 인물은 구한말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이라는 설도 있고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미국방문

사절단 시절에 사용하였다고도 하는데,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절에는 참 희귀하였을 듯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본인의 캐릭터와 전화번호를 넣은 명함을 만들어 어린이회장 선거 등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음을 인정해야겠다.

아주 오래전에 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서랍 귀퉁이나 명함첩에 내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며 진즉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한들 서운할 이유도 없다. 나 역시 별 의미없던 명함들은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였고 더는 내게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새로 찍을 내 마지막 명함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그들에게서 받은 명함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복사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겠다고 마음먹는다.



墨井 畫 〈산 그리고 먼산〉

늘 푸른이처럼 _

막말과 욕이 표현의 자유인가

과거 우리나라 형법 중에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다.

1975년 3월, 만년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거수기 유정희가 신설한 법률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을 거쳐 노태우 정권으로 바톤 터치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8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죄에는 ‘국가원수 모독’도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니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취중에라도 대통령을 욕하면 그냥 잡혀가고 감옥에 가던 시절이었다. 필자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해 보면 서슬 퍼런 군부독재 정권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 온다.

술김에라도 정부나 정권을 함부로 욕했다가는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일면 부지의 사람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그냥 파출소로 끌려가서 얻어맞고, 경찰서로 넘겨져서 또 맞고 ‘욕’의 내용과 강도, 욕한 사람의 신분이나 전력에 따라 정보기관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여기서는 간첩과 동급으로 취급받으며 원 없이 제곱으로 얻어터지던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북한 정권에서처럼, 혐오, 찬양만이 허락될 뿐, 욕이나 비방 또는 불만 사항은 그냥 금기되었다.

세월이 좋아진 것인지 사람들이 무뎌진 것인지 몰라도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 및 국가원수를 비방하고 모욕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는 세상이다.

작심하고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읽어보면 비방이나 모욕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으로 도배되어 있다. 1988년도에 모욕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를 과시해 보거나 테스트할 중요한 수단인 인터넷이 완전 초보운전 수준이었고, 일부 언론인이나 논객 등이 일간지나 잡지에 정권을 비방하는 글을 기고할 수는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은 비방과 욕을 목적으로 비싼 광고료까지 물어가며 지면을 빌릴 수는 없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SNS를 통해서 돈 한 톨도 안 들이고 실컷, 원 없이 비방하고 욕해도 좋은 세상으로 탈바꿈했다. 나 혼자 욕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욕을 도배질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어느 분야이든 공통 관심사에 욕이 한 번 나오면 죄다 대동단결하며 즐기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2019년 현재까지 독재와 쿠데타, 바톤 터치의 정치를 하면서 엄청난 피를 흘렸고 그 대가로 민주주의를 얻었지만, 대한민국을 통치하였던 분들 가운데 훌륭한 국가원수로 국민의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의 국가원수들은 살아서 욕먹다가 죽어서도 욕먹고, 부녀가 쌍으

로 욕먹고, 부자(父子)도 여럿이 욕먹고, 좋다고 뽑아 놓고는 얼마 못가서 욕하고, 참 어지간하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재하다가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 군부독재 하다가 같은 편으로 믿었던 부하에게 총 맞아 죽은 대통령, 바지 대통령, 강도질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나 퇴임 후 위리안치를 경험한 그분, 바톤 터치하였으나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물 취급받던 대통령, 금융실명제의 치적이 있으나 소통령 아들 덕에 평가 절하된 대통령, 햇볕 좋아하여 실컷 퍼주고 노벨상 받으셨으나 사고뭉치 아들 때문에 열 받고 빨갱이 소리 듣던 대통령, 막판에 뇌물 어찌고 하여 젊은 검사한테 개망신당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고독한 대통령, 죽도록 4대강을 사랑했으나 '다스'는 남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적폐에 걸려든 대통령, 병신같은 최순실 덕분에 임기 중간에 잘리고 죄목도 엄청 많은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헛갈리는 대통령,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으나 과거와 단절하고 적폐청산 한다며 죄다 잡아 처넣고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잘 지내려고 목하 노력 중이지만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미래가 불안한 대통령까지 참 다양하다.

이분들에게도 나름 업적과 과오가 있는데 업적은 관심이 없고 그저 과오만 들쭉서서 난도질하며 욕을 해대니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어지간히 불쌍한 분들이다. 생존해 있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도 두 명은 사이 좋게 감옥에 다녀왔고 나머지 두 명은 지금도 감옥에서 사색에 잠겨있다.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짜증이 난다.

잘 나가던 자유한국당이 어머니로 모시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대선에서 깨지고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몹쓸 정당으로 이미 찍혔고 일부에서는 정의당을 훨씬 희망이 있는 야당

으로 우대한다. 그러나 민주당도 자만하면 권불십년이라고 뚜껑 열린 민주당으로 추락하는거 가능하다.

요즈음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유한국당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다. 별로 이슈가 아닌 내용에도 욕과 비난으로 댓글을 도배질한다. 그냥 나쁜 놈들, 없어져야할 집단, 나라 말아먹은 종자, 토착왜구, 수구꼴통 등, 정신없이 도배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지 5.18과 관련하여 잘못 떠들다가 망언 집단이 되어 동물을 뒤집어쓰고 닦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돌파구를 잘 못 찾은 셈이다.

이미 ‘깡패 같은 놈’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빗대어 욕을 해본 경험도 있으니 이왕 동물로 더러워진 바에 못 할 말이 뭐 있겠느냐고, 이번에는 ‘저만 게 무슨 대통령인가’ 등의 막말 수준을 넘어 무지막지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뽐어댄다.

하긴 올림머리 전직 대통령에게 쏟아부었던 욕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지만, 국가원수모독죄가 형법에 없다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다.

정권이나 정책을 건전한 안목으로 비판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참고서가 되겠지만, 전직이고 현직이고 간에 국가원수를 상대로 동네 양아치들이나 사용하는 막말과 욕으로 사이버 공간을 더럽히는 행동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여도 그 자유라는 공간이 욕과 비방이 뒤섞인 쓰레기 통통으로 뒤범벅되어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는 장소로 전락될까봐 심히 걱정된다.

문재인케어(快語)

몸이 아프든지,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치료나 확인 또는 예방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올 때, 정해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정해진 금액의 치료비만 내고 오면 된다.

요즈음은 어르신들이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으면 보통 1,500원만 내라고 한다. 물론 진료 내용에 검사나 시술 등이 포함되면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지만, 단순 외래 진료를 받고 주사 한 방, 처방전 1장 받아서 나올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문제가 달라진다.

입원비를 비롯하여 수술비, 각종 검사비 등이 추가되고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아무리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어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부담은 마구 올라간다.

또한, 모든 약이나 주사, 검사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데 이처럼 예외인 것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즉, 건강보험에 적용됨은 급여이고 안 됨은 비급여이다.

비급여에 해당되는약품, 검사료, 시술 등은 애초부터 희귀약품, 고가

장비, 수입재료 등이기에 원가에서부터 유통되는 과정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 마지막으로 환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상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와 같이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진료비를 100% 다 내야 하니까 무척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던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한 총 3,800여 종목을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대통령님이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 복지를 위한’ 공약사항인 문제인 케어의 요점이다.

이 얘기를 듣는 많은 국민은 대통령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줄 알며 뿌듯해한다. 백세 시대에 병원비 걱정을 확 줄여 준다는데 싫다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의사들이 난리법석, 병원 문을 닫고 길거리에서 ‘문제인 케어’ 반대 데모를 한다.

내 가족이나 사돈의 팔촌 중에 의사나 의료인이 있는 사람들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모른 채하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질하는 배운 도둑놈들로 비쳐진다.

의료정책 연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동네 의원이 근근이 버티는 것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진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병원 수입을 보정해 주었는데, 이러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인 케어(care)’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겠는데 왜 급여, 비급여 갖고 따지느냐고 의문이 들겠지만, 비급여로 5만 원 받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서는 3만 원만 인정해 줄 터이니 나머지 2만 원은 의사가 손해 보든지 알아서 하고 그나마 3만 원 주는 것도 환자가 부담하는 1만 원 말고 건강 보험 부담 2만 원은 외상처리 하였다가 심사평가원에서 잘 살펴보고 깎을 것 있으면, 과잉이나 중복 또는 오류 등의 이유를 달아서 삭감하고 그 다음 달에 세금 떼고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마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횡포 부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다 설명하려면 이 글 읽는 사람이 지루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더 요약하고 끝내야겠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에 대한 과잉 우려로 인하여 굳이 별 필요 없다고 하여도 값비싼 장비를 이용하여 이것저것 다 검사받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죄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환자들과 대형병원들은 참 좋은데, 이러한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동네 의원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그래도 그까짓 동네 구멍가게 같은 의원 망하거나 말거나 큰 병원에 가면 된다고 큰소리를 칠 사람은 없으리라 기대한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1차 응급 처치는 그나마 동네 의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케어를 위한 일련의 수요 공급과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1990년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이 정부의 압박으로 강제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고 한다. 문제인 케어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누가 조달해야 하는가?

무책임한 인기몰이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의약분업 당시도 그랬지만 병원 문 닫고 단체 행동하는 의사들에게는 의법처리, 행정조치 등의 사전 협박이 기다린다.

의사들은 불도저 정부도 무섭지만, 국민의 원성이 더 두렵기에 늘 항복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뭘 놔의 규제가 그리도 많고 간섭이 심한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느 팔십 넘은 할머니가 경로당 TV 뉴스에서 ‘문재인 개여?’라는 말을 얼핏 들었다며, 그 개가 뭘지 설명해 달라기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개(犬)여가 아니라 케어(care)라고 알려드리고, 국민을 위한 ‘건강 돌봄 제도’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하였다.

부디 성공한 정책이 되어 훗날, 문재인 케어가 유쾌한 말씀 쾌어(快語)로 남았으면 한다.

동네 의원에서 묵묵히 자리 지키다가 현금 몇만 원 받아들고 퇴근하는 이웃 원장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0월

미사의 노래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알고 있다. 요즘 음악은 ‘걸 그룹’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아이돌’ 또는 ‘아이돌 그룹’에 의한 것이 대세인데, 나이 지긋한 분들은 이런 음악이나 율동을 듣고 보고, 즐길 수는 있으나 흥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도 세대 간 취향이 다르며, 음악 분야도 클래식 쪽은 몰라도 대중 음악의 경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인권이라는 옛날 작곡가 겸 가수가 부른 탕고풍의 가요 ‘미사의 노래’가 있다. 이분은 한국전쟁 중에 가수였던 부인과 함께 국군위문공연을 다니다가 포격으로 부인을 잃었다고 하며, 이때의 아픔을 못 잊어 1953년에 ‘미사의 노래’를 작곡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저 멀리 니코라이 종소리 처량한데
부엉새 울지 마라 가슴 아프다.

위의 가사가 바로 ‘미사의 노래’ 1절이다.

나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술 한 잔 드시고 거나해 지면 자신의 무릎에 아이를 앉혀 놓고 부르시던 노래였는데 나 역시 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그리고 부전자전인지 나도 한 잔 마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아들이 나 며느리는 이런 노래도 있냐고 신기해한다.

당신이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니코라이 종소리가 대체 뭘까?

슬픈 감정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나는 그냥 별 뜻 없는 노랫말이려니 했다.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니코라이 종소리’를 알게 되었는데, ‘니코라이’는 바로 서울 정동에 있던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운 ‘성 니콜라스 성당’이었단다. 이 성당은 1968년에 아현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나는 정교회 혹은 동방정교회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어찌하였던 그 시절, 휴전 무렵의 서울 거리는 매우 황폐하였을 터인데 성당의 종소리가 그야말로 처량하게 들렸을 것 같다. 이인권 선생의 부인은 어떤 선물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을까? 물건이었을까, 아니면 생명체이었을까.

노래에 앞서 대사가 나오는데, 그 선물이 십자가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지만, 십자가는 고통과 평안의 양면성을 은유하기에, 받는 사람에게 그 선물이 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추상(追想)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이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는 너무 싫어하셨다. 그 아버지의 무릎에서 잠든 아이는 누가 준 선물인가?

아버지는 진즉에 저세상으로 가셨는데, 아버지께 선물을 주신 그분을

저 세상에서 만나셨는지 모르겠다.

2019년 1월 16일



墨井 畫 〈용궁사 할배나무〉

바위고개 넘어 희망의 나라로

필자는 중학생 시절에 어렵게 하모니카를 장만하여 옛날 중외제약이 있던 성북구 장위동 뒷산에 올라가서 독학으로 처음 연주한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바위고개’이다.

‘바위고개’라는 국민가곡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2년에 이흥렬 선생이 작사, 작곡하여 탄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토종 국민 중에 ‘바위고개’를 부를 줄은 몰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단정해도 별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 바위고개 노래 3절은 아래와 같은데,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 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십~여년 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늘 푸른이처럼 _

눈물집니다

‘십여 년간 머슴살이가 하도 서러워’라는 가사 부분은 당시 일제 치하에서 겪은 민족의 울분을 비유적으로 노래에 담아 일종의 애국가요 형태로 불려졌다고 한다.

이흥렬 선생은 서라벌예대와 숙명여대 음대 교수 및 한국 작곡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3년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상 및 예술원상을 수상하셨다.

그런데 이 애국 가곡의 주인이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올라있다.

을 밑에 선 ‘봉선화’도 식민지 시대의 우울하고 비탄한 조선의 현실을 봉선화에 비유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다.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나? 바로 흥난파 선생이다.

요즈음은 잘 모르겠으나 과거 7, 8십 년대만 해도, 회사나 단체 등의 연수회에 가면 함께 부르던 가곡 중에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었다. 매우 경쾌하여 대중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결속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 작품인가?

친일파 현제명이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예우를 갖추어 현제명 선생으로 호칭하고 싶다.

친일인명사전을 살펴보면 친일 음악, 무용가로 등재된 사람이 58명이다.

애석하게도 한국 국민이 사랑하고 애창하는 국민가곡인 ‘바위고개’, ‘봉선화’, ‘희망의 나라로’를 선물해 주신 분들은 어찌되다 친일파인지 가

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 오히려 작사, 작곡 미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왜 부르냐고 핏대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단지 음악이 좋아서 듣고, 부르는 사람에게 관대하였으면 한다.

문화, 예술이 무엇이기에 친일의 굴레에 섞여버린 그 시절, 어리석었던 당사자들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킨 주홍글씨를 이제는 그만 지워주고, 바위고개 넘어 희망의 나라로 전진하면 참 좋겠다.



墨井 畫〈봄〉

바지 입은 여자

30년 전만 해도 병, 의원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여성 직원들은 치마를 입었다.

나도 90년도 초에 치과를 개원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원피스 형태의 근무복과 카디건을 맞추어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치마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병원에 가봐도 치마입은 간호사를 볼 수 없다.

세브란스 병원은 자체 복장 규정에 따라 여의사들은 단정한 품위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반드시 의사가운과 치마를 입도록 하였는데 1992년부터 바지 착용도 허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에는 국내 항공사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마지막으로, 여승무원의 유니폼 바지 착용을 허용하여 이제는 치마이든 바지이든 업무상 편리하여 입으면 그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도, 여자가 바지 입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치마를 잘 못 입으면 풍기문란으로 잡혀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는 1800년경에, 파리 여성

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이면서 집행의 의지가 없는 법을 제정해 놓고 200여 년을 방치하다가 2013년에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여전사 잔 다르크는 바지와 재킷을 입고 남장을 한채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 화형에 처해졌다. 죄목은 신성 모독죄이고 바지 벗기를 끝까지 거절한 것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영국이나 프랑스나 참 웃기는 나라이다. 잔 다르크가 화형을 당해 죽은 게 1431년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세종 13년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 생김새만 다르지, 했던 짓은 비슷한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 때 말고는 맨 날 바지만 입다가 언제 나올지도 기약없는 감방에서까지 원 없이 바지를 입는다. 지금 세상에 여자 죄수한테 치마를 입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때가 되어 출옥하면 모시 저고리 치마입고 사저의 정원을 무념 무상하며 산책하면 참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단연 이선희이다. ‘J에게’로 처음 알고 ‘인연’으로 설렘을 남긴 가수인데 그녀는 거의 바지를 입었다. 다리가 예쁘지 않아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치마입은 이선희를 TV나 화보 등에서 본 적이 없다.

이선희는 바지를 입어야 속칭 ‘폼’이 난다. 나는 이선희의 치마입은 다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정맥류도 없고 튼 곳도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내 아내의 잘 빠진 다리를 평생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아내가 나이 들어서도 바지를 즐겨 입는데, 거 참, 바

지 입은 아내가 이선희보다 멋지구나.

2019년 1월 25일 오후



위다복 〈바지입은 여자〉
위다복은 이 책 90쪽 사진 6번의 아들이며 현재 뮤지컬배우

어르신과 늙은이

어르신과 늙은이- 노인이 만만해?

아침 일찍 산에 다녀오던 중, 중학생 또래 애들 3명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치면서 별안간 쌍욕과 이상한 손가락 짓을 하고 히죽 웃으면서 도망가더군.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녀석들, 밭에서 일하는 노인에게도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줄행랑~ 그 부모들은 누구인가? 노인들에게 묻지마 쌍욕을 하면서 나름 쾌감을 느끼는 것인지 몰라도 그럼 왜 도망을 가는가?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 기가 막힌다. 전철 안에서 노인한테 주먹 날리는 시늉도 모자라, 반말로 욕하면서 소리치는 처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참 보무당당하다. 나이 먹으면, 늙은이 행동거지 더럽다고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사회가 되었지만, 늙은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대 갈등도 인정하고, 꼰대소리 듣는 것도 인정하지만 노인에게 욕은 하지 말자.

그리고 늙은이들도 젊잖은 노인이나 어르신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봐

야 되지 않을까?

청주시의 모 노인복지관장이 충청투데이에 기고한 내용 일부를 옮겨 보자면,

노인이 존경받는 ‘선배 시민’으로 불리기 위해선 노인 세대 스스로 품격있는 모습이 요구되지만, 노인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뒤따라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경제적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위해 헌신한 나의 ‘선배 시민’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서, 경로효친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2011년 7월 26일

어르신과 늙은이- 세대 갈등

우리는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종종 듣는 질책 중 하나가,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이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또 그 위의 어른들도 똑같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 그놈의 싸가지는 언제 있을지 무기한 숙제로 남는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세대 갈등’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세대 차이가 심화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세대 갈등이라고 부른다.

기성세대는 어른의 사정 등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미 익숙한 기존 규율을 고수하려 들고 신세대는 새로이 대두하는 변화를 따르려 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경

우, 기성세대는 신세대에 반발해 더욱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신세대도 기성세대의 이러한 경향에 반발해 더욱 개혁, 반항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의 고속화된 문화 변화에 힘입어 더욱 심해지고, 정치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 생겼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수도권 20~40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더 많이 지지하고, 60대 이상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게 그 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반항적이었던 신세대가 30년이 지나면 다시금 기성세대가 되어 새로 등장한 신세대와 대립하게 되고, 그 신세대는 다시 기성세대가 되는, 이러한 세대 갈등은 사실상 인류 문화 발생 이후 영원토록 되풀이되는 영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기원전 고대벽화에도 세대차에 대한 묘사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젊은이들과 세대 갈등을 빚는 기성세대들도 과거 젊은 시절에 그 당시의 기성세대들과 세대 갈등을 빚어왔었다.

세대 차이는 필연적이지만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따라 산다면 그 사회에 발전이 있겠는가? 반대로 기성세대가 제동거는 것으로 사회 변동의 속도가 조절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세대 갈등도 심해지며, 결국 더 강력한 힘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된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갈등 속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세대 간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구라는 행성이 멸망하거나 인류라는 종족 자체가 멸족되는 일 밖에 없다. 인류가 멸족되지 않는 이상은 대대로 평생 이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갈등의 당사자 한 사람이 죽는다 하여도 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어르신과 늙은이- 나이 먹은 것이 권력인가?

요즈음의 노인들은 수난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오십 중반이 되면 경제활동에서 퇴출을 당하고 알량한 퇴직금으로 뭐 좀 해 보려고 텀비다가 다 날리고, 노령연금에 기웃거리보니 수급 연령이 멀었다 하고, 어영부영 몇 년 만에 몰골은 원 없이 초라해지고, 드디어 꿈의 통장 국민연금 받아 보니 월 수령액이 50만 원도 안 된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든 모양인데 서로 손 내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얼굴과 손은 진즉에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늙고 몸뚱이도 성한 곳이 없으니 신경질만 늘어간다. 주위가 온통 못마땅하다.

요즘 육십은 노인 축에도 못 낀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는, 오십 좀 넘으면 그만 쉬라고 강요한다.

공직이나 학교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여 수백만 원 연금 받는 친구가 엄청 부러운 판에, 정년도 없는 의사, 변호사 등, 사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친구 녀석들은 한다는 말이 “나이 들어서 돈벌이는 안 되지만 그냥 소일 삼아 다닌다”고 하며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해대고 이래저래 열 받는

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대로 사는 것이지 그 몫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온화한 표정에 좋은 옷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지갑은 뽕뽕하고 건장한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노인이 되면 얼마나 품위 있어 보이고 좋을까만은 재벌 명예회장이나 되면 모를까, 이런 팔자를 가진 노인들을 주위에서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나마 제대로 된 연금이나 받아보며, 내 사무실이 있어 말 그대로 소일삼아 출퇴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말이다.

이 정도 되면 젊은 친구들과 부딪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설사 재수가 없어, 지나다가 상대의 발을 좀 밟는다 해도, 미안하다고 짧고 정중하게 사과하면 감히 싸우려고 달려드는 패륜적 행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몸도 마음도 인상도 더럽고 게다가 성질까지 더러운 독거(獨居)노인이거나 동거(同居)노인도 참 많다.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특히 노소 마찰이 심하여 종종 싸움질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이가 노인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노인의 언어폭력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듯하였다.

젊은 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살펴보면, 젊은 놈이 어찌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찌고, 예의도 없냐? 어른도 몰라보냐? 부모도 없냐? 싸가지가 없다는 등, 참 많다.

이런 말을 직간접으로 듣는 요즈음 세상의 젊은 사람들도 사는 것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처음 보는 노인한테 천박한 꾸중을 들어야

하는가이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야단치지 말고 자기 집 자식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 노인들도 젊었을 적에는 그 시절을 살던 노인들에게 똑같은 꾸중을 들었던, 싸가지 없는 짓 많이 하던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당시는 노인이 뭐라고 해도 감히 덤벼들거나 대꾸가 용납되지 않던 사회 분위기였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노인의 수가 훨씬 적기도 하였으니 동방예의지국의 경로사상이 통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무엇이든 희귀성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천덕꾸러기가 된 자신들의 신세가 엄청 억울한 모양이다. 이 나라를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젊음을 바쳐서 일 한 노인 세대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젊은 세대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것이, 왜 노인들은 심심하면 지난 과거를 들먹이며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 드는가이다,

일부 억지 주장이기도 하지만, 노인 때문에 젊은 세대의 일자리도 많이 뺏기고 노인의 복지를 위해 세금도 많이내야 할 것 같은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미 노인들을 연금이나 축내는 별레 취급을 하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다. 인터넷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너무 불편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글이 많아서 얼굴이 후끈거리는데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은 못 하고 은근히 상대를 깔보는, 마치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러 온 근로자를 보듯, 젊은 세대가 우리 노인들을 그들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

일방적 견해일지 몰라도 이제는 노인이 노인 값을 하려면 비록 젊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부모와 교육의 자울에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 보는 젊은 친구에게 반말도 하지 말고 혼잡한 시간에 전철을 탔을 때 혹 경로석이 만석이면 그냥 경로석 앞에 있는 손잡이 잡고 서서 가야지, 지쳐서 졸고 있는 젊은 승객에게 언어폭력으로 자리 양보받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 공짜로 타는 주제에 자기 돈 내고 타는 승객의 자리를 왜 탐내느냐는 얘기이다.

앞에 묘사한 재벌회사의 명예회장 수준은 언감생심이지만, 자리 보존하고 병치레하는 신세에 이르지 않았다면, 몸도 청결히 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밖에 나가서 좀 점잖게 돌아보자는 말이다.

나이 먹은 게 권력도 벼슬도 아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체력도 키우고 근력도 유지하여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이것도 모든 노인에게 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내가 힘들면 그건 내 사정이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이 먹은 것을 무기로 내세우려 하는가?

눈에 거슬린다 하여 참견하고 함부로 욕하려 들지말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리면 된다.

우리 주위에는 훌륭한 인격의 노인도 참 많지만 나 자신은 어떤 노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냥 어르신인가 아니면 늙은이인가?

슈베르트의 이발판

어제, 차일피일 미루던 이발을 하려고 퇴근길에 발 닿는 대로, 처음 가 보는 이발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다니던 동네 미장원이나 목욕탕내 이발소는 시간이 잘 안 맞아 평일에는 못 가다가, 출입문에 모범업소라고 쓰여 있는 눈에 잘 안 띄는 골목 이발관을 찾게 되었다. 문을 뚫고 열고 들어가니 손님은 없고 희미한 조명 아래, 빈 이발의자에 기대어 있던 체구가 비쩍 마른 슈베르트 모습의 이발사가 날 반기더니 앉으란다.

드디어 이발 시작, 아~ 미스터 슈베르트는 지체장애가 있는 분이셨다. 몸을 힘겹게 움직이며 내 머리를 가위질하는데 잔기침을 하면서 숨 쉴 때마다 고약한 냄새가 나서 참기 힘들었다. 좀 있으니 옆에 커튼 쳐 놓은 공간에서 후덕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한 마디 말도 없이 나를 단번에 꺾당 눕히고는 얼굴에 무지하게 뜨거운 물수건을 올려놓고 잠시 후 칼을 들었다. 그 면도사 아줌마에게서는 양념 닭발과 콩나물국을 섞어 먹은 듯한 냄새가 진동했다. 커튼 뒤에서 두 분이 무지하게 많이 드신 모양이었다.

나는 두 주먹에 힘을 주고 두 눈도 꼭 감은 채로 숨 쉬는 횟수를 줄여

가며, 냄새 맡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음악이 흐른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다.

밝은 조명과 깔끔하게 꾸며진 젊은 취향의 유니섹스 업소에서 어울릴 듯한 ‘아베 마리아’는 내가 이발 의자에 누워있던 그 시간, 천사의 인사가 아니라 두려움을 더하였다.

“아~ 왜 하필 여기에 왔나.” 순간 떠오르는 세 가지 희망 사항, 아줌마가 절대 트림을 하지 말고, 다른 손님이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것과 제발 실수로라도 면도칼이 내 얼굴이나 목에 상처를 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빨리 이발관을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급하게 요금을 내고 나오면서 문밖에 있는 접시를 힐끗 바라보니 쪽쪽 발라먹은 닭발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내가 그런 공포 분위기의 이발관을 갔었다니 후회막급이었다. 집에 와서 머리를 다시 감고 얼굴에 발라진 화장품도 깨끗이 씻어내고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나는 그 슈베르트 이발사의 솜씨가 아주 좋으며 단골손님도 많고, 권위있는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 첫 방문의 기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였기에 그날 이후로,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드는 단골 미용실을 정해 놓고 잘 다니고 있다.

이런 경험이 있고부터는 내가 근무하는 치과에도 자극성이 강하거나 냄새나는 간식은 아예 반입을 금지하였다. 그나마 우리 직원들은 양치질과 마스크 사용이 엄격하고 습관적이기에 다행이다.

슈베르트의 이발관을 다녀온 뒤로, 나 역시도 좋아하던 빠 없는 닭발

안주를 한동안 찾지 않았다.

2012년 4월 10일



墨井 作 <해남 이마도>

보훈병원에서

필자는 2년 전 어느 날부터 간헐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는 듯한 증상이 수 분간 진행되다가 없어지는 등, 협심증이 의심되어 내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꾸준히 약을 먹어왔다.

주치의의 지시대로 심혈관 조영 촬영 대신에 심장 CT를 찍었는데 아주 가벼운 관상동맥 외부 석회화를 보이는 협심증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하루 두 번만 약을 복용 중이며 더는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응급처치약으로 알려진 관상동맥 확장제인 '니트로 글리세린'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한편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병 등급을 준다기에 그간 치료받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준비하여 밀저 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고엽제 관련 검진을 받으러 보훈병원에 갔는데 내가 제일 건강하고 젊어 보였다.

나와 함께 대기하는 신청자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심란하였다. 난방도 어설픈 소강당 비슷한 곳에서 이미 늙어버린 역전의 용사들이 가득 모여 앉아서 번호 순서대로 호출되어 의사 1명(원래는 2명이라고 함)에

게 매우 사무적인 1차 검진을 받았다.

스텐트 삽입 등의 관상동맥 확장 기술을 받지 않은 단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진단이 없이 단지 고혈압 치료만 받는 경우는 등외로 판정을 하였다. 나 또한 정상이라고 하였다.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 몰라도 상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예방적 스텐트 삽입 기술을 받기는 싫었다.

그래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보훈수당이라며 월 3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니 덜 서운하다. 나 역시 언젠가 죽으면 고엽제 후 유증 등의 상이등급이 없어서 현충원에는 못 가지만 국립호국원에는 화장하여 안치시켜 준다는데, 혹 배우자가 먼저 별세하면 납골함을 외부 시설에서 보관하다가 남편 먼저 입장하고 나중에 받아준다고 한다. 그런데 호국원도 고객이 넘쳐서 만원이라고 하는데 어찌될지 잘 모르겠다.

아 참, 내가 사는 곳의 시청에서도 보훈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의 용돈을 보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고엽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월남전에서 정글과 사계청소를 위하여 미국 '다우케미칼' 등의 회사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사용되었던 제초제의 암호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를 일명 고엽제라고 하는데, 처음 사용할 때에는 이 물질이 얼마나 극심한 피해와 공포를 가져올지 잘 몰랐다. 이 고엽제 속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Dioxin)이 불순물로 생성되어 있었다.

한국군의 작전지역에도 엄청 많은 양의 고엽제가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통하여 무차별 살포되어 우리 참전용사들이 마시는 물은 물론이고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전신에 축적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국적과 관계없이 미군을 위시하여 모든 참전국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체내에 축적시켜둔 채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런데 적을 섬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뿌렸던 고엽제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부메랑이 되어 병명도 불명확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우리 노병들을 죽이고 있다. 또 그 자손들에게서는 유전적 결함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혹은 의심증이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질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현금 보상을 포함하여 각종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

때도 먼저 찾아서 맞는 것이 유리하다고, 처음 보훈혜택이 주어졌을 때 고엽제 환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심사에 통과되어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정보에 무지했던 지각생들은 등급을 부여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월남전에 다녀온 내 친구 몇 명을 소개한다.

친구 A : 월남에서 총 한 번 못 쏘보고 헌병으로 근무했다.

친구 B : 수송병으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트럭의 운전병이었다.

친구 C :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려주던 군종병(軍宗兵).

친구 D : 전투, 매복은 물론이고 정글용 칼을 들고 부대 철조망 주위 풀 베면서 경비행기가 뿌리는 하얀 분말, 바로 고엽제를 몸으로 맞던 졸병. 바로 필자임을 밝힌다.

이 친구들 모두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하였고, 훗날에 친구 A, B, C는

고엽제 환자로 등록이 되어 황금색 유공자 카드를 발급받았고 친구 D는 초록색의 등급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친구 D도 자신의 등급을 올려 보려고 보훈병원을 찾아갔으나 심장에 스텐트를 넣고 다시 오라한다. 친구 D는 일단 그냥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보훈병원 강당에서 추위에 떨며 검사를 기다리던 수많은 역전의 용사들, 그 늙고 힘없는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전용사들의 상이 여부를 떠나서 참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타 선진국에 버금가는 지원은 물론, 존경과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1월 17일

취객십경(醉客十景)과 소주 여찬

어제는 친구 넷이 모여 앉아 대방어회 안주로 소주 8병을 마시고 킥거리며 낙(樂), 설(說), 소(笑)하였다. 친구들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분위기 조절에 능하여, 혼자 취해서 좋은 만남의 분위기를 깨는 등의 주사(酒邪)는 없다.

대화의 주제는 거의 학창 시절의 추억담 아니면 손자들 재롱 이야기이며, 수십 년 전에 스쳐간 여인도 가끔 안주로 삼는다.

대전에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찾아와 번개 모임을 함께 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중국인들은 술 마시고 취하는 인간의 형태를 10가지로 집약하여, 낙(樂), 설(說), 소(笑), 조(調), 창(唱), 즉 즐기고, 얘기하고, 웃고, 어울리고, 노래하는 것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라고 하고 반면에, 노(怒), 매(罵), 타(打), 곡(哭), 토(吐),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울고, 토질하는 행태는 술이 술을 마시거나 술이 사람을 마시는 모습이라고 비유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의 주도(酒道)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일까?

내가 아는 중국 사람들과 조선족, 그리고 북방에 사는 러시아나 몽골

인들과 함께 술을 마셔 보니까 그들도 일단 취하면 잠도 자지 않고 대로를 해매면서 취객십경(醉客十景) 중 후자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감당 못할 친구들도 참 많았다. 결국, 술이 과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는다.

내 친구들은 두주불사(斗酒不辭)하는 애주가(愛酒家)가 많다.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뭉치면 떠들고 즐겁게 마시며 악동(惡童)이 되어 좋아하는 취객십경(醉客十景)의 전자를 보이고, 혹 후자 같은 징조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퇴출해 버린다.

아직은 술이 원인이 되어 하직한 친구는 없으니까 한편 다행이지만 이제는 양(量)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감한다. 서양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 같은 소주를 그간 참 많이 마셨다. 우리 젊었을적엔 진로를 비롯하여 삼학, 무학, 경월, 대선, 금복주 등 화장만 고친 소주들을 다 섭렵하고 작금에는 얼마나 많은 폭탄주(爆彈酒)를 마셨던가? 친구들아 이제는 조금씩 하자.

이제 현존하는 소주의 말언니 격인 진로(眞露)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희석식 소주공장은 1919년에 평양과 인천에 세워졌다가 별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24년에는 지금도 애주가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진로소주의 전신인 진천양조상회가 설립되었다.

진로의 이력서,

본명은 진로(眞露), 1924년 10월 평안남도 용강군 진천양조상회(眞泉釀造商會)에서 주정(酒精), 물, 첨가제를 주원료로하여 출생. 35도로 첫

인사. 1965년에 30도, 1973년에는 25도로 강도를 낮추고 1998년이 되어서는 본명인 진로의 순우리말 ‘참이슬’로 개명함과 동시에 23도로 강도를 더 낮게 조절하였음. 출생시에는 원숭이가 그려진 배내옷을 입었으나 성장하면서 두꺼비 셔츠로 바뀌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의 핵심 재료인 주정(酒精)은 쌀, 보리, 말린 고구마와 타피오카를 발효시켜 증류한 알코올 성분인 점을 밝혀둔다. 그래서 진로를 포함한 모든 소주는 화학주가 아니고 희석식 소주로 불린다.

소주의 도수가 점점 낮아 지면서 이제는 16.9도의 ‘진로이즈백’도 출시되었다. 그러나 술꾼들은 그것도 술이냐며 빨간색 소주 뚜껑을 변함없이 비튼다.

오늘도 영원한 연인, 참이슬은 우리를 기다리겠지.

2018년 11월 24일

빈대떡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이 기고한 글 중,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빈대떡의 어원과 유래’라는 제하의 글을 읽어보면, 빈대떡의 어원과 관련하여 대략 3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빈대떡이 ‘빈자(貧者)들의 떡’이라는 데서 ‘빈자떡’이 ‘빈대떡’으로 불렸다는 설이다. 사실 빈대떡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해방 후 남한의 서민들이 주점에서 안주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었다고 한다.

1940년경 우리 가요 중에,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왜 요릿집에 와서 무전취식하여 매를 맞고 쫓겨나느냐고 하는 해학 섞인 노래이다. 그 시절에는 빈대떡이 가난한 사람들 빈자(貧者)들의 음식이었음이 틀림없다.

다른 설 하나는 예로부터 잔치에 빈대떡은 필수였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빈대(賓對)’떡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방 후 종로나 남대문 일대의 빈대떡집에서는 백지나 신문지에 한자로 ‘賓對떡’이라 써서 붙이기도 했단다.

마지막 세 번째 설은 밀가루를 기름에 지진 중국 전병을 조선시대에서는 ‘빙자’라고 불렀고, 그러한 빙자가 ‘빈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어

학습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1517년)에는 ‘빙저餅(병)’이라는 해석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어떤 설이 정답에 가까운지 몰라도 모두 그럴 듯하다.

이러한 설에도 불구하고 빈대떡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전해 내려온다.

숙주나물과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빈대떡이 요즈음의 빈대떡인데, 광장시장에 가면 지금도 즉석에서 맷돌로 녹두를 갈아만든 반죽을 돼지비계를 문지른 철판에 부어 고소하게 구어낸다.

우리는 빈대떡이라고 하는데 중국 조선족 동포나 북한 사람들은 녹두떡 혹은 녹두지짐이라고 한다. 암튼 요즈음은 빈대떡도 별미 음식이 되어 미식가를 유혹하지만 제대로 된 빈대떡을 파는 곳이 그리 흔하지도 않다.

나이 좀 든 사람에게 피자과 빈대떡 중에 어느 것 먹겠냐고 물으면 아마도 빈대떡에 한 표 던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 년에 한두 번이지만 피자 한 조각을 먹고 나면 금방 김치국물이 그리워지는데 나만 그런 것은 아닐 터이다.

나는 집에서 마님이 만들어 주는 빈대떡이 광장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칭찬하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는 항상 빈대떡이 대기 중이다. 지난번 장모님 제사에도 가정표 빈대떡을 올려 드렸다. 북한이 고향인 장모님께 내년에는 더욱 고소한 빈대떡과 생전에 좋아하시던 냉면을 추가로 올렸으면 한다.

❁ 사(師), 사(士), 사(事)

요즈음은 인기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이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알려져서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바늘구멍만큼이나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예능이나 운동에 천부적 소질과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차선책일 수도 있다. 물론 재력이 뽕뽕한 집안의 2, 3세는 예외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덜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師) 사(士) 사(事)가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하는 편이다.

‘師’자 돌림 직업은 醫師, 藥師, 教師, 講師, 美容師, 理髮師, 呪術師 등이 있고 ‘事’자 돌림 직업은 道知事, 判事, 檢事, 監事, 刑事가 있다. 다음 ‘士’자 돌림 직업은 辯護士, 辨理士, 會計士, 稅務士, 技能士, 行政士, 鑑定評價士, 公認仲介士, 博士 등을 들 수 있는데, 師는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事’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직업’에 쓰이며, ‘士’는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타인의 행위를 도와주는 직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분이 참 모호하다. 또 다른 직업인 사(使)에는 외교관인 대사(大使), 공사(公使)가 있는데 영사는 領事로 표기한다.

의사나 약사에게 왜 스승 師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유래도 궁금하고 선비 사(士)를 사용하던 이발사, 간호사 외 여러 직업도 언제부터인가 스승 사(師)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선비보다는 스승이 더 품위가 있어 보일 수도 있기에 직업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였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간호사의 경우, 해방 전에는 간호부(看護婦)로 불리다가 해방 후에는 간호원(看護員)으로 바뀌어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간호사들의 반발로 간호사(看護士)가 되었는데 2년제 간호전문대학과정이 3년제로 승격하고 1972년에는 전국 국립대학에 4년제 간호학과가 개설되고 그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4년제 간호대 졸업생들은 직업 명칭을 통한 자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은 간호사가 ‘선비 사’자를 사용하는 ‘看護士’에서 ‘스승 사’자를 붙인 ‘看護師’가 되었다고 한다.

요즈음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아가씨’라고 불렀다가는 망신을 당하기 쉽다. 특히 나이 많은 환자들 눈에는 젊은 간호사가 선생님이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간호사님’ 정도의 호칭은 사용해야 대접받을 수 있다. 같은 간호사들 간에도 ‘선생님’ 아니면 신조어인 ‘쌤’으로 서로를 부르는데 감히 ‘아가씨’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미장원에 가셔도 미용사들을 선생님 또는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미용사의 ‘사’와 요리사의 ‘샤’도 ‘스승 사’를 사용한다고 하니,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의사(醫師)들은 과거에 비하면 ‘선생님’ 소리 듣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어떤 환자들은 그냥 ‘원장님’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간혹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다.

의사들은 수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환자에게 얻어맞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불가항력이든 과실이든 의료사고가 나면 별떼처럼 비난을 받고 잡뽀미가 되어 잡혀간다.

건강보험 진료비 좀 올려달라고 했다가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판에 그냥 응급실에서 과로사하는 의사가 되어야 참의사로 칭찬을 받으니 醫師의 師자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세상이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의사 외에도 詐(속일 사)하지 않고 邪(간사할 사)하지 못한, 그냥 사(師), 사(士), 사(事)로 불러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양심껏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

❁ 산사(山寺)의 봄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명성을 날리신 서산(西山)대사에 관한 이야기는 국사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일명 휴정(休靜) 스님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신데, 우연히 불교신문을 읽다가 스님과 관련된 여러 호칭을 알게 되었다.

속세에서의 이름은 완산 최(崔)씨 여신(汝信)이며 자는 현응(玄應)이라는 것과 청허(淸虛) 선사(禪師)라는 법호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물론, 중종 15년(1520년)에 출생하시어 인종, 명종, 선조 등 여러 임금의 통치시대를 살다가 1604년에 열반하셨다는 내용이다.

청허선사(淸虛禪師) 돈오송(頓悟頌)* 일부를 해석해 놓은 것 중에

慈悲是觀音 喜捨是勢至

嗔心是地獄 貪心是餓鬼

자비로운 마음은 관세음보살이요

* 돈오(頓悟) :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 문득 깨달음.

보시하는 마음은 대세지보살이다
성내는 그 마음이 지옥이요
욕심내는 마음은 아귀니라.

위와 같은 구절이 참 마음에 닿아 블로그에 저장해 두었다. 모친께서
는 신심이 매우 깊으신 불자이시며 신도회장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
영향으로 전 가족들이 모두 절에 다니며 부처님 말씀에 정진하는 것 같
은데 나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절에 가지않는 불
심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인한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용인(龍仁) 남사면에 규모가 매우 큰 선산을 장만
하시어 선영을 조성하고 농가 주택, 축사 등을 지으셨는데, 임야 일부를
정지 작업하여 가까운 스님을 통해 사찰부지로 기증하셨고, 그 자리에
절이 생겼으니 벌써 20년이 훨씬 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영원불변
그 절에 다닌다.

불교 방면에는 좀 무식하다 보니 절이 문을 여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
는지 몰랐다. 개원? 개업? 개사(開寺)? 오픈?

그런 날은 대웅전 부처님의 눈을 그려 넣는 점안식(點眼式)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하여 화분을 보내면서 ‘축 점안’이라고 리본에 써서 보냈
다. 그때가 꽃 피는 봄날, 바로 산사(山寺)의 봄이었다.

자비로운 마음은 관세음보살이요
보시하는 마음은 대세지보살이다

성내는 그 마음이 지옥이요
욕심내는 마음은 아귀니라.

내 주위에는 자비로운 척, 남을 위해 봉사하는 척하면서도 눈에는 욕
심이 가득해 보이고 자기 마음 못 다스리는 불자도 참 많더라.

부처님 앞에서는 참회와 번뇌를 고하고 밖에 나가서는 끝없는 욕심 때
문에 사랑하던 이들과 갈등을 빚을 바에는 아예 탈종(脫宗)하여 자유롭
게 욕먹으면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1.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헐... 아버님이 어떻게 나를 낳으셨단 말인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음양설에 의하면, 씨가 어
떻고 받이 어떠하여 부모님을 닮은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父兮生我(부혜생아)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母兮鞠我(모혜국아) 어머님 나를 기르셨으니
哀哀父母(애애부모) 애달픈 부모님이시여
生我劬勞(생아구로) 나를 낳아 기르시며 힘드셨네
欲報深恩(욕보심은) 깊고 넓은 은혜 갚고자 하나
昊天罔極(호천망극) 드넓은 하늘같이 끝이 없어라

〈시경(詩經)〉에 있는 원문이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히 없
기에 아무리 갚아도 다 못 갚는다는 내용이다.

옛 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너무 애절하게 표현하였고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도 값는 것도 마음만으로는 한 참 부족하다.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금상첨화이지 그렇지 못하면 서로가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데, 주로 못난 부모 만나서 자식 고생시키고 못 가르쳤다는 자조섞인 한탄이나 푸념이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못난 부모’는 능력이 없고 배움이 모자라며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보니 민폐나 주는 그런 부모의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다가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표현 중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와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느냐” 그리고 “너 같은 년(놈)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등의 원망섞인 말들인데 그렇게 뱉어 놓고는 서로 후회를 한다.

그러한들 DNA가 바뀌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부모와 자식 간이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다. 모든 사람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하듯이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선남선녀로 태어날 수는 없다. 일단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격장애나 정신 및 지체장애가 없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산다.

부모의 현재 모습이 좀 초라해 보여도 그 아들은 건장하고 잘 생긴 외모를 갖추고 딸 역시 늘씬하고 예쁘며 마음씨까지 착하다면 누구 덕분일까? 그러나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는 가슴 아파하고, 반대로 소위 잘난 부모라도 자식이 어딘가 좀 모자라고 외모에서도 밀린다면, 가슴 아프기는 양쪽 부모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 자식은 흔치 않다. 하늘이 시샘하는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

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거나 조금 일찍 데려가기도 한다.

2. 아름다운 외모도 거저 얻은 줄 착각하고 산다.

부와 권력, 명예를 기본으로 갖춘, 소위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인간들의 가족사에도 불행은 비일비재하다. 유명 영화배우나 TV 탤런트 중에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도 없이 고생만 실컷 하였으나, 고진감래 끝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의 외모나 끼는 어디서 왔을까?

바로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즉 몸을 주신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 유전자의 대물림도 옛날과는 달라졌다고 한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환경호르몬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규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콩을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었는데 썩은 콩을 심었는지 콩은 나오지 않고 잡초만 잔뜩 자라고, 어찌다 보이는 건 쪽정이뿐이고 팥도 마찬가지로이다. 집 안 청소하다가 마루틈에 끼어있는 콩알과 팥알 몇 개 골라내서 처마 밑에 휙 던져 버렸는데 어느 날 무심코 보니 새싹이 올라오기에 하도 신기하여 텃밭으로 옮겨 심었고, 거기서 잘생긴 콩팥이 열렸으니, 자칭 못난 부모가 잘난 자식을 싱글벙글 기특하게 바라보는 심정이다.

신체발부 어찌고를 화두로 삼으려 했는데 의도와는 달리 부모님 은혜를 먼저 강조하게 되어 본말이 바뀐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게 그거다.

성형수술(성형외과)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

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에 근사하게 교정해 주는 외과적 학문과 수술'이라고 정의한다.

원래는 재건(수복)적 개념이었는데 현대에서는 미용적 개념이 포함되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남녀 모두 예뻐지는 것과 날씬해지는 것을 추구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곳은 물론 은밀한 부위도 포함되어 그 종류도 참 많다.

의학과 성형수술의 발전은 더 이상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이니 불감훼상이 효지사야라'의 의미인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옛 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셈이다.

타인의 눈에도 과분해 보이고 배우자가 보아도 양호한데 정작 당사자의 눈에는 뭔가 부족하여 여기저기 칼질과 망치질을 받는다. 열 명의 타인 중에 일곱 명 정도가 불량 판정을 내릴 정도의 마음 아픈 외모라면 몰라도 양호한 몸을 주신, 부모님도 못 알아보게 만드는 성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주 참해 보이던 어떤 여성을 몇 년 만에 만났다.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초면이어서 민망하였으나 의학의 힘을 빌린 작품치고는 처음보다 훨씬 못한, 길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얼음공주의 얼굴이 되었음을 알고 실망했다.

문신은 미용의 일종이라는데 눈썹의 문신은 성형에 속한다고 한다. 눈썹이야 그렇다 치고 별별 곳에 다 문신을 한다. 온몸에 용을 새겨서 흉물스러운가 하면 팔다리, 어깨, 배꼽 밑, 골반, 허리 등등 참 다양하다.

그렇게 좋으면 뺨이나 이마에도 화살에 쏘힌, 하트 모양의 문신을 할 만한데 아직 얼굴은 침범 불가구역인가 보다.

성형과 문신은 이미 불감혜상 따위와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수지부
모 생각 말고 내 몸은 이제 더는 부모와 관련없는 내 고유의 것이라고 우
겨 보아도 내가 낳은 멀쩡한(?) 내 자식이 여기저기 뜯어고치고 머리, 어
깨, 무릎, 팔에 문신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은 어떻게 생각할지 몹시 궁금하다.

이제는 내츄럴, 자연 미인이 대접받는 시대로 회귀하려고 한다.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는 얼굴이 나이 들면 훨씬 예뻐 보인다. 큰 눈과 주위
피부가 축 늘어져 보이면 얼마나 늙고 처량해 보일지 상상해 보시라.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의 키를 엇가락처럼 마음대로 늘려서 속칭 쪽쪽 빵
빵 팔등신으로 만드는 성형은 없으니까 그나마 불감혜상의 체면이 선다.

❁ 아바나의 비둘기와 판타나모의 여인

경부고속도로 오산을 지나 평택으로 가다 보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0번 고속도로가 나온다. 그곳으로 진입하여 서평택 방향으로 주행, 잠시 후에 송탄(원곡)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면 멀리 한국재활복지 대학의 건물이 보이고 그 근처에 ‘원균 장군’의 묘가 있다.

원주(原州) 원(元)씨의 600년 세거지(世居地)인 도일동이다. 이곳에서 원곡까지는 약 2km.



원곡면 사무소

칠곡저수지부터 만세고개까지가 원곡 카페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수지 초입에 있는 건물은 현재 한정식집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일대 1호 카페로 오랫동안 운영되었으며 인근 평택, 안성, 용인, 오산 등지에서 많은 선남선녀가 찾아왔다고 한다.

나 역시 20여 년 전만 하여도 가족이나 지인들과 자주 찾던 곳이었는 데 세월은 사람의 취향과 정서도 바꾸어 놓고 귀찮다는 핑계로 거의 찾지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주변이 너무 많이 변하여 한참을 헤매었다.

지금은 시로 승격했지만, 과거 안성군 원곡면의 칠곡저수지 주변은 오래 전 부터 카페촌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다.

저수지 중간쯤에 ‘산다화’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야간에는 소규모 밴드나 가수들이 출연하여 라이브 음악을 선사하던 곳으로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사랑을 위하여’는 손님들의 앙코르곡이었다.

저수지를 끼고 3.1 만세고개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커다랗고 하얀색의 배를 개조하여 꾸민 ‘보물섬’ 카페가 있고 바로 밑에는 ‘춘하추동’이라는 음식점이 있었고 주로 오리 십전대보탕이나 닭백숙 같은 음식을 취급하던 토속식당이었다.

70년대만 하여도 여성의 취업이 힘들던 때인데, 그 당시 모든 고속버스에는 단정하고 상냥한 안내양이 있었다. 비록 스튜어디스로 불리는 항공기 승무원과 비교하기에는 요즈음 말로 스펙의 차이가 있지만, 가히 육상운송의 꽃이었다.

이곳 춘하추동의 여주인은 한진고속의 안내양 1호 출신으로, 친절함은 물론, 노래를 수준급으로 잘 부른다고 풍문이 자자하여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넓은 주차장 뒤편의 텃밭과 야산에는 여주인이 직접 심었다는 각종 채소와 옥수수 등 곡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있는데 여주인이 인사하러 왔다. 이목구비는 또렷한데 피부가 가무잡잡한 것이 분명 한국사람인데도 어딘가 이국적인 분위기였다. 아마 농사일을 열심히 하느라 햇볕에 그을려서 그러려니 하였다. 함께 간 친구들과 서로 통성명도 하고 잔도 부딪히다 보니, 약간 격동되어 정중하게 노래 한 곡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일행이 그런대로 풍취가 있어 보였는지 몰라도 즉석에서 한 곡조 뽑는데, 반주도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한이 서린 민요조이다.

그런데 노랫말은 우리 가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귀에 익은 ‘라 팔로마(La Paloma)’였다.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나의 마음 슬퍼 눈물이 흘렀네
사랑하는 친구 어디를 갔느냐
바다 너머 저편 멀고 먼 나라로
— 중략 —
사랑스러운 너 함께 가리니
내게로 오라, 꿈꾸는 나라로

비둘기를 뜻하는 라 팔로마(La Paloma)는 스페인의 작곡가 ‘이라디에르’가 여행을 하던 중에,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서 떠나가는 배를 배경으

로 하여 비둘기(Paloma)에게 실려 보낸 섬 아가씨의 순정을 그린 내용을 주제로 작곡한 하바네라풍의 노래라고 한다.

하바네라는 이탈리아의 '칸소네', 프랑스의 '샹송'처럼 쿠바 음악을 대표한다.

'춘하추동'의 여주인은 연이어 '관타나메라'를 부른다. 역시 한이 서린 목소리로... 하바네라가 한국 민요로 바뀐 것이었다.

'관타나메라'는 쿠바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호세 마르티(1853. 1. 28 ~ 1895. 5. 19)가 지은 시를 노래 가사로 사용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에 서는 많이 불리는 유명한 노래라고 한다.

관타나모는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로 얼룩진, 쿠바 역사 속의 아픔을 대표하는 지명이다. 그리고 관타나모에서 농사를 짓는 여인을 '관타나메라'라고 한다.

'춘하추동'을 나서면서 보물섬, 하얀 배, 관타나메라, 열창하던 여주인의 모습 등이 한 번에 오버랩되며, 이름 모를 산새들 속에 섞여 지저귀는 산비둘기가 유하는 곳 카페촌의 작은 쿠바에 다녀간다는 착각에 빠져 보았다.

애국가 논란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바뀔까?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국가의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애국가를 부르게 되는데,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애국가는 4절까지 제창하시겠습니까”라고 미리 요구한다. 이 상황에서, 유인물이나 영상화면이 제공되지 않으면 4절까지 다 암송하여 부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동남가이’를 연상하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데, 동-동해물과, 남-남산위에, 가-가을하늘, 이-이 기상과...애국하고는 별도로 어렸을 때부터 ‘동남가이’는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는 1901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명령에 의해 제정된 “대한제(제)국 애국가(大韓帝國愛國歌)’로 알려져 오는 데, 그 무렵에는 10여 종의 비공식 애국가가 있었고 한다.

상데(上帝)는 우리 황데(皇帝)를 도으사*

성슈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두(海屋籌)를 산(山)갓치 싸*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펼치사*
 오천만세에 복록(福祿)이 일신케 하*소서
 상데는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

홍문관에서 작사하고 왕립군악대의 지도자로 초빙한, 독일 해군 소속의 군악대장인 프란츠 에케르트(Eckret, Franz, 1852-1916)가 작곡했다고 한다. 광무 5년(1901년) 9월 7일, 경운궁 중화전에서 황제의 만수성탄진연(萬壽聖誕進宴)에서 초연하고 광무 6년(1902년) 8월 15일에 대한제국 애국가로 공식 제정된 것이다. 이 애국가가 한일합방 때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국가로 사용되었다.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 외에 현재 일본의 국가로 사용되는 ‘기미가요’의 작곡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잠들어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1907년 무렵부터는 윤치호 작사의 애국가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한(나라)만세” “바람 이슬(서리) 불변함은” 등,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그리고 별도의 작곡 없이 배재학당에서 부르던 애국가, 우리에게 ‘석별의 정’으로도 알려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곡조를 대체하였다고 한다.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군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애국가를 들어 본 기억이 날 것이다.

해방 이후로는 가사만 조금 바뀐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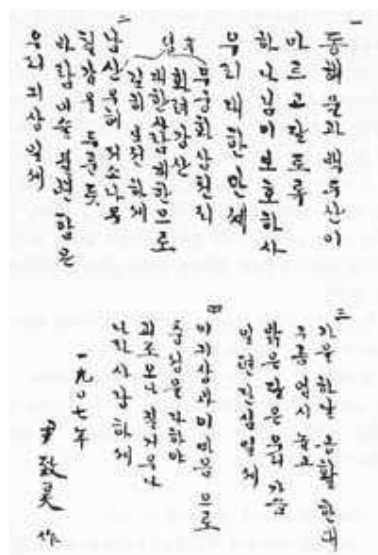
로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제 갈등이 생긴다.

애국가의 가사는 누가 만들었나
고? 친일파 윤치호라고 한다.

그럼 누가 곡을 만들었냐고? 안
익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기고문에
서 안익태 선생은 친일파를 넘어
친나치의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비애국한 선구
자들께서 만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있으니, 정부 공식행사에
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일부 정
치인들을 어떤 잣대로 보아야 할
지 혼란스럽다.

2019년 1월 15일



▲윤치호 애국가
윤치호가 쓴 애국가. 1907년 작사
한 것으로 현재의 가사와는 몇 군데
다른 곳이 보인다.

여성이 돌로 보이는가?

수년 전부터 전 세계에는 ‘미투’로 불리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 놓고 은폐되었던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해당 여성의 과감한 폭로와 고발 그리고 저항운동의 힘을 받아 홍역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옮겨 왔고 모든 영역에서 예외없이 터지는 저항의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랫동안 단절된 세상에서 홀로 살거나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특수 계층의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들은 신조어인 ‘#Me Too’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년째 몸살을 앓으며 발진이 좀 없어지나 싶으면 새로운 뉴스가 터지고는 한다. 너무 많이 자주 접하다 보니 느낌의 강도가 조금 무뎠진 것도 사실이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성차별로 인식되어 하나의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다고 한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면 1%의 진실 따위는 무시당하고 그냥 죄인이 될 각오를 해야한다. 많은 남성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알팍한 권력이나 권한을 무기삼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여성들을 돌처럼 보지 못하고 감히 갑질과 추행을 시도한 남성들이 1차 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이 되려면 윤리적 판단과 자기 제어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신체의 기능은 당연히 보편적이어야 한다. 모든 남성이 하나님도 부처님도 아닐진대 여성을 돌같이 보기가 그리 쉬운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과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부 성직자들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먼저 남자의 외형을 빚고 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남자 옆에 두게 하였으니, 그분의 의도대로 외관상의 성별을 달리하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마음’은 선과 악, 기본만 심어주고 나머지는 인간이 마음가는 대로 개척해 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다.

여기서 ‘마음’이라 함은 희로애락의 감정뿐 아니라 정신세계를 개발해 나가는 개인의 의지를 포함하는데 조물주께서는 이것까지 남녀 구분하듯 못 만들어 주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해 보라며, 정답도 없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초기화 상태로 하나씩 주었다.

사물을 보는 느낌도 인생의 가치관도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으며 낙관, 비관, 허무와 같은 비판적 상황이나 언어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남녀 간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과거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왕족이나 사대부 가정을 제외한 천민층 여성들 대부분은 그들의 욕구와 재능, 감정 등의 표출이 쉽지 않았고 남녀차별까지 당하면서 소리없이 살았다.

이 시절에도 권력형 ‘미투’는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오늘날과 다른 점은 당사자인 여성이 기녀이거나 몸종, 또는 하녀 정도로 국한되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혹 좋은(?) 상전의 눈에 띄어 은총을 받으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양성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성상위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성은 모든 면에서 약자에 속한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강도의 노동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신체조건에서 남녀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고 감정이나 정서의 흐름이 또 다른데,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일부 여성은 강철같은 신체와 정신력으로 몇 남성들을 압도하겠지만 그건 일부이지 평균이나 대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데, 조물주께서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한 신체로 설계하였다면 아무리 여성이 정서적으로 민감할 지라도 남성의 물리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펜스 룰(Pence rule)’이 잘못변형되어 또 다른 성차별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힐러리 클린턴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였는데 이유는 부인 외의 여성과 단둘이서 만나 밥을 먹거나 여행 같은 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목사님 자신과의 맹세였는데 성적 타락이 바로 신앙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이 성적 타락의 시발점이 되는지 몰라도 우연히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실천했다하니 결론은 오해이든 사실이든 공직자의 길에 흠집생기지 않게 ‘원천차단’ 하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다.

그래서 펜스 룰이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펜스 룰을 막을

방법이 모연하다. 많은 직장 남성들이 만든 ‘한국판 펜스 룰’의 요점은, 여자와는 가급적 대화하지 않으며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는다. 또한, 회식 때 여자와 테이블을 분리해서 앉고 노래방은 절대 동반하지 않는다. 여자가 반갑다고 먼저 껴안더라도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다.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해도 문서로 받고 허락한다는 등의 실소를 짓게 하는 내용들이다.

결국, 남성들이 여성들과 단둘이 일하는 것을 피하고 직장 멘토 역할도 사양하면, 성추행 등의 아픔답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겠지만 성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 내측(內側)을 읽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해야할 것, 금해야할 것, 배워야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내용 중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남녀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인즉 함께 있어도 되지만 한 이불에서 재우는 것은 아니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기교육을 받고 성장한 옛 분들도 지위와 부가 형성되면 축첩을 하고는 하였는데, 이것이 범죄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으니 그 가치관의 흔적이 현재에도 일부 남성의 의식 속에 숨어있는 듯하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본능임을 알지만, 이 욕망을 조절할 줄 알아야 존자(尊者, 聖人)의 반열에 오른다는 내용의 불교 법문 빈두라경(貧頭羅經)에서는 ‘감각기관의 문을 굳게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붙잡아 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눈이 어떤 대상을 보았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

야 하며 대상에 집착하면 탐욕이 생기게 되므로 항상 눈의 빛깔, 귀의 소리, 코의 향기, 혀의 맛, 몸의 촉감, 생각의 분별을 단속해야 욕망의 유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결국, 목석같은 사내가 되어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것이니 속세의 남성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조물주가 남성을 빚을 때, 머릿속에 자동감정제어기 하나만 넣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자체 해결하라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

매스컴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미확인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가짜 미투와 무고도 무죄 추정 원칙은 나중 문제이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까발리고 본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20년 전, 10년 전, 몇 년 전에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서 퇴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며 영원히 사라지기도 한다. 팩트 속의 남성도 나쁘지만 팩트를 가장한 여성은 더 무섭다. 처음 시작은 서로가 좋았으나 나중에 싫어졌고, 가깝다가 멀어졌다하여 서로를 '미투'라는 폭로성 도구로 엮는다면 더 이상의 양심은 없는 것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으니, 지금부터라도 못 남성들은 그저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가짐과 자기 수련을 통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건전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수밖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답답한 심정으로 꼬적거리는 나 자신도 진정 '건전한 인격체'와 '양심이 있는 인격체'의 의미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범인(凡人)들에게는 '한국형 펜스 룰'이 웃기고 치졸하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제사 유감(祭祀有感)

우리 집은 설날과 추석, 두 번의 차례는 물론이고 조부모님과 선친의 제사를 모두 절에서 지낸다. 원래는 다른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기제사는 밤에 모두 모여 전통 제사를 지냈었는데 바꾸었다.

집안의 장손이신 당숙께서 5대조의 제사를 모두 집전하셨기에 나는 어릴 적부터 시제와 고, 증조 부모님의 기제사에 동참하면서 집안의 제사 풍습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이것과는 별도로 바로 윗대 조부모님과 선친의 제사는 모친 사시는 곳에서 지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모친께서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자고 건의하셔서 그대로 따랐는데, 문제는 초입에 불경 읽는 시간이 너무 길고 순서도 모르니까 참석자 모두 ‘불교 의식집’이라는 책을 펴 놓고, 그 책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니 족히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었다.

그래도 한 1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큰며느리인 우리 집 사람 외에는 제사준비에 소극적이고 제사에 와서 밥만 먹고 가버리는 가족도 있기에 맘며느리라는, 아무 권한도 없는 직책 때문에 집안의 굿은 일만 도맡아 하는 집사람을 내 나름 옹호한답시고 불만을 터뜨리고는 하였고, 모친이 보기에는 이게 또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다. 모친께서는 제

사 문제로 집안 시끄러워지면 되겠냐고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차례와 제사는 절에서 지내자고 하시니 나도 또 따를 수밖에.

제사음식 준비하고 뒷정리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었으니 며느리들은 야호를 외쳤고 우리 집안의 제사는 그렇게 사찰의 대웅전인 법당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부처님 모시고 스님의 목탁 소리와 함께 108번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번의 절을 하며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불경을 따라 읽으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달리 제사에 참석하는 남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선 기일에 맞추다보니 거의 모든 제사가 평일, 그것도 오전 10시경에 시작하여 점심 무렵에 끝나는데,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이면 몰라도 직장 문제가 겹쳐서 도저히 참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모친과 며느리 몇 명 오고, 어쩌다 손자 손녀 한 둘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설날과 추석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섞여 합동 차례를 지내고, 스님방에 모여서 윗분께 절하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아직은 집안내 최고 어른이신 모친이 계시기에 기약은 못 하여도 향후, 나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기제사는 다 없애고 명절차례만 두 번, 절이 아닌 집에서 지내려고 생각중이다.

스님께는 매우 죄송스러우나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함자와 기일을 기억하고 절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 조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집사람이 절에 다녀왔는데, 우리 집안의

성인 가족 구성원 23명 중에 남성 1명 여성 5명이 동참하였으니 많이 참석한 것이다.



墨井 晝 〈겨울〉

늘 푸른이처럼 _

통신폭력(通信暴力)

‘폭력’이라 함은 위력에 의하여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즉석에서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한 폭력의 범주에는 가정이나 학교폭력도 있고, 조직 폭력배들에 의한 사회폭력은 물론, 언어폭력, 주폭(酒暴), 성폭력 등이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 통신폭력을 완곡하게 추가하고자 한다.

휴대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우선 메시지의 범람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팸을 포함하여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광고는 물론이거니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속칭 보이스 피싱까지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몰래 찍은 사진이나 음란물의 제작, 유포 행위도 당연히 통신을 이용한 폭력이다.

어디 휴대폰 뿐인가?

팩스를 통한 비은행권이나 사금융 업체의 대출 광고도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전송받은 팩스 용지는 아깝게도 그냥 버려지고 만다. 컴퓨터는 한술 더 떠서, 이메일을 열어 보면 음란성 메시지와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사기성 투자 권유 등, 별 볼 일 없는 내용이 훨씬 많다.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페이스북도 조심스럽게 활동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나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은 외국 여성으로부터 친구를 맺자는 알림이 온다. 국제 펜팔과 같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접근이 절대 아니다.

통신 매체의 발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보를 흘리면서 유혹과 기만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전화도, 컴퓨터도 없이 살 수는 있지만 되돌리기에는 물건도 사람도 너무 진화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카카오톡'이라는 한편 매력적이고 편리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이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카카오톡 친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마구 노출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쉽게 제어할 수 있겠으나, 나이든 분들은 디지털 문명에 취약하기에 정보 보호의 방법을 잘 모른다.

카카오톡은 상대방에서 메시지를 읽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기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은 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별의별 내용을 다 보내온다.

내 친척 동생 중에 술만 취하면 밤새 전화질은 당근이고, 뭘 말인지도 모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고약한 버릇이 있는 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술 취했다고 판단되면 나는 물론 전 식구가 전화를 꺼 놔야 한다.

우리네 정서로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 더는 통화하기를 포기하는데, 이 아저씨는 참 끈질기다.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한 것이 다음날 전화기를 켜올 때 증거 화

면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며 하는 말은 형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란다.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통신폭력이 아닌가?

만약 전화를 꺼 놓지 않으면 그날 숙면은 포기해야 한다.



밤새 걸려온 전화

❁ 취미도 파유불금(過猶不及)이다

너무나 잡다한 취미 생활을 섭렵하다 보니, 돈 들어가는 짓을 또 하면 쫓겨날 것 같다.

사진? 아직도 25년 전에 어렵게 구한 니콘카메라와 주변기기가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카메라 본체 말고도 여러 가지 줌, 광각, 어안렌즈 등은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 빌려 갔는데 돌려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신혼여행 사진은 물론, 우리 집 앨범에 있는 내가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이걸로 찍었다. 디지털카메라가 편리하기는 해도 옛날에 쓰던 아날로그 필름카메라도 운치가 있기에, 아들 녀석 신혼여행 갈 때도 원한다면 가져가라 해야겠다.

낚시? 내가 쓰던 물건은 모두 버렸는데도 창고에는 장인께 물려받은 유품이 잔뜩 남아있다. 장인어른 생존시에는 어른과 함께 전국의 저수지, 강, 유료 낚시터 등을 무지하게 많이 다녔다. 민물낚시는 기본이고 루어, 견지, 갯바위, 선상, 해외 출조 등.



미국 여행 시 총포사에서

평잡이, 멧돼지잡이 생활도 해 보았는데, 산사에서 성불하시는 분의 살생만류 교화에 힘입어 총소리 나는 연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내 손으로 살생하며 피 묻히기를 포기하였다.

스키장과 골프장은? 진즉에 은퇴하였다. 머리없어 주겠다는 위인들 쫓아가서 130타 쳤는데, 골프장 공식비용 전액 부담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야간에는 광란의 시간대를 위한 플러스 알파까지 정말 힘들었다.

그 후로도 필드에서의 내 기록은 110타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그냥 모든 홀마다 OK로 끝나버렸다.

스키 세트는 누구에겐가 줘 버렸고, 팔이 좀 짧다고 맞춤 제작한 골프 세트는 신발장 구석에서 천덕꾸러기로 굴러다닌다.

색소폰? 알토와 소프라노 2개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만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밤무대에 설 실력이 못 된다. 마음이 허전할 때 가끔

반주기에 맞추어 'Summer time' 이나 'Don't forget to remember' 를 연주한다. 그래도 예술고등학교에서 클라리넷 전공하는 작은 아들이 종종 불러대는 덕분에 좋은 음색을 유지해 주어서 다행이다.

아, 피아노와 기타는 자식들이 가끔 만지작대지만, 만돌린, 트럼펫, 북, 태평소 등의 악기류는 창고에 처박혀 있다.

애마 '생생'..지금쯤은 말들만의 하늘나라로 갔겠지만, 이 녀석에게 가족 모두 승마를 배웠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렸다.

스쿠바 다이빙은 라이선스를 판 뒤로는 베란다 선반에 장비 일체가 잠자고 있다.

그런데 또 발작이다. 6년 만에 미국서 온 큰아들은 얼굴도 익히기 전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며, 애



애마 '생생'



필리핀 세부(Cebu)

들의 모친되는 여인은 나팔수를 꿈꾸는 작은 아들의 학교가 있는 인천으로 가 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주말부부가 되었다. 나 혼자 외롭게 라면이나 끓여 소주 한 잔 마시며 1주에 5일은 홀아비가 되어, 이곳 소도시의 원룸에 살며 다람쥐 생활을 한다.

술? 남들은 나를 애주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학적 측면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음을 자인하면서 그래도 차별화를 원한다. 그 차별화란 밤과 낮의 행동 양상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음주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오직 야간에만 이루어지며, 시뻘건 대낮에는 항상 혈색 좋은 건강인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마음과 외관도 다스리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다.

캐논 XL2 디지털 캠코더, 미국서 영화 관련 공부하던 아들이 군대 가

며 맡겨 놓았는데 문득 호기심이 발동하여 꺼내 보았다. 이걸 한 번 배워 볼까? 허 참...

그러나 돈 들어가는 고품격 작품을 만들 계획은 없다.

어제부터 고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우선 '캠코더 촬영과 편집'이라는 교재에 밑줄을 그어가며 정독하고 있는데, 이론이 충분히 정립되면 테크닉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습작을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다.

2006년 7월



아들과 캠코더 / 진열장

타인의 벽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음음음 아! 하하(이하 생략)

‘타타타’라는 유행가의 가사이다.

우리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완벽한 신뢰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누구라도 가슴 속에 묻어둔 혼자만의 아픔이나 비밀이 있기에 구태여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 배려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추상적 개념의 영혼까지 교류한들 개체는 하나가 아니기에 거짓이 아닌 비밀이 있다하여 비난받지 않는다.

결국은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나 역시 너를 어찌 알겠느냐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타인이기에,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구태여 상대의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탈리아 영화 ‘완벽한 타인’의 국내 리메이크판을 보았는데, 부부와 친구 그리고 연인 간에 신뢰를 시험해 본다는 명목으로 소위 ‘스마트폰

통화, 메시지 까발리기 게임'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숨길 것 없으면서 속으로는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며 설마 부적절한 관계의 타인으로부터 통화나 메시지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각자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노심초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깨졌다. 너 나 할 것 없이 죄다 들통나고 변명하고 참으로 가관이었다.

결국은 서로가 몰라도 되는 불편한 통화 내용과 메시지로 인하여, 불신과 오해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마장 영화 같기도 한데 복잡한 인간 심리를 잘 표현해 주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과 우스개로 “너무 많이 알고 싶으면 다쳐”라는 농담을 하는데 맞는 말 같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인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일심동체가 어찌 분리될 수 있는가 말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일심동체는 쉽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한다.

부부도 엄격히 타인이다. 성별도, 이름도, 유전자까지도 완전히 다른 타인이지만 닳은 꼴로 만들며 살아갈 뿐이다.

가족도, 친구도 타인이기에 그 벽을 억지로 깨려하지 말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타인의 마음은 그대로 존중해주면 좋겠다.

2019년 1월 25일

팜므 파탈 왕수복

‘팜므 파탈’이란 치명적인 여인 혹은 요부(妖婦)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여러분은 혹시 왕수복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별이 된 왕수복을 아는가?

북(北)으로 간 여가수, 1930년대에 평안도 출신의 왕수복(王壽福)이라고 하는 그 시절 최고의 톱 가수가 있었다, 그녀 나이 17세에 기생 출신으로 가요계에 데뷔하여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어머나’를 불러서 초고속 유명해진 장윤정 급의 인기였다 한, 중, 일 3국을 거쳐 가며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한다.

여간첩으로 몰려 한강 백사장에서 총살당한 김수임과 월북 가수 왕수복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인터넷상에 사진이 있어 소상히 살펴보니, 우선 두 여인 모두 인물은 요즘의 잣대로 보면 그저 탱글탱글 오동통, 작달막하여 옛 사람들 눈에는 몰라도 내 시선에는 그다지 미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같은 세대였던 모윤숙, 노천명, 최정희 같은 옛 분들이, 상당히 우아하고 지적인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인생의 봄’, ‘고도(孤島)의 정한(情恨)’이라는 노래가 실린 음반이 무려 120만 장이나 팔려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길래 궁금하여 ‘고도의 정한’

을 들어보았다.

동시대의 가요였던 이애리수의 '황성옛터', 고복수의 '타향살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리고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등이 우리 귀에 한참 익어서인지 '고도의 정한'은 별 감흥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왕수복의 노래는 일종의 금지곡이어서 수십 년간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에 친근하게 느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잘 나가던 왕수복은 가수 활동을 접고 일본유학을 가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 1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당대의 문필가이며 모던보이의 상징이었던 이효석과 엮인 슬픈 로맨스이다. 왕수복의 나이 24세 때인 1940년, 도쿄에서 34세의 방랑객 이효석을 만난다.

이효석은 그 무렵 처자식을 모두 잃고 만주 땅을 헤매다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이 무렵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함께 귀국하여 평양에 거처하면서 본격적인 애정행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본처 죽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대놓고 만나지는 못하고, 왕수복의 언니가 운영하던 다방을 아지트 삼아 밀회를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1942년에 이효석이 뇌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왕수복이 임종을 지켰다고 한다.

이효석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수복에게는 운명의 장난 2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녀 나이 26세에 40살 먹은 같은 평안도 출신 유부남 대학교수이며 경제학자인 김광진과의 만남과 사랑이다.

김광진은 이효석, 유진오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데, 이 김

광진의 연인이 바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하는 ‘사슴 시인’ 노천명이란다. 노천명의 처지에서는 김광진이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랑 살기로 약속했는데 엉뚱한 기생년 출신의 판따라 왕수복이 중간에 끼어들어 연인을 뺏긴 꼴이 되어버렸다. 노천명은 열 받고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져 체면을 구긴 셈이 되었다.

왕수복은 노천명의 애인 김광진을 빼앗아 사랑의 승리자가 된다. 해방 후에, 김광진과 왕수복은 자기들의 고향인 평안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고향 찾아 북으로 간 거니까 월북(越北)은 아니고 귀향(歸鄉)인 셈이다.

김광진은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북쪽의 경제 전문가로 인정 받았고 왕수복도 가수로 컴백하여 명성을 날리며 북한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 되었지만, 남쪽에서 바라보는 눈은 따뜻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천수를 누리고 애국열사 국가 묘역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왕수복, 그 운명의 장난 2막은 성공한 듯 보인다. 오늘은 빛나는 붉은 별, 공훈 배우 왕수복에 관하여 끄적거리려 보았다.

❁ 홍어 잡살랴요?

1992년으로 기억되는 어느 가을날, 빗고을이 고향인 친구 K원장의 병원에서 조출한 모임이 있었다.

K원장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떠드는 이색적인 남도 사투리에 섞여 나 혼자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으나 동동주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곧 분위기에 빨려들었고, 난생처음 홍어회라는 것을 먹게 되었다.

그 전부터 여러 종류의 생선회를 즐겨 먹고는 하였는데 말로만 듣던 흑산도 홍어와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 한 점 입에 넣고 씹었을 때, 나는 저장을 잘못하여 상한 음식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쓰레기통에 뱉어 버렸다. 그 누구도 내게 홍어회의 특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아마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였다. 홍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배워 보겠다 작심하고 이름난 홍어 식당을 몇 번 다니다 보니 어느 날부터 나 자신도 중독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잠자다가도 누가 홍어먹자는 전화라도 오면 벌떡 일어나 반색하는 그리운 음식으로 둔갑하였다. 중국에서 온 사촌 동생에게 아무 설

명 없이 홍어회를 권했더니, 이 친구도 내 첫 경험처럼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뺏어 버렸다. 못 사는 데서 왔다고 자기를 깔보고 썩은 고기를 준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후일담 하였다. 그런데 이 동생이 지금은 홍어장국(애탕)에 밥 말아드신다.

결국, 홍어회를 비롯하여 홍어로 만든 모든 음식은, 처음 사귀는 게 어렵지만 서너 번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그 정은 중독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겉보다 속이 따뜻한 녀석인 듯하다. 목과 코를 자극하는 암모니아 냄새가 막힌 코를 뽕 뚫어주는 시원함과 달콤한 뒷맛을 느껴야 홍어를 먹을 줄 안다고 한다.

나는 홍어삼합 말고도 전, 찜 그리고 애탕을 즐기며 입천장 데일 정도의 강한 암모니아의 향과 맛을 찾아다닌다. 애탕에 두부 한 모 썰어 넣고 먹다가 라면까지 함께 끓여 먹으면 그 날은 뱃속이 참 행복하다.

민어나 대구 외에, 생선 대부분은 암컷이 수컷보다 맛있다고 하며, 홍어도 그렇다고 하는데 손질하기 전의 원형 모습으로 구별하면 모를까 먹는 순간에는 그저 싸하고 씹싸름한 맛을 음미할 뿐 암수를 알 수는 없다.

홍어 솟놈은 잡히자마자 두 개씩이나 붙어있는, 거시기를 잘라 버린다고 한다. 운반하거나 취급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는데, 거추장스럽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 또는 물건을 빗대어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한 글자로 표현)'라는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

내 치과에 다니는 15년 단골 환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경기도 남쪽 끝에 있는 P시에서 홍어 식당을 하시는, 말 한마디만 나누어도 금방 표시가 나는 뱃속까지 남도 사람이다.

얼마 전에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아직도 홍어 식당을 하신다며 진짜 흑

산도 참홍어도 취급하는데 잘 삭았다며 ‘원장님 홍어 잡살라요?’ 묻기에 당연히 좋다 하였고, 다음 내원시에 신문지와 비닐봉지로 여러 겹 둘둘 말아서 가져온 그 물건을, 창밖에 매달아 놓았다가 나만큼이나 홍어 좋아하는 한의원 동생이랑 맛나게 먹었다.



홍어식당 남촌/수원

오늘은 군대 동기생 세 명이 점심 약속을 하여 만난 곳이 ‘남촌’이라는 상호의 오래된 홍어 전문 식당이었는데,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유명한 음식점이다. 흑산도 홍어는 비싸서 몇 점씩 맛만 보고 칠레산으로 대신 하였지만, 음식도 좋았고 벗도 좋았으며 한 잔 술도 좋았다.

배불리 먹고 나올 때, 옷에다가 냄새 없애는 방향제를 뿌려주던 종업원도 고맙고 따스한 햇볕 들어오는 카페에서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씩은 낯설로 홍조가 된 세 사람의 입속을 깔끔하게 씻어 주었다. 아마도 흑산도 홍어라면 수정과가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 칠레산 홍어였기에 아메리카노와 궁합이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2019년 1월 26일

❀ 객지 벗 10년이라....

외국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나이 차이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통하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색이 동방예의지국인데 가능한지 모르겠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서열을 따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유유서의 개념이 몸에 덜 밴 서양놈들과는 달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고, 또한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배우게 되므로 위아래 무시하는 상스러운 인간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초등학생들도 겨우 한 학년 위의 선배에게 깍듯이 형, 누나의 호칭을 쓰고 대우하는 법을 익히며, 절대 야, 너는 물론이거니와 이 새x, 저 새x 같은 호칭을 쓰다가는 그 부모까지 도매금으로 후레자식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가며 인성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싸가지(?) 별로 없는 친구들, 아니 이상한 놈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좀 만만해 보이면 존칭이나 경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 정도를 넘어 분명히 상대가 연상임을 알면서도 적당히 반말 비슷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듣는 상대와 합석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인상을 주는데 이들의 주

장을 들어보면 ‘객지 벗 10년’인데 그깟 나이 차이 좀 나더라도 객지에서
는 친구가 될 수 있기에 친구간에 무슨 존칭과 존댓말을 쓰냐는 것이다.

참 궤변이다.

그렇다면 본인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하면서 친구로 지내자
고 하면 어떨 것이냐고 그 싸가지 별로 없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
두의 반응은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 이
기적인 발상이며 아전인수가 따로 없어 보인다. 객지 벗 10년이 과연 10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도 서로 반말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
니면 객지에서 만난 또래들이라도 진정 친구가 되려면 10년 정도는 교
류하며 친분을 쌓아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후자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든지 군대 동기 같은 경우라면 2~3년 나이 차이가
있어도 두리뭉실 친구 비슷하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비속어를 함부로 사
용하거나 야자를 하는 게 불편할 듯한데 그놈의 객지 벗 10년이 참 싸가
지 1도 없이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되었다.

어떤 싸가지 1도 없어 보이는 녀석 왈, 자기는 고향 선배 외에 객지에
서 온 사람들한테는 나이가 많아도 절대 형, 형님 등의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인지는 몰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 한참 어린
후배뻔 되는 아이들에게 반말 찹찹하다가 허벌나게(?) 얻어터지고 올 관
상이었다.

서양에는 위아래가 없을까? 존댓말의 표현이 우리의 그것과는 좀 다
를 수는 있겠지만 인간사회는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며 예절이 있다고 믿
는다.

그러한 서열과 예절이 없으면 인류와 동물이 공존하는 원시시대로 회귀함이 어울릴 것 같다. 그곳에서는 힘이 서열이고 힘에 복종하는 것만이 예절로 간주될 것이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데 토박이임을 무기 삼아 지방세 많이 내는 객지 사람들 차별하여 내쫓지 말고 너와 나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게 그리 어려운가?

존칭과 존댓말을 사용한다하여 개인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으며, 세금을 더 내라고도 않는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딱 보기에 연하 같은, 인상도 썩 좋지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거의 반말 수준으로 말을 걸면 기분이 몹시 상할 것이다. 한 성질 하는 사람은 금방 싸움으로 돌입하겠지만 혹 소심한 소시민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날은 그야말로 똥 밟은 날인 셈이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객지 벗 10년’은 10년간 잘 사귀자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일 터이고 혀 짧은 반쪽 인격체들에게는 원 없이 조롱받아도 좋다는 본인만의 오역(誤譯)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 목사님과 환속(還俗)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참 애매하다.

스님이 승직을 버리고 속세로 돌아가면 ‘환속’이라고 하였는데 요즈음은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환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목사님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경우는 환속도 아니고 파계(?)도 아니고 무엇인가?

그냥 목사직 포기 아니면 반납이라고 해야할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요즈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화려했던 전성시대는 이미 요단강 건너갔다고 한다.

하για 자고 일어나 보면 교회와 치과 그리고 편의점만 잔뜩 생겨나니 신도와 환자, 손님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며 하물며 개척교회를 꾸려나가는 목사님들은 교인도 별로 없고 헌금도 빈약하여 이미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형국이다.

너무 힘들어 사목의 길을 접고 다른 직업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

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환속한 셈이다.

물론 짙짙한 기업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경제적 빈곤과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목사님도 잘린다고 한다.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이면, 대부분 징계 절차에 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므로 목사님이 교단에서 잘리면 평생 목사직을 못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하위 교단으로 옮겨서 그럭저럭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도 잘 모른다.

유신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총경(전)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었으나 부적절한 언행이 죄가 되어, 본인을 목사로 만들어 준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내뱉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의식해서인지 혹은 국민의 질책이 무서웠는지 몰라도, 이근안 목사는 본인이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애국자였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지껄인 것이 교단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 이유가 되어 고생해서 얻은 목사직을 박탈당했으니 쪼다가 따로 없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나 김근태 전의원에 대한 혹독한 고문, 기타 시국사건과 무관하게 진짜 남파 고정간첩만 때려잡는 이근안이었다면, 그 당시 반공 정권에서는 애국자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을 법하겠다.

내 기억 속에 아련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우상범’ 목사님-나는 1964년도에 장로교 교단에서 세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학교의 교목이 바로 우상범 목사님이셨다. 이분은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체육 선생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목사님

이셨다.

어느 날 멕시코로 선교 파송을 나가셨으며 그 후로는 잊고 지내다가 몇 년 전에 별세하셨음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목사님의 죽음을 부활로 연계하기에는 감히 두려우니, 그렇다면 자연으로의 환속일까 아니면 천국으로의 환생일까? 그냥 소천(召天)이 맞는 것 같다.

1인칭 표현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몇 번 써먹어야겠다.

내가 존함을 알고 있는 목사님은 탤런트 문성근씨의 부친이신 문익환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 순복음 교회 조용기, 최자실 그리고 한세대학교의 김성혜 목사님 정도이다. 그리고 신록사의 세영 스님과 우리 가족이 다니는 절의 정호 스님 외에는 스님과의 교류도 빈약하고 유명하다는 큰스님의 범명조차 많이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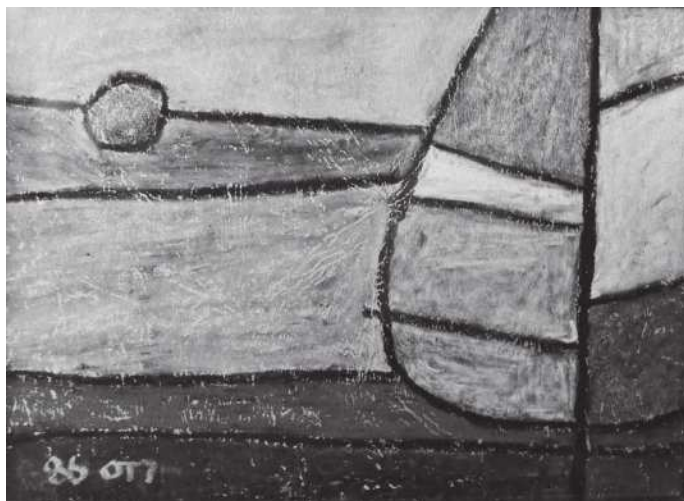
원래 내 성격이 꼬여서인지 성직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꺼리기에 선후배 중에 목사님들도 꽤 많은데 말싸움이 두려워 아예 교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공대를 졸업하고 철도원 생활을 하다가 방통대에 편입하여 법학을 공부하고 고시 도전은 실패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이 되어, 용맹을 떨치다가 퇴직한 뒤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돈도 많이 벌더니만 법학박사가 되었다. 참 파란만장한 풍운아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이 오십이 다 되어 시니어 권투선수로 데뷔를 하였고 어느 날, 목사님으로 변신하여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개척교회를 몇 년 하다가 접었으며 그즈음은 그냥 법무사 일을 다시 한다고 하였다.

음주 가무를 공유하던 사람이 변신하여 내게 찾아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내 비록 신심이 얕아도 산사에 출입하거늘, 피차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단칼에 잘랐더니 그 후로는 무소식이다. 목사직을 계속하는지 환속하였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고 스님이고 간에 교회도 싫고 절이 싫어 떠나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만 그분들이 품었던 사랑과 자비의 마음만은 환속(還俗)을 허(許)하는 자연의 풍광과 함께 오래 간직되었으면 한다.



墨井 畫 〈여름〉

❀ 조문(曹文)과 조문(弔問)

광화문 가는 날

친구들과 합류 계획이 있어서 병점역 11시 9분 발 급행 전철을 타기 위해 집사람이 역에 데려다주었다. 후문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 보니 전철 도착시간이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 아뿔싸, 지갑을 안 가지고 왔으니 어쩌면 좋아. 집사람에게 지갑 좀 가지고 다시 와 달라고 전화를 하고, 엘리베이터 옆 창문에 기대서 다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성 미화원이 다가와서 대뜸 시비를 거네? 왜 가래침을 뱉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런 적 없다고 항의를 하였지만 자기가 아래층에서 봤다고 하는데 순간 열 받아서 뒤로 넘어갈 뻔했다.

뭘 미화원이 이렇게 거칠고 공격적인지,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 외에는 누가 여기 창문에 있냐는 거였다. 아래층에서 내가 침 뱉는 걸 보았단다. 순간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명색이 치과의사라고 하는 내가 공공장소에서 가래침을? 아무리 부정해도 눈을 부라리며 사과도 없이 돌아서는 미화원님.

완전 아니면 말고다. 지갑 받으러 아래층에 내려가고 또 들어오는 급

행열차를 타려고 뛰다보니, 이 미화원에게 한마디 사과받을 기회가 없었다. 줄지에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기분 더러운 날.

CCTV라도 확인하면 되겠지만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과 그 미화원님의 생계를 위한 고충을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개천절 낙수

종각역 출구는 엄청 혼잡하였고 세종로 사거리로 가는 길도 늘어난 인파로 복잡하였는데 교보문고 옆길은 사람이 꿈쩍달짝 못 할 정도였고 압사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되돌아와서 옆 골목을 종횡무진하며 역사박물관 근처까지 진격하였다. 참 덥다. 확성기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혼합되어 들리니 어느 집회에서 누가 말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러함에도 장승처럼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결의에 찬, 애국 신념을 가진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잠시나마 여러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찌다가 이 나라가 개판이 되었는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의는 지켜야 하건만.

청와대로의 행진은 포기하고 지인을 뵈러 터벅터벅 걸어서 낙원상가 지하 주점에 가니 젊은이들은 외면하겠지만, 노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천국과 같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주점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다. 세 명이 막걸리 두 병, 소주 두 병, 머리 고기 한 접시, 떡만두국까지 시켜먹고 19,500원 내고 나왔다. 집으로 오는 전철에서, 국가공인 노인증(전철 무료승차권) 소지자가 앉을 권리가 있는 자리에 당당하게 비비고 앉아 졸다보니 수원을 지나고 있었다.

가훈(家訓)의 대물림

가훈은 한 집안의 행동과 윤리의 규범이며 평생의 이정표일 수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는 사훈이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학문과 인성을 익히고 배우게 되지만 자녀 교육의 기반은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를 비롯한 가정 구성원의 언행을 통한 상호 존경과 숭선수범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려 주는 지표가 바로 가훈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같은 가훈을 자손 대대로 변함없이 사용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대(時代)와 세대(世代)에 어울리는 상큼한 가훈으로 바꾸는 가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훈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한다.

특별한 가훈이 없는 가정에도 마루나 응접실 벽에 ‘家和萬事成’이 새겨진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각 가정의 전통과 가풍을 나타내는 다양한 가훈이 존재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유교적 개념의 사자성어들이 가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집도 별다른 가훈이 없었는데 아버지 칠순날, 형제들 모두 가훈이 적힌 액자를 하나씩 하사받았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성인(聖人)의 말씀을 잊지 말자.

인내(忍耐)는 쓰나 그 열매(實)는 달다는 위인(偉人)의 말씀을 잊지 말자.

과욕(過慾)은 실수(失手)한다는 철인(哲人)의 말씀을 잊지 말자.

노병(老兵)은 죽지 않는다는 맥아더 장군(장군)의 말씀을 잊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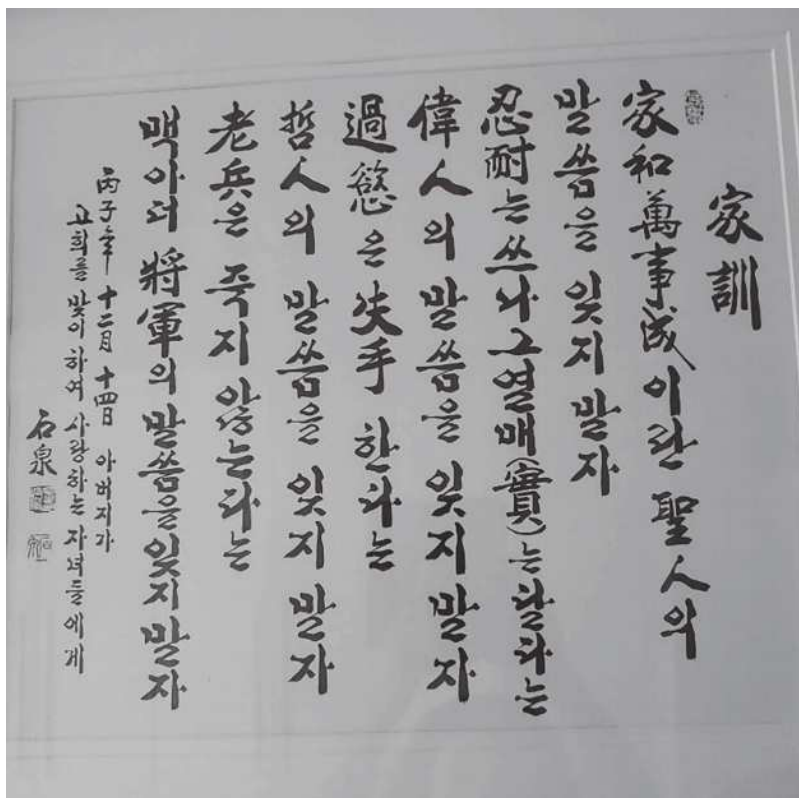
병자년(丙子年) 12월 14일 고희(古稀)를 맞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라는 추신과 어느 서예가의 낙관이 찍혀 있었다. 우리는 이 하사품을 지금껏 걸어놓고 지낸다. 그런데 나도 고희가 가까워지면서 문득 느끼는 것이, 나 자신도 지금까지 우리 집 가훈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한다는 사실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긴 가훈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그 답은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은 모름’이 정답이다. 그래서 액자를 가득 채운 글자들을 좀 단출하게 정리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귀결된다.

1.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2. 고진감래(苦盡甘來)
3. 과욕초화(過慾招禍)
4. 노마지지(老馬之智)

위의 말씀들을 하나씩만 빌려와도 충분히 가훈이 될 듯한데 선친께서는 그야말로 ‘家訓’에 관하여서만은 과욕(過慾)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형제들 가정에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선친께서 주신 가훈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고진감래(苦盡甘來), 과욕초화(過慾招禍), 노마지지(老馬之智)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한 개씩만 가지라 하고 남는 것은 내가 간직하며 가화만사성을 꿈꾸련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는 ‘가훈’이 없어도, 그 시절을 살아갈 당사자의 올바른 언행이 가훈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면 좋겠다.



사면곡(思麵曲)*

집사람이 큰아들을 임신하고 한참 배가 불러있던 어느 날, 우리 새내기 부부는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에 있는 당시로는 꽤 유명했던 냉면집에 갔다. 아내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못 먹고 힘들게 지내던 때 였는데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여 당장 사먹으러 갔다. 그저 뭔가를 먹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우리는 각자 냉면 한 그릇씩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라는 덕담을 하자마자 정신없이, 국물까지 먹어 치웠다. 그런데 나만 다 먹었지 아내의 그릇을 보니 절반은 남아있어서, 실제로는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는 줄로 착각하고 아내 몫의 냉면을 덥석 젓가락으로 집어서 내 빈 그릇에 옮겨 놓고,

“왜 입맛이 없어? 남기면 버려야 하니까 내가 먹을게”하고는 게눈 감추듯이 다 먹어 치웠다.

* 사면곡(思麵曲) : 국수(麵)를 그리워함. 사모곡(思母曲)과는 달리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트림까지 하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빈 냉면 그릇을 바라보며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기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자신도 임신하고는 처음으로 입맛이 당겨서 먹어보는 냉면인데 너무 맛이 좋기에 음미하면서, 아껴서 조금씩 먹는 중이었단다. 이걸 남편이라는 도둑놈한테 즐지에 빼앗기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걸 참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해서 한 그릇 더 시키려고 하니까 이미 입맛이 사라져서 싫다고 하였다. 이때만 해도 아내는 내가 어려워서 덤비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여린 여인이었는데 현재 아내의 모습은 그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

이 에피소드는 그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의 나이가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쯤지도, 냉면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방송되는 냉면 강탈의 역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무엇을 먹던 절대로 탐내지 않는다.

나는 냉면 외에도 소위 ‘국수’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 어찌고를 떠나서, 살찌는 것 뻔히 알면서도 좋아하는 음식 랭킹 1위이다. 지금도 하루 한 번은 국수 종류의 식사를 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다.

내가 즐겨 먹는 국수라는 이름의 음식을 열거해 보면, 1위는 당연히 냉면(평양냉면)이며 2위는 수타 자장면, 3위는 일본식 판 메밀, 4위는 비빔국수, 5위는 바지락 칼국수, 기타 짬뽕, 멸치국수, 수제비, 메밀막국수, 일본 우동, 부산 밀면, 스파게티, 파스타 그리고 마지막은 컵라면이다.

나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박사 냉면과 서울 종로구 송인동의 깃대봉 냉면을 좋아한다. 바지락 칼국수는 대전 선화동 먹자골목에 있는 30년 전통의 청양 칼국수가 일품인데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아서 나한테는 형

님과 같은 동창생 친구가 여기 주인장이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밀가루 반죽을 하고 숙성시킨 면을 뽑는다.

인천예고 정문 옆에 허름한 자장면 가게가 하나 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곳 수타 자장면은 정말 맛있다. 외부에서 출강하는 예고 강사들은 강의보다는 자장면 먹는 즐거움으로 학교에 온다고 하였다.

내 작은 아들의 실기를 지도해 주던 선생님도 우리 집에 오자마자 그 자장면을 먼저 시켜 먹어야만 수업을 시작하였다.

천안 조금 지나 신창휴게소에 가면 냄비 우동과 가락국수가 아주 맛이 좋다.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평가도 다르겠지만, 모 편의점에서는 ‘송탄 영빈루 짬뽕’이라는 즉석 컵 짬뽕을 파는데 그 맛도 제격이며 실제로 ‘송탄 영빈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화교(華僑) 가족이 운영하는 짬뽕집이며 문전성시를 이룬다.

전국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맛집이 있고 그 중 평양, 함흥 전통면옥(傳統麵屋)을 자처하는 냉면집도 즐비하지만, 차림표가 단순한 면옥(麵屋)의 냉면 맛이 더 좋은 것 같다.

오늘은 장마의 영향 때문인지 종일 비가 쏟아질 기세이다.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 보다, 직원들과 함께 우리 동네의 명물 ‘통채 칼국수’를 배달시켜 먹어 보는 것도 운치가 있겠다.

2020년 7월 22일

❁ 그들의 인생, 3인 전(傳)

첫 번째,

돌과 술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프에 미치고, 그 혈관 속에는 예술이 잠자고 있었네.

그 친구의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아양을 부리는 모습이나 태도’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에 나는 그냥 ‘돌’로 호칭하려고 한다. 돌의 신체적 특징은 보통 체형에 머리숱이 좀 적고, 대신에 팔과 다리(손등, 발등)에는 털이 무수하다. 참, 가슴도 서양 사내들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

돌은 원래 돌 작업을 하던 석공이었는데 여기저기 공사판에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나랑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에도 일거리가 많아서 늘 바빠 다녔는데, 혹 일 없는 날은 아침부터 쥘 종일 술을 마셔대고는 하였다.

겨울철, 수렵 기간이 되면 산에 가서 멧돼지, 꿩 잡아서 술안주 삼아 실컷 마시면서 산도적 같은 생활을 즐겼다.

그가 마셔대는 술의 양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말술이었다. 그런 그가 술 마시기를 잠시 쉬더니 골프를 배우겠다고 연습장을 다니기 시작했

는데 새벽에 출근하여 연습장 문 닫을 때까지 골프채를 손에서 놓치지 않고, 밥 시켜 먹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연습에만 몰두하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필드에 머리 얹으러 가서 싱글을 기록하고 왔으니, 돌은 미친 놈이 맞다.

젊은 시절에는 돌 일하며 말술을 퍼 대고 골프에 미치더니만, 환갑도 못되어 허리가 망가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바싹 늙어서 주위 친구들보다 20년은 더 들어 보인다.

돌이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한문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돌이 오랫동안 안 보인다.

여러 해가 지나서 우연히 길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는데, 돌의 본명이 적힌 전국 서예대전 대상 축하의 현수막이었다. 믿기지 않아서 다른 친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사실이란다.

한참 더 지나서 만나게 된 돌의 외모는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간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 시술도 몇 차례 받았고, 술은 냄새도 안 맡는다고 한다. 서예가로 이름을 얻고 나니 제자도 많이 생겨서 교습소도 운영하며 스승의 길을 걷는다고 하였다.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골프와는 이별하였기에 가벼운 산책으로 운동을 대신한다고 하는 돌의 모습과 표정은, 그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지나온 인생길만큼이나 허무해 보였다. 그래도 돌은 이제 영원한 예술가이다.

두 번째,

홍가이버라는 별칭을 가진 친구가 있다. 남양 홍(南陽 洪)씨이며 손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내가 붙여준 멋진 이름이다. 홍가이버 손에 들어가면 죽은 생명체 외에는 거의 소생한다.

이 친구는 머리숱이 아예 없어서 가발을 쓰고 다닌다. 우리 집 작은 늬이 어렸을 적에 홍가이버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이 녀석이 홍가이버의 머리를 별안간 쓰다듬으며 “야~ 반짝반짝 빛난다. 썰매 타면 좋겠군”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 모두 민망하고 웃음을 참느라 혼났는데 홍가이버 당사자는 꺄꺄 웃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내가 사귀어본 홍가이버는 머리 외에도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를 일부 느끼는 것 같았고 여럿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도 누가 혼자 잘난 척하면 중간에 욕설이 튀어 나와서 말한 사람이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홍가이버, 이 친구는 가끔은 과격해도 마음이 천사이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장비가 고장나면 나는 항상 홍가이버에게 SOS를 보내며, 그는 즉시 와서 한번 뜯어 보고는 금방 고쳐주니 그야말로 홍가이버가 아닌가? 우리 집에 있는 고장이 난 운동기구, 선풍기, 문짝도 죄다 살려 주었다.

이 친구는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겪었다. 그것이 아픔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독거노인으로 살 줄 알았던 친구가 새 짝을 만나서 10년 넘게 잘 살고 있다. 홍가이버가 왜 첫 부인과 헤어졌는지 그 연유를 내가 적을 필요는 없다.

빈 털털이가 된 홍가이버는 고난의 길을 오래 걸었다. 생활고를 위하여 강원도 산꼭대기의 송전탑 설치 공사에도 수개월 가 있었고 건물 철거 공사 등, 험한 일을 도맡아하며 돈을 벌었다. 그다지 사교적이지 못하고, 친

구도 거의 없는 홍가이버에게 돈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은 언감생심, 그저 콜라텍이나 카바레 같은 곳을 섭렵하며 춤도 배워 보고 혼자 즐기는 생활에 젖어 있던 중에 동병상련의 연상녀를 만나서 제2의 삶을 산다. 아마 혼인신고도 한 모양이다. 그 나이에 두 사람 모두 몸과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죽고 못 산다하니 가히 할 말이 없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단다.

그의 꿈은 소박하다. 지금 월급을 받는 회사의 마을버스 운전을 1~2년만 더 하고 은퇴하여 캠핑카를 만들어서, 그 차에 살림살이를 싣고 지금의 짝과 함께 전국을 유람하는 것이란다. 나는 홍가이버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 캠핑카에 관심이 무척 많은데, 내가 빌려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빌려줄 홍가이버이기 때문이다.

치과 화장실 변기 틈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직원이 알려 왔다. 그리고 홍가이버에게도 이미 연락했다고.

세 번째,

동명이인(同名異人) 친구,

예향(藝鄕)의 고을, 아니 이제는 도농복합이 된 안성(安城)에 가면 동명이인 벗이 한 명 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 말고도 많은 사연을 가진 내 친구이다.

나는 1967년에 고교 신입생이 되어 영등포역에서 용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영등포역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바로 옆에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학생이 서있기에, 어느 학교 다니는 녀석인지 궁금하여 슬쩍 자리를 옮기는 척 하

며 근육맨의 위아래를 훑어 보았다. 그저 알만한 사립학교의 교모를 쓰고 교복을 입은 이 친구의 명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어쩌면 나하고 이름이 같은가?

이 친구도 동시에 손가락으로 내 명찰을 가리키며 놀라는 것이었다. 우리 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비록 다니는 학교는 달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역에서 통학하는 같은 학년의 동명이인이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서로 많이 다르다. 이 친구는 법무부장관 비서실에서만 22년 4개월을 포함,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여 고향인 안성시청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을 내고 부인이 사무장을 하며 딸린 직원도 꽤 많은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잘 꾸려 나가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다.

이 친구는 공직생활 중에도 나름 고향인 안성에 인적, 물적 공을 들이면서 본인의 카리스마 기질을 발휘하였고 퇴직 후를 구상하였던 것 같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과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는데 이 친구는 퇴직하자 바로 정치판 구정물에 발을 담그고 당시에는 인기도 없던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총선에서 두 번 떨어졌다. 주위에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아니면 시장으로 먼저 출마해 볼 것을 권유하였지만 이 친구는 오직 중앙무대로의 직진만을 고집하였다.

친구의 또 다른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까지 꾸준히 총동문회장을 맡아 봉사하였고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셀 수 없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마당발이다. 그리고 그 마당발은 친구 자신보다는 대의를 위하여 뛰어다녔고 현재도 진행형

이다.

아무튼 세월은 잘 흘러간다. 그도 나도 이제 꼳꼳한 허리의 노인이 되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열정(熱情)은 덜 식었고 새로운 청춘(靑春)이 유혹하고 있다. 내 친구와는 안성과 오산, 평택에서 번갈아가며 자주 만나는데 그 역시 두주불사의 백발도인(白髮道人)을 과시하며 두 사람 모두 酒님의 제자를 자처한다. 친구가 누구한테 사사 받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음주 방법과 제조 기술을 가끔 선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친구가 보여주는 멋진 행위 예술에 놀라서 모두 뒤로 넘어간다. 그와 함께 술 마시면 항상 즐거운데 양이 과한 것이 조금 문제이다.

친구는 오늘도 바쁘다. 나는 가능한 사람 많이 만나는 모임을 피하는데 반하여 이 친구는 오늘도 내일도 사람 만나는게 즐거운지 싱글벙글이다. 친구의 수첩에는 1년 내내 일정표가 꽉 짜여있다. 어찌겠는가?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은 친구의 인생을.

이 친구는 과거에 싸게 매입한 저수지 근처의 땅값이 경충 뛰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없다고 좋아한다. 친구야! 그런 거 자랑하면 나 열 받는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가고 있다.

동명이인 내 친구는 공무원 연금 외에도 모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위촉되어 활동비도 별도로 받는 모양인데 이왕 정치판에 미련을 버렸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친구가 아끼던 맑은 저수지 근처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부인과 손잡고 둘레길을 산책하여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에필로그

늘 푸른이처럼



에필로그

막상, 脫稿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에는 '回顧錄'으로, 그다음에는 '隨想錄'으로, 만들어질 책자의 가락을 잡았으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욕심과 어색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身邊雜記와 흡사한 散文集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을 보니,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글은 쉽고 재미있게, 간결하게 써야 읽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믿어 왔는데, 내공이 한참 부족한 필자의 글을 받아주실 내 주위 知人들께서는 책자의 모양새나 내용에 앞서, 벌써 古稀가 되어 버린 나에게 그저 호기심 가득한 격려를 보내 주면 고맙겠다.

내가 사용하는 아호, '忠海'는 아버지께서 지어 주신 내 어릴 적 이름이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충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향렬에 따라 '丙鎬'로 호적과 족보에 올렸다고 한다.

구룡포 우체국 관사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창밖에 보이는 보름달과 드넓은 겨울 바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청년 장교, 아버지로부터 '충해'라는 이름을 얻었고,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이 좋다. 20여 년 전, 로타리클럽에 입회하고 보니 회원들이 본명이나 직함 대신에, '號'를 사용한

다 하여 주저 없이 내 옛 이름인 '충해'를 등록하였다.

『늘 푸른이처럼』은 이 책자의 제목이며 20년 가까이 애용하는 내 개인 블로그의 제목이기도한데 '푸른이'는 너와 나, 당신, 우리 모두의 개념임을 밝혀 둔다. 혹자는 젊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하는데 '순수'나 '청아' 혹은 '절개' 등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는, 올해에 고회를 맞으면서 더욱 즐겁고 긍정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선 고대하던 첫 손주인 손녀딸을 보았으니, 주위 친구들에 비하면 10년 정도 늦을지라도 참 행복하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아도 아들과 며느리가 보내주는 손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음에 하루가 즐겁다.

아내도 수년 전에, 부정맥 시술을 받은 후에는 단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으며 나 역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 유전자 덕분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건강에 자신 있다고 장담은 못 한다. 근래에는 몸이 좀 둔해졌어도 아내와 함께 종종 셔틀콕을 교환하는 재미가 솔솔하다.

하나 더, 웃기는 것은 고회가 되니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 믿거나 말거나다.

이제 나 말고 바깥이나 주변, 넓게는 이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상념에 젖는다. 그 얘기를 잠시 하고 『늘 푸른이처럼』을 덮으려고 한다.

보릿고개를 겪었다는 노인들이 배고픔 모르며 자란 세대들에게 자기들 힘들게 살았던 옛날얘기 자꾸 하면, 별에서 온 꼰대로 취급을 받는다. 경험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경험을 원치않는 사람에게 경험을 강요

하는 것은 고문이나 마찬가지로일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잃고 느끼면서 늙어간다.

전쟁과 질병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발하여도 우리 인간은 종족 번식의 의무와는 무관하게 대를 잇는다. 그 중, 일부는 살아남게 되며 새로운 출생은 멈추지 않으니, 탄생의 축복 따위를 기대할 틈도 없이 나름 주어진 삶을 살게 된다.

나와 내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그들의 기억에 없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중에 태어났다. 세계 최빈국의 국민으로 출생하여 굶주리고 더러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렵의 나이가 되니 부정선거 규탄과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민 혁명이 일어나고 또 군사 쿠데타, 그리고 칠혹같은 터널로 비유되는 1인 장기집권의 이중성을 똑똑히 보아왔다.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루 세끼는 먹을 정도 되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붙으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추구를 위한 투쟁은 지속되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도 성공하고 고대하던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과거와는 또 다른 이념의 갈등이 병폐로 남아 있으니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발전과 화합이었던가?

2020년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

마스크 두 장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서며 대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배급을 받는 듯한 진풍경을 만들어 내고 가

뜩이나 불황으로 힘들어하던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핍박에 지쳐버렸다.

그런 와중에서도 마스크 낀 국민들에 의한 총선거는 치러지고 속칭 좌파로 지칭되는 힘 있는 정당이 압승하였으니 이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한다.

코로나 덕분에 당장은 세금 독촉을 받지 않으니 비록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지만, 숨 쉬는 데 힘이 덜 들고 무려 세 군데 주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의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면서도 일단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경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늘 그러하였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위로의 한마디를 반복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며 그냥 순응해 보라고 한다.

만약 행복한 미래가 온다면 지금의 경험들은 지구에 사는 존재들이 겪은 과거의 미담으로 남기를 고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은사 장국진 박사님과 삽화의 사용을 허락한 ‘나름대로 작가’ *墨井 아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동네사람들 문학선 · 011

늘 푸른이처럼

2020년 11월 20일 인쇄

2020년 11월 30일 발행

지은이 이병호

펴낸이 한민규

펴낸곳 우리동네사람들

등록번호 제 2000-000002 호

전화 1577-5433

메일 woori1577@hanmail.net

홈페이지 woori1577.com

저자와 우리동네사람들의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ISBN 979-11-971661-1-2

